

마  
태  
복  
음

SD  
II  
86





28.73.

COR. 1-584



# 마태복음

주강성일천관교구심오전

대조선국오백사년을미





## 마태복음

데일장 아백립한과 대위의 조손 예수괴독의 죽보 1라

아백립한은 이살을 낫코 이살은 아각을 낫코 아각은 유대와 그형  
데를 낫코<sup>三</sup> 유대는 대마시몸에서 범륵스와 살립을 낫코 범륵스  
는 이스륜을 낫코 이스륜은 아란을 낫코<sup>四</sup> 아란은 아미나달을 낫  
코 아미나달은 나순을 낫코 나순은 살문을 낫코<sup>五</sup> 살문은 랄합시  
몸에서 파스를 낫코 파스는 로득시 몸에서 아백을 낫코 아백은  
야서를 낫코<sup>六</sup> 야서는 왕대위를 나흐 나라 대위는 오리아에 안히  
로소라문을 낫코<sup>七</sup> 소라문은 라파암을 낫코 라파암은 아비아를  
낫코 아비아는 아살을 낫코<sup>八</sup> 아살은 요사번을 낫코 요스번은 요  
란을 낫코 요란은 오셔아로 낫코<sup>九</sup> 오셔아는 요단을 낫코 요단은  
아합스를 낫코 아합스는 희서가를 낫코 희서가는 마나서를 낫

코 마나서는 아문을 낫코 아문은 요셔아를 낫코 빅성을 파비를  
으로 옴길때에 요셔아는 야가니아와 그 형례를 나흐니라 빅성을  
파비를으로 옴긴후에 야가니아는 살립털을 낫코 살립털은 소  
라파빅을 낫코 소라파빅은 아비울을 낫코 아비울은 아리아금  
을 낫코 이리아금은 아소를 낫코<sup>十四</sup>아소는 살탁을 낫코 살탁은 아  
금을 낫코 아금은 이률을 낫코 이률은 이리아살을 낫코 이리아  
살은 마단을 낫코 마단은 아각을 낫코<sup>十五</sup>아각은 마리아 외남편요  
술을 나핫시니 괴독이라는 예수가 마리아의게로 나시니라 그  
런즉 모든 터수가 아빅 랍한 브터대 위서지 열네 터요 뜨대 위보  
터파비를으로 옴길때서지 열네 터요 뜨파비를으로 옴긴후 브  
터괴독서지 열네 터니라 예수 괴독나심은 이러호니라 그모친  
마리아가요 술파명흔호야 맛기전에 성신으로 써임뒤호옛시

니 그 남편 요술은 의로온사람이니 드러내고 져 아니하고 만  
이 죠 흐 라고 희 야 이 일을 성각할 때에 주의 소자 1 현몽 흐 여 굽  
으 터대 위의 조손요술 아네 안희 마리아 드려오기를 무서워 마  
라며의 게임 터훈 거손 성신으로 써됨이 오아들을 나흘 거시니  
일 흥은 예수 1 라닐 쿠르 라이는 그 빅성을 죄악에서 구하시리  
라 흠이니 라 이 러 훈모든 거손 쥬가 선지로 말씀 흐신 거술 일위  
려 흐심이니 말슴 흐 야 굽으 샤터 쳐녀가 임 터 흐 야 아들을 나흘  
거시니 일 흥은 이마 누리 라 흐 시니 번역 훈즉 하느 님이 우리와  
함께 흐심이라 요술이 자다가니 러나 셔주의 소자 의명령 터로  
안히를 다려오니 아들 낫키 선지 안희로 알지 아니하고 아기 일  
홈은 예수 1 라 흐니라

예이장

희를 왕시절에 예수 1 유래 빅리 흥에나 시니 박스

들이 동방에 서야로 살링에니 르러 말호여 굽으 터 유태사령의  
왕으로 나신이 가어터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 별을 보고 절호  
러 왓노라 희률왕파온아로 살링이 듯고 소동호야 제스제상과  
빅성에서 샤관을 다모화며 들의 케괴독이 어터 셔낫겟느뇨호  
니닐五너 굽으 터 유태 빅리홍이 니다 선지로 이려 케써 굽으 샤 터 유  
태 짜 빅리홍아 너는 유태고을 중에 그장적지 아니 흔자라 대개  
이식렬 빅성을 기르는 님군이네 캐셔나리라 호심이 러라 이에 희  
률이 그만이 박수를 불너 별이나 타난째를 조제히 웃고 빅리홍  
으로 보내며 닐너 굽으 터 가서 어린으 희를 조세히 타자 맞나거  
든 내게고 호라나도 가절호리라 박수 가왕의 말을 듯고 가더니  
동방에 쳐뵈던 별이 암호로 인도호야 아기잇는 곳서지니 르러  
그우희긋치는지라 별을 보고 그장크게 깃버호 더라 집에 드러

가아기와 그모친마리아를 보고 아기의 업드려 절하고 보비함  
을 열어례물을 드리니 황금과 유향과 몰약이 러라 <sup>12</sup>숨에 희 <sup>13</sup>률의  
세로도 라 가지 말나고 흠을 지시 <sup>14</sup>하니 다룬 길노제나라에 도라  
가니라 <sup>15</sup>박수는 떠난 후에 주의스자 <sup>16</sup>가 요술의 계현몽 <sup>17</sup>몽여골 <sup>18</sup>  
터니러나아기와 그모친을 다리고 익급으로 피호야나 <sup>19</sup>네게  
널으기서지잇거라대개희 <sup>20</sup>률이아기를 쳐자죽이려호 <sup>21</sup>느니라  
요술이니러나아기와 그모친을 다리고 밤에 익급으로 떠나 <sup>22</sup>거  
괴셔희 <sup>23</sup>률이죽기서지잇섯시니이거슨주가션자로말숨호 <sup>24</sup>신  
거슬일우려호심이니말숨호야 <sup>25</sup>금에서내아돌을불  
넷다호섯느니라 <sup>26</sup>이에희 <sup>27</sup>률이박수의계죠롱님음을알고심히  
성내여사름을보내야 <sup>28</sup>빅리홍과모든디경안에잇는사나회를  
박수의계조세히째를알아본터로두설브터그아래서지다죽

옛시니 그째에 선지야리미로 헌거슬일위 엇느 나라 말숨호  
야골으 샤티랍마에울며 크제설위호는 소리를 드렷시 나라<sup>十八</sup> 랍결  
시그조식을위호야울며조식이업는고로위로를밧지아니호  
다호셨느니라 회률이죽은후에 주의스자가이급에서요슬의  
제현몽호야<sup>十九</sup> 굽으더니러나아기와그모친을다리고 이식렬짜  
흐로가라대개아기의목숨을해호려호든사롭이죽었느니라  
요술이니러나아기와그모친을다리고 이식렬짜흐로오니라  
그러나아괴로가 그부친회률을니어님금됨을듯고거괴로  
가기를무서워호더니숨에지시호야 가리리디경으로도라가<sup>二十</sup>  
나살록이란음뉘에와서사니이는여러선지로나살록사롭이  
라호리란말숨호신거슬일우려호심이니라

예삼장 그째에세례주는요한이유태들에나르러반포호야

굽으 터 회지호라 련국이갓가오니라 <sup>이</sup><sub>는</sub>선지자이서아로  
말슴호신쟈니굽으샤터들에사룸의소리잇서웨여닐으터  
쥬의길을예비호야그첩경을곳제호라<sup>나</sup><sub>라</sub>이요한온약터  
털웃술님고가족썩를썩고뫼黍이와석청을먹더라<sup>이</sup><sub>라</sub>이째에야  
로살팅파온유태와요단량편이나아가각각제죄를조복호고  
요단강에서요한의계세례를밧으니법리식와살도히사룸들  
이세례밧으러옴을보고닐너굽으터독샤의종류들아뉘가너  
둘장리의노호심을피호라그르치더냐그런고로회지호눈터  
합당호실파를및고<sup>九</sup>모음에아빅립한이우리조상이라성각지  
말나대개나네개말호노니하느님이돌노아빅립한안데조  
손이니러나게도호시리라<sup>八</sup>이제독괴를나무뿔회에노핫시니  
뇨흔실과를및지아니호는나무마다썩어불에더지리라회지

제나는 물노세례를 주거니와 내뒤에 오시는이는 나보다 능력  
이만흐니나는 그신을 들기 도감당치못하노라 그는 성신파불  
노세례를 주시리라 손액키를 들고 마당에 곡식을 뿌아 케사불  
나알곡은 고간에 드리고 죽정이는 새지지안눈불에 터오리라  
이째에 예수1가리리로 요단에니르러요한의케세례를 밟으  
랴호신터<sup>十四</sup>요한이스양호야골으되내가세례를 밟울터인티엇  
지내게오셨느닛가<sup>十五</sup>예수1터답호야골으샤터이제허락호라  
우리가 맞당히이러케모든을 혼거술다흘지라호신터이에요  
한이허락호거늘예<sup>十六</sup>수1세례를 밟으시고 곳물에서 올나오실  
시하늘이 열니고 하느님의 성신이 비둘기 모양으로 느려그우  
희림호심을 보고 하늘노셔소리가잇서말숨호샤터이논내아  
돌이니내스랑호는아들이오내깃버호는이라호시더라

## 데스장

그 때에 성신이 예수를 인도 해야 들노가서 마귀의 제

시험을 뱗게 해 라 해 실서 예수 1 수십 일을 밤낮 굴무 신후에 주리시  
더니 시험 <sup>三</sup> 해 는 자 1 예수 셰와 굽으 터 만일 하느님의 아들이여  
든이 돌노역이 되게 해 라 예수 1 터 답 <sup>四</sup> 해 야 굽으 샤 터 괴록 혼 터  
잇시니 사룸이 역으로 만 살거시 아니 오오직 하느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거시니라 이에 마귀가 거룩 혼성으로  
다려 가 성던 쪽 닥이에 세우고 말 <sup>五</sup> 해 야 굽으 터 만일 하느님의 아  
들이여 든네가 네 몸을 더져는 리라 괴록 혼 터 잇시니 주 1 너를  
위해 야 소자의 계분부 해야 손으로 너를 뱟드러 네발이 돌에 부딪  
지 안제 해 시리라 해 셨느니라 예수 1 널 너 굽으 샤 터 괴록 혼  
터 잇시니 주너희하는 님을 시험치 말나 해 셨느니라 마귀가 또  
다리고 지극히 놈 혼산에 올나가련 하만국과 그영화를 뵈야 굽

으 터 만 일 내 게 업 드 려 절 흐 면 이 모 든 거 술 네 게 주 리 라. 이에 예  
수 1 말 슴 희 샤 터 살 단 아 물 너 가 거 라 고 록 혼 터 잇 시 니 쥬 너 회  
하 는 님 셰 절 흐 고 오 직 이 만 셈 기 라 흐 니 라. 이에 마 귀 예 수 를 떠  
나 고 텐 스 1 니 른 러 슈 종 드 더 라 예 수 1 요 한 의 가 침 을 드 르 시  
고 가 리 리 로 도 라 가 시 니 라 나 살 특 을 떠 나 가 빅 능 으로 가 셔 사  
시 니 그 짜 혼 희 변 이 라 셔 포 룬 파 납 대 리 디 경에 잇 시 니 이 는 섬  
지 이 셔 아 로 말 슴 희 신 거 슬 일 우 려 흐 심 이 니 말 슴 희 야 굴 우 샤  
되 셔 포 룬 짜 와 납 대 리 짜 는 바 다 가 요 단 건 너 이 방 사 름 의 가 리  
리 는 어 둔 터 사 는 빅 성 이 콘 빅 출 보 앗 고 죽 을 디 경 파 그 늘 에 사  
는 이 도 빗 쳐 니 러 나 리 라 흐 셔 느 니 라 아 째 브 터 예 수 1 전 도 를  
시 째 희 샤 말 슴 희 샤 터 뉘 웃 쳐 곳 치 라 하 늘 나 라 이 갓 가 오 니 라  
흐 시 니 라 가 리 리 희 변에 든 니 시 다 가 두 형 데 피 득 이 라 흐 는 셔

문과 제동 성안 득렬이 바다에 그 물 더 짐을 보시니 이는 어부  
라 말 숨 헥 샤 터 나를 쓰라 오너 라 내 너 희들이 사 룸을 잡는 어  
부가 되게 호리라 호시니 곳 그 물을 브리고 조치니라 거 괴 셔 가  
시 다 가다 른 형예 들 셔 비 태의 아들 아 각파 그 동성 요한을 보시  
니 이는 아버 셔 비 태 와 혼 가지로 비에 서 그 물을 깁 눈 터 부르 시  
거 놀 더 들이 곳비를 뿜나 아비를 리 벌 헛고 조치니라 예 수 1 온  
가 리 리에 두 루 돈 니 샤 빅 성의 회당에 셔 그 르 치 시며 하 놀나 라  
복 음을 전 흐 시고 빅 성 중에 모든 병파 알는 거 슬 곳 치 시니 소문  
이 셔 리아 온 디 방에 펴 지는 지 라 모 든 알는 자와 온 갓 병이 들어  
고 통 흐 는 자와 샤 귀들 낸 자와 간 질 흐 는 자와 풍 중 들 낸 자를 예  
수 띄 셔 다 려 오니 더 들을 곳 치 셋 더 라 가 리 리와 더 가 파 리 와 야로  
살 링 파 유 태 와 요 단 밧 괴 허 다 혼 사 룸이 조 치 니 라

데 오 장

무사 룸을 보시고 산에 올나가 안자 시니 뼈조들이

예수 셔나아 오거 늘입을 열어 그르쳐 길으샤 터 모음으로 뵙자  
는 복잇는 자로 다련국이 더희거심이 오의 통호는 이는 복잇는  
자로 다위로 흠을 밧을 거심이 오량순호이는 복잇는 자로 다띠

四

흘초지흘거심이 오의 소모호기를 주리고 목마름코 치호는 자

는 복잇는 자로 다비부를 거심이 오불상히넉이 눈자는 복잇는

五

자로 다불상히넉임을 엊울 거심이 오모음에 조찰호는 자는 복

六

잇는 자로 다하느님을 뵈울 거심이 오화목제호는 아는 복잇는

七

자로 다하느님의 아들이라닐코를 거심이 오의를 위호야 핍박

八

을 밟는자는 복잇는 자로 다련국이 더희거심이 오나를 인호야

九

너를 유흥고 핍박하고 모든 악호거슬거죽말노비방호면복잇

눈자로 다깃거하고 즐거워호라하늘에 셔큰양을 엊으리라네

전 선자도 이 콧 치 펫 박 호 옛 능 나라 <sup>十三</sup> 는 세 양에 소 곰이니 소 곰  
이 만일 그 맛 슬일 흐면 엇지 다시 짜게 흐리 오후에는 쓸 터 업서  
밧 괴 뿐 려 사 름의 쟈 끌 히는 바 <sup>一</sup> 되는 나라 <sup>十四</sup> 는 세 양에 빗 치니  
산 우 회 세 운 성이 숨기지 못 흘 거 시오 <sup>十五</sup> 사 름이 초 불을 혀서 말아  
래 두 지 아 니 흐고 오 직 촛 터 우 희 두 기는 온 집 사 름을 빗 최 쟈 흠  
이 니 <sup>十六</sup> 어 콧 치 너의 빗 출 사 름 암 희 빗 최 쟈 흐라 그 사 름 들이 너의  
착 혼 흉 실을 보고 너의 련 부를 영 화 롭 쟈 흐리 라 <sup>十七</sup> 내 가 률 범 파 선  
지 를 폐 흐 려 온 줄 노 알지 마 라 폐 흐 려 온 거 시 아 니 오 온 전 쟈 흠  
이 로 다 <sup>十八</sup> 내 실 노 네 쟈 널 으 노 니 련 디는 업 서 지 기 전에 룬 법 은 일  
염 일 획 이 라 도 결 단 코 업 서 지지 아니 흘 거 시오 <sup>十九</sup> 다 일 울 거 시라  
그 러 므로 누구 던 지 계 명의 지 극 히 적은 것 흐나 이 라 도 폐 흐여  
가 지 고 사 름을 그 르 치는 이 는 련 국에 서 지 극 히 적다 날 콧 를 거

시 오 오 직 누 구 던 지 이 터 로 춘 흥 희 며 그 르 치 면 이 련 사 름 은 험  
국 에 서 크 다 닐 쿼 르 리 라 내 내 캐 닐 으 노 니 너 희 의 가 셔 샤 관 파  
법 리 쇠 사 름 의 의 리 보 담 낫 지 못 희 면 결 단 코 련 국 에 드 러 가 지  
못 희 리 라 네 가 텷 사 름 의 말 을 드 렛 는 니 살 인 치 마 라 누 구 던 지  
살 인 희 면 죄 명 희 기 쉽 다 희 옛 시 나 오 직 나 는 날 으 노 니 누 구 던  
지 그 형 데 의 게 노 여 워 희 는 이 는 죄 명 희 기 쉽 고 또 누 구 던 지 그  
형 데 를 납 가 । 라 희 면 공 회 에 잡 어 가 기 쉽 고 또 누 구 던 지 미 련  
훈 자 । 모 레 라 희 면 디 옥 불 에 드 러 가 기 쉬 오 리 라 그 러 므로 레  
물 을 제 단 에 드 릴 때 거 괴 셔 네 가 형 데 의 게 죄 잇 솜 을 싱 각 희 거  
든 레 물 을 제 단 압 희 두 고 몬 저 가 형 데 로 화 히 혼 후 에 와 셔 레 물  
을 드 릴 거 시 오 네 가 송 스 희 는 자 고 치 길 에 잇 슬 때 예 급 히 스 화  
희 라 그 송 스 희 는 자 । 너 를 법 관 에 보내 매 법 관 이 관 예 의 게 보

내여 또 옥에 가돌가념려 흐노라 나  
내가 호리라도 갑기 전에 눈거고서 결단 코나올수 가업스리라 사  
를의 말을드렷느니 음란치 말나 흐옛시나오 는 직나는 너희게닐으 노  
니사룸마다 계집을 보고 음욕을 두면 무음에 임의 음란을 범함이니 는  
또 혼만일네울 혼눈이 너로 범죄케 흐거든 쟤여 브려라 네 빅례  
중에 흐나흘일는 거시온몸이 디옥에 짜지는 것 보덤나 흐리라  
또 혼만일네울 혼손이 너로 범죄케 흐거든 버혀 브려라 네 빅례  
중에 흐나흘일는 것 시온몸이 디옥에 짜지는 것 보덤나 흐리라  
또 말이잇스되 누구던지 안히를 브리랴 흐거든 후서줄거시라  
흐 엿스나나는 너희게닐으 노니 누구던지 간음호언고업시안  
희를 브리면 이 눈음란을 흐게 험이요 또 누구던지 브린안히의  
개장가드는 자 눈음란을 흉험이니라 또 네가 텷사룸의 말을 드

렛 는 니 밍 셰 를 져 봉 리 지 말 나 쥬 를 터 ㅎ 야 밍 셰 혼 거 손 반 드 시  
직 희 라 ㅎ 옛 스 나 나 는 너 희 계 님 ㅇ 노 니 도 모 지 밍 셰 ㅎ 지 말 나  
하 늘 노 밍 셰 치 말 나 이 는 하 늘 님 의 보 좌 요 짜 ㅎ 로 밍 셰 치 말 나  
이 늘 하 늘 님 의 발 도 듬 이 며 야 로 살 링 으로 밍 셰 치 말 나 이 는 콘  
인 군 에 서 울 이 요 네 가 너 의 머 리 로 밍 셰 치 말 나 혼 터 럭 도 희 고  
검 게 ㅎ 지 못 ㅎ 리 라 오 직 너 희 말 이 을 쿠 든 네 ㅎ 고 그 르 거 든 아  
니 라 만 홀 지 니 무 어 시 던 지 ㅇ 에 서 더 ㅎ 면 악 으로 조 차 음 이 니  
라 네 가 사 름 의 말 을 드 렷 다 ㅎ 니 눈 은 눈 으로 갑 고 니 는 니로 갑  
는 다 ㅎ 옛 스 나 나 는 너 희 계 님 ㅇ 노 니 흥 악 을 터 데 지 마 라 누 구  
던 지 너 희 올 흔 편 쌈 을 치 거 든 원 편 ㅅ 지 돌 녀 향 ㅎ 며 또 사 름 이  
너 희 를 송 ㅅ ㅎ 야 속 웃 슬 가 지 고 져 ㅎ 거 든 밧 것 웃 ㅅ 지 가 지 ㅎ  
하 며 또 누 구 던 지 억 지 로 우 리 를 동 힝 ㅋ ㅎ 거 든 그 사 름 파 십 리

를 동 힝 <sup>고</sup><sub>四二</sub> 너희 게 구호는 자 여든 주며 너희 게 빌니라 <sup>고</sup><sub>四三</sub> 호는 자  
여 든 물 니 치지 말지니라 <sup>사</sup><sub>四四</sub> 름의 말을 드렛느니 너희니 웃슬 <sup>스</sup><sub>四五</sub>  
랑 <sup>하</sup><sub>四六</sub> 고 너희 원슈를 뭐워 홀거 시라 <sup>하</sup><sub>四七</sub> 옛스나 <sup>나</sup><sub>四八</sub> 나 눈 너희 게 널으  
노 <sup>나</sup><sub>四九</sub> 너희원슈를 스랑 <sup>하</sup><sub>五〇</sub> 며 너를 팝박 <sup>하</sup><sub>五一</sub> 는 자를 위 <sup>하</sup><sub>五二</sub> 야 괴도 <sup>호</sup><sub>五三</sub>  
라 <sup>하</sup><sub>五四</sub> 이 <sup>코</sup><sub>五五</sub> 치 혼즉 너희가 하늘에 계신 아바지의 아들이 되느니 하  
늘 아바지 셰서 하를 선 혼자에 도 빗최고 악 혼자에 도 빗최며 비  
를 의로온 자에 도 젓게 <sup>하</sup><sub>五七</sub> 고 불의 혼자에 도 젓게 <sup>하</sup><sub>五八</sub> 시느니라 <sup>나</sup><sub>五九</sub> 너  
희가 너를 스랑 <sup>하</sup><sub>五九</sub> 혼자를 스랑 <sup>하</sup><sub>六〇</sub> 면 무슴 <sup>상</sup><sub>六一</sub> 이잇 <sup>스</sup><sub>六二</sub> 리오 <sup>세</sup><sub>六三</sub> 리는  
이 <sup>코</sup><sub>六四</sub> 지아니 <sup>하</sup><sub>六五</sub> 냐 <sup>도</sup><sub>六六</sub> 너희가 너외 형데의 게 만인 <sup>스</sup><sub>六七</sub> 하면 무어시  
늠 보다 <sup>자</sup><sub>六八</sub> 나리 오외방사 <sup>름</sup><sub>六九</sub> 은이 <sup>코</sup><sub>七〇</sub> 지아니 <sup>하</sup><sub>七一</sub> 냐 그 러므로 하늘  
에 계신 너의 아바지 온전이 거룩 <sup>홈</sup><sub>七二</sub> 과 <sup>코</sup><sub>七三</sub> 치온전 <sup>홀</sup><sub>七四</sub> 지니라  
**데록장** 너희는 조심 <sup>하</sup><sub>七五</sub> 야 <sup>님</sup><sub>七六</sub> 의 게 뵈 <sup>이</sup><sub>七七</sub> 랴고 사 <sup>룸</sup><sub>七八</sub> 들 암희 <sup>셔</sup><sub>七九</sub>

의 를 힝 흐 지 마 라 그 리 흐 면 하 능 에 계 신 너 희 아 바 지 의 상 을 엇  
지 못 흐 는니 라 ( ) 그 런 고 로 구 제 홀 째 에 거 죽 착 혼 레 흐 는자 ।  
회 당 과 거 리 에 서 님 의 계 영 광 엇 으 라고 흐 는 것 코 치 나 발 을 불  
지 말 나 내 실 노 너 희 계 널 으 노 니 더 희 는 양 을 임 의 밧 앗 는니 라 ।  
너 희 는 구 제 홀 째 에 올 흔 손 에 흐 는 거 슬 원 손 으로 알 게 흐 지 말  
나 이 러 캐 흐 여 야 너 희 구 제 홀 이 은 밀 흠 지 니 너 희 아 바 지 써 셔  
는 은 밀 흔 터 에 보 샤 나 타 나 게 갑 흐 시 리 라 ( ) <sup>五</sup> 또 너 희 가 괴 도 홀  
째 에 거 죽 착 혼 레 흐 는 자 와 꼬 치 말 나 더 희 는 사 름 의 계 뵈 이 라  
고 회 당 과 거 리 어 구 에 서 셔 괴 도 흐 기 를 뜻 화 흐 는니 라 내 실 노  
너 희 계 널 으 노 니 더 희 는 양 을 임 의 밧 앗 는니 라 <sup>六</sup> 너 희 는 괴 도 홀  
째 에 골 방 에 드 러 가 문 을 닷 고 은 밀 흔 터 에 계 신 너 희 아 바 지 써  
괴 도 흠 지 니 너 희 아 바 지 써 서 눈 은 밀 흔 터 에 보 샤 나 타 나 게 갑

흐시리라. 또 괴도 홀째에 외방사로 과갓 치중 언부 언호지 말나  
더 회는 말을 만히 흐여 야드르 실줄 아느니 그럼으로 더 회를 본  
밧지 말나 너희 가구 흑기 전에 너희 쓸거슬 너희 아바지 떠셔 아  
시느니라 그 런교로 이려 채괴도 흐드하늘에 계신 우리 아바지  
여 일홈이 거룩 흐심이나 타나 웁사며 나라 히림 흐옵시며 뜻시  
하늘에 서 일움코 치짜에 서도 일우여지이다 오늘날 우리의 채  
일용흘량식을 주옵시고 우리 죄를 면흐여 주심을 우리 가우리  
게득죄흔쟈를 면흐야 줌코 치샤흐 옵시고 우리 가시험에 들지  
말게 흐옵시고 다만 우리를 흉악에 서 구흐옵쇼서 대개 나라  
와 권세와 영광이 아바지 써영원이잇스옵느이다 아멘 흐여라  
너희 가님의 죄를 용서 흐야 주면 너희 하늘아바지도 너희 죄  
를 샤흐야 주려니와 <sup>十五</sup>너희 가님의 죄를 용서 치아니 흐면 너희 아

바지도 너희 죄를 사호야 주지 아니하시리라 () 금식 홀째에 너  
희는 거즈착 훈데 흐논자와 굽치실심 흐는 모양을 흐지마라더  
희는 금식 흐는 거슬금의 게뵈이랴고 얼굴을 변흐느니라 내실  
노너희게널으 노니더희는 양을 임의 밧았느니라 금식 홀째에  
너희는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씨스라 이는 금식 흐는 거  
슬금의 게뵈이랴 흠이 아니오은 밀흔티에 계신 아바지 셋만뵈  
임이니라 또너희 아바지 셋션은 밀흔티에 보샤나 타나게 갑  
흐시리라 () 저물울 짜해싸하 두지마라 좀이 먹고 동록이 쓸코  
도적이 구멍뚫고 도적질 흐여 가는 곳이니 오직 저물을 하늘에  
싸하 두어 라좀이 먹지도 안코 동록이 쓸지도 안코 도적이 구멍  
뚫코 도적질도 아니 흐여 가는 곳이니라 저물잇는 곳에 너희 모  
옴도잇는니라 눈은 몸에 등불이니 그련고로 너희 눈이 붉으면

온 몸이 빛 날 거시오 눈이 흐리면 온 몸이 어둠 거시니 만일 너희  
께 있는 빛 치어 두면 그 어둔 거시 얼마나 크겠느뇨 혼사람이 두  
쥬인을 섬기지 못할 거시니 혹 이를 뭐워 흐며 더를 소랑 흐거나 혹  
이를 중히 넉이며 더를 경히 넉 입이라 너희도 하느님과 지물을  
경호 야 셈 기지 못하는 나라 그 런 고로 내 너희께 널으 노니 너희  
목숨을 위호 야 무어 슬먹으며 무어 슬마실가념려 흐지 말며 몸  
을 위호 야 무어 슬님을 가념려 치말지어다 목숨이 음식보다 중호  
지 아니호며 몸이 의복 보다 중호지 아니호냐 공중에는 새를  
보아 라심으지도 아니호 고거 두지도 아니호 고곡간에 싸치도  
아니호 되하늘 아바지 써셔 기르시니 너희는 그것들 보다 귀호  
지 아니호냐 너희 중에 누가념려 흠으로 목숨을 일각이나 더호  
겟느냐 또 너희가 엊지의 복을 위호 야 근심호는냐 들에 빅합燭

치 엉더 케 자르는 가상각 호야 보아라 슈교도 아니호고 절삼도  
아니호느니라<sup>二九</sup> 그러나 내너희게 말호노니 소라문의 극Hon영광  
으로도 님은 거시이 췄호나 만긋지 못호 옛느니라<sup>三十</sup> 적케 멋는 이  
들아하느님 셜셔는 오늘잇다 가리일아궁이에 더지는 들풀도  
이러케 갓구시거든호 물며너희야더님 히지아니호랴<sup>三一</sup> 그린고  
로 넘려호야 굽으되 무엇슬먹을가무엇슬마실가무엇슬님을  
가호지말나이 모든거손이방사름이구호느니 대개너희하늘  
아바지는너희쓸거슬다아시느니라<sup>三二</sup> 너희는 몬져하느님의나  
라와의를구호라이 모든거슬너희게더호리니 그련고로리일  
을위호야 넘려호지마라리일일온리일넘려호고 오늘일은오  
늘호는거시족호니라호시더라

## 데칠장

펌론을밧지아니호랴거든님을펌론치마라님을

평론<sup>호</sup>는 터로 너도 평론을 밧을 거시오 눔을 해아리는 터로 너  
도 해아림을 밧을 거시니 <sup>三</sup>엇지<sup>+</sup> 헤야 동성의 눈 속에 있는 티 눈 보  
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성각지 못<sup>四</sup> 헤느나 <sup>四</sup>또 엇지 헤여 동성 드  
려 눈닐<sup>五</sup> 터 날를 용납<sup>+</sup> 헤여 네 눈에 티를 쎌<sup>+</sup> 켜 헤라 헤면서 네 눈  
에는 들보가 오히려 있느나 <sup>五</sup>거조착 혼례<sup>+</sup> 헤는 이여 몬져 네 눈에  
잇는 들보를 쎌여야 그 후에는 동성의 눈에 있는 티를 쎌기 애복  
히 뵈이리라 ()<sup>六</sup> 거록 혼거슬개<sup>+</sup> 주지 말며 진주를 도야지 압회  
더지자마라 더희가<sup>+</sup> 그거슬<sup>+</sup> 봄고 도리<sup>+</sup> 쥐너를 물가<sup>+</sup> 헤노라 ()<sup>七</sup> 구  
흐면 엊을 거시오<sup>+</sup> 쟈지면 맛날<sup>+</sup> 거시오<sup>+</sup> 두<sup>+</sup> 드리면 열어<sup>+</sup> 주실<sup>+</sup> 거시  
니<sup>八</sup> 구<sup>+</sup> 헤는 자마다 엊을 거시오<sup>+</sup> 쟈보는 자마다 맛날<sup>+</sup> 거시오<sup>+</sup>  
드리는 자의 깨열어<sup>+</sup> 주리라<sup>九</sup> 너희<sup>+</sup> 중에 아들이 떡을 구<sup>+</sup> 헤면 돌을  
주<sup>+</sup> 성선을 구<sup>+</sup> 헤면 비암을 줄사<sup>+</sup> 름이<sup>+</sup> 잇겠느나<sup>+</sup> 너희<sup>+</sup> 가악<sup>+</sup> 홀지

라도 휘거스로 조식을 줄줄 알거든 호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바니 써셔 더 옥묘 휘거스로 구호는 이를 주심이여 그 런고로  
무어시던 지님의 계티접을 밋고 져호거든 너도님을 터접하여  
라이는 룰법파선지의 큰뜻시니라 () 좁은문으로 드러가거라  
멸망으로 인도호는 문은 넓고 그길이 커서 드러가는 이가만코  
성명으로 인도호는 문은 좁고 길이 험호여 찾는 이가 적으니라  
( ) 거조선지자들을 삼갈지어다양의 웃슬님고너희께 나오나  
속에 눈로량호랴는 일희니라 더희열미로 더희를 알지니가식  
나무에서 엇지포도를 따며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  
와코치묘흔나무에는 묘흔실파를 멋고 악흔나무에는 악흔실파  
를 멋느니 묘흔나무에 악흔실파를 열니지 못하고 악흔나무  
에 도흔실파를 열니지 못호는지라 묘흔실파가 열니지 아니호

는 나무는 쪽 어 불에 더 지리니 이 런고로 그 실과를 보와 아느니  
라 날 드려 쥬여 쥬여 혼다 고 흐 눈이 눈 하늘나라에 다 드려 갈거  
시 아니 오 하늘에 계신 내 아바지의 뜻 터로 힁 흐 눈이라 야 드려  
가리라 그 날에 여려사람들이 날 드려 널으 터 쥬여 쥬여 우리가  
쥬의 일홈으로 예언을 헤며 쥬의 일홈으로 귀신을 쫓치며 쥬의  
일홈으로 여려가지 능호일을 힁치 아니 흐 옛느 낫 가 흐리니 내  
가 더 회계붉히 말 흐여 곧으 터내너를 도모지 모로 누니 악호일  
흐 눈자들 아내 게셔 뼈나가라 흐리라 그 럴 으로 누구던지 내  
말 올 듯고 힁 흐는 이는 지혜잇는 이 가집을 반석우에 지음고 흐  
리니 비 가느 리고 홍슈가나고 바룸이 부러 그 집에 부딪치되 너  
머지지 아니 흐눈거 손반석우에 터를 닥근 연고요 二六 누구던지 내  
말 올 듯고 힁 치 아니 흐는 이는 어리석은 이 가집을 모리우에 지음

又 허리니 비가 느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부러 그 집에 부딪치  
매 크게 문 헤지느니라。<sup>(一)</sup> 몇 촘예 수 1 이 말 숨을 긋치시 매여 러  
사 름이 그 그르 치심을 이 양히 넉 임은 대개 그 그르 치신 거시 권  
능 있는 이 와 코 고서 샤관 파코 지 아니 흠 일 너라

### 네 괄 장

예 수 1 산

예 수 1 산에 서 는 려 가 시 니 허 다 흔 사 름이 쪽 는 지

라 흔 드 동 이 나 아 와 절 흐 고 골 으 터 쥬 셰 서 만 일 흐 고 져 흐 시 면  
능 히 더 를 조 찰 채 흐 시 리 이 다 흐 거 늘 예 수 1 손 을 펴 서 문 지 시  
며 골 으 샤 터 내 가 흐 고 져 흐 노 니 조 찰 흠 을 밟 어 라 흐 신 터 쥬 사  
문 동 병 이 조 찰 흐 여 진 지 라 <sup>(四)</sup> 예 수 1 닐 너 골 으 샤 터 삼 가 흐 여 아 모  
의 깨 날 으 지 말 고 다 만 바로 가 셔 제 소 의 깨 네 몸 을 뵈 이 고 마 셔  
의 명 혼 헤 물 을 드 려 웃 사 름 의 깨 중 거 흐 라 흐 시 더 라 <sup>(五)</sup> 예 수 1 가  
빅 농 에 드 러 가 시 니 혼 빅 부 장 이 나 아 와 고 구 흐 야 골 으 터 쥬 여

내 종이 반신불 츄병으로 집에 누어 봄시고로 웨호느이다. 굽으  
샤 터 내가 가셔 곳쳐 주리라. 빅 부장이 터 담호여 굽으 터 쥬 셔 셔  
제 집에 오심을 감당치 못할 것스 오니 다만 말씀만 할 시면 제 종  
이 나흐리이다. 더도 권세 아래 잊고 더 아래 군스가 잊스니 이 드  
려 가라. 하면 가고 더 드려 오라. 하면 오고 제 종 드려 이리. 하라. 하  
면 그 터로 힝호는이다. 흐니 예수-드르. 시고. 괴이. 히녀여. 쪽는이  
드려 널. 너. 굽으. 샤 터. 내. 실. 노. 네. 계. 널. 노. 니. 이. 석. 렐. 사. 름. 중. 에. 이  
코 치. 콘. 멋. 음. 을. 맛. 나. 보. 지. 못. 할. 옛. 노. 라. 또. 널. 노. 니. 동. 서. 편. 에. 셔  
여. 러. 오. 는. 사. 름. 들. 은. 아. 빅. 남. 한. 파. 이. 살. 파. 아. 각. 파. 콧. 치. 련. 국. 에. 안  
거. 니. 와. 련. 국. 의. 조. 손. 들. 은. 밧. 것. 어. 두. 온. 드. 췄. 겨. 나. 셔. 거. 괴. 셔. 슬. 피  
울. 고. 니. 를. 갈. 니. 라. 예. 수. 1. 빅. 부. 장. 드. 려. 널. 노. 샤. 터. 갈. 지. 어. 다. 네. 멋  
음. 으. 로. 그. 러. 케. 되. 리. 라. 하. 시. 니. 곳. 그. 시. 로. 종. 이. 나. 흐. 니. 라. ( ) 예. 수. 1

피 득 의 집에 가서 그장 모가 렬병으로 알아 누음을 보시고 그 손  
울 문지시니 렬병이 물너가니니 러나셔 예수 셜시 종호 더라<sup>十五</sup>  
저녁이 되매사람들이여 러샤귀들 낸쟈를 예수 셜드려 오거늘 예  
수 1 말슴으로 귀신들을 쫓<sup>十六</sup>내시고 병든쟈를 다got치시니 그  
거시이 쇠아션자로 말슴<sup>十七</sup>신거슬일우려<sup>十八</sup>호심이니닐<sup>十九</sup>으샤티  
우리연약호거슬 담당<sup>二十</sup>호우리병을 질며 젓다<sup>二十一</sup>호션느니라<sup>二十二</sup> 예  
수 1 허다<sup>二十三</sup>호사람이에워쌀을보시고<sup>二十四</sup>명호<sup>二十五</sup>샤더편으로<sup>二十六</sup>건너가  
라<sup>二十七</sup>호시니라<sup>二十八</sup>호서샤관이나아와<sup>二十九</sup>예수 셜<sup>三十</sup>말슴<sup>三十一</sup>호되션<sup>三十二</sup>성님<sup>三十三</sup>님어터  
로<sup>三十四</sup>가시던지더는조치리이다<sup>三十五</sup>예수 1 닐<sup>三十六</sup>으샤더여<sup>三十七</sup>호도굴이잇  
고<sup>三十八</sup>공중에석도집이잇스되오적인<sup>三十九</sup>노머리둘곳시업<sup>四十</sup>다호시  
더라<sup>四十一</sup>데<sup>四十二</sup>즈중에<sup>四十三</sup>또<sup>四十四</sup>호나히<sup>四十五</sup>글<sup>四十六</sup>으<sup>四十七</sup>뒤<sup>四十八</sup>쥬여<sup>四十九</sup>나를<sup>五十</sup>몬져<sup>五十一</sup>가서<sup>五十二</sup>부친<sup>五十三</sup>을<sup>五十四</sup>장  
스<sup>五十五</sup>호제<sup>五十六</sup>호여<sup>五十七</sup>주옵<sup>五十八</sup>쇼서<sup>五十九</sup>호니예<sup>六十</sup>수 1<sup>六十一</sup>글<sup>六十二</sup>으<sup>六十三</sup>샤<sup>六十四</sup>더<sup>六十五</sup>죽은쟈<sup>六十六</sup>로<sup>六十七</sup>더의<sup>六十八</sup>죽

온 자를 장스<sup>한</sup> 케<sup>한</sup> 고 너는 나를 조치라<sup>(一)</sup>) 예수<sup>一</sup> 비에 오르시  
니 데<sup>도</sup> 들이 쫓더라<sup>(二)</sup> 또 바다에 큰 놀이니 러나를 결이<sup>비</sup>에 덥히  
되 예수는 줌으<sup>(三)</sup> 시더니<sup>(四)</sup> 그 데<sup>도</sup> 들이 나아와 써우며<sup>(五)</sup> 굽으<sup>(六)</sup> 터 쥬여  
구<sup>(七)</sup> 쇼셔우리들이 죽겠는이다<sup>(八)</sup> 예수<sup>一</sup> 널<sup>으</sup> 샤<sup>터</sup> 적케<sup>(九)</sup> 멋는이  
아<sup>(十)</sup> 웨<sup>(十一)</sup> 무<sup>(十二)</sup> 셔<sup>(十三)</sup> 워<sup>(十四)</sup> 허<sup>(十五)</sup> 는<sup>(十六)</sup> 냐<sup>(十七)</sup> 허<sup>(十八)</sup> 시<sup>(十九)</sup> 고<sup>(二十)</sup> 곳<sup>(二十一)</sup> 니<sup>(二十二)</sup> 러<sup>(二十三)</sup> 나<sup>(二十四)</sup> 샤<sup>(二十五)</sup> 바<sup>(二十六)</sup> 람<sup>(二十七)</sup> 과<sup>(二十八)</sup> 바<sup>(二十九)</sup> 다<sup>(三十)</sup> 를<sup>(三十一)</sup> 쑤<sup>(三十二)</sup> 지<sup>(三十三)</sup> 지<sup>(三十四)</sup>  
신<sup>(三十五)</sup> 터<sup>(三十六)</sup> 아<sup>(三十七)</sup> 조<sup>(三十八)</sup> 잔<sup>(三十九)</sup> 잔<sup>(四十)</sup> 허<sup>(한)</sup> 거<sup>(한)</sup> 늘<sup>(한)</sup> 사<sup>(한)</sup> 름<sup>(한)</sup> 들<sup>(한)</sup> 이<sup>(한)</sup> 괴<sup>(한)</sup> 이<sup>(한)</sup> 히<sup>(한)</sup> 너<sup>(한)</sup> 여<sup>(한)</sup> 굽<sup>(한)</sup> 으<sup>(한)</sup> 터<sup>(한)</sup> 이<sup>(한)</sup> 업<sup>(한)</sup> 더<sup>(한)</sup> 혼<sup>(한)</sup>  
사<sup>(한)</sup> 름<sup>(한)</sup> 이<sup>(한)</sup> 관<sup>(한)</sup> 터<sup>(한)</sup> 바<sup>(한)</sup> 람<sup>(한)</sup> 과<sup>(한)</sup> 바<sup>(한)</sup> 다<sup>(한)</sup> 도<sup>(한)</sup> 순<sup>(한)</sup> 종<sup>(한)</sup> 허<sup>(한)</sup> 눈<sup>(한)</sup> 고<sup>(한)</sup> 허<sup>(한)</sup> 더<sup>(한)</sup> 라<sup>(한)</sup> )<sup>(元)</sup> 또<sup>(한)</sup> 예수<sup>一</sup> 건<sup>(한)</sup> 너<sup>(한)</sup>  
편<sup>(한)</sup> 혁<sup>(한)</sup> 혁<sup>(한)</sup> 사<sup>(한)</sup> 짜<sup>(한)</sup> 흐<sup>(한)</sup> 로<sup>(한)</sup> 드<sup>(한)</sup> 러<sup>(한)</sup> 가<sup>(한)</sup> 설<sup>(한)</sup> 시<sup>(한)</sup> 샤<sup>(한)</sup> 귀<sup>(한)</sup> 들<sup>(한)</sup> 닌<sup>(한)</sup> 사<sup>(한)</sup> 름<sup>(한)</sup> 둘이<sup>(한)</sup> 잇<sup>(한)</sup> 서<sup>(한)</sup> 심<sup>(한)</sup> 히<sup>(한)</sup> 사<sup>(한)</sup>  
오<sup>(한)</sup> 나<sup>(한)</sup> 와<sup>(한)</sup> 사<sup>(한)</sup> 름<sup>(한)</sup> 이<sup>(한)</sup> 능<sup>(한)</sup> 히<sup>(한)</sup> 그<sup>(한)</sup> 길<sup>(한)</sup> 노<sup>(한)</sup> 지<sup>(한)</sup> 나<sup>(한)</sup> 가<sup>(한)</sup> 지<sup>(한)</sup> 못<sup>(한)</sup> 허<sup>(한)</sup> 더<sup>(한)</sup> 나<sup>(한)</sup> 무<sup>(한)</sup> 덤<sup>(한)</sup> 에<sup>(한)</sup> 서<sup>(한)</sup> 나<sup>(한)</sup> 아<sup>(한)</sup>  
와<sup>(한)</sup> 예<sup>(한)</sup> 수<sup>(한)</sup> 를<sup>(한)</sup> 맛<sup>(한)</sup> 나<sup>(한)</sup> 매<sup>(二十九)</sup> 소<sup>(한)</sup> 리<sup>(한)</sup> 질<sup>(한)</sup> 너<sup>(한)</sup> 굽<sup>(한)</sup> 으<sup>(한)</sup> 터<sup>(한)</sup> 하<sup>(한)</sup> 는<sup>(한)</sup> 님<sup>(한)</sup> 의<sup>(한)</sup> 아<sup>(한)</sup> 들<sup>(한)</sup> 아<sup>(한)</sup> 우<sup>(한)</sup> 리<sup>(한)</sup> 가<sup>(한)</sup> 너<sup>(한)</sup>  
와<sup>(한)</sup> 무<sup>(한)</sup> 숨<sup>(한)</sup> 상<sup>(한)</sup> 관<sup>(한)</sup> 이<sup>(한)</sup> 잇<sup>(한)</sup> 는<sup>(한)</sup> 뇨<sup>(한)</sup> 째<sup>(한)</sup> 가<sup>(한)</sup> 니<sup>(한)</sup> 르<sup>(한)</sup> 기<sup>(한)</sup> 전<sup>(한)</sup> 에<sup>(한)</sup> 여<sup>(한)</sup> 괴<sup>(한)</sup> 와<sup>(한)</sup> 써<sup>(한)</sup> 우<sup>(한)</sup> 리<sup>(한)</sup> 를<sup>(한)</sup> 고<sup>(한)</sup> 롭<sup>(한)</sup>  
게<sup>(한)</sup> 허<sup>(한)</sup> 누<sup>(三十)</sup> 뇨<sup>(한)</sup> 멀<sup>(한)</sup> 니<sup>(한)</sup> 셔<sup>(한)</sup> 만<sup>(한)</sup> 흔<sup>(한)</sup> 도<sup>(한)</sup> 야<sup>(한)</sup> 지<sup>(한)</sup> 떼<sup>(한)</sup> 가<sup>(한)</sup> 먹<sup>(한)</sup> 는<sup>(한)</sup> 지<sup>(한)</sup> 라<sup>(三)</sup> 샤<sup>(한)</sup> 귀<sup>(한)</sup> 들<sup>(한)</sup> 이<sup>(한)</sup> 예<sup>(한)</sup> 수<sup>(한)</sup> 셰<sup>(한)</sup>

근 구 흐 여 골 으 터 만 일 우 리 를 쪽 쳐 내 실 진 터 도 야 저 떼 에 드 려  
보 내 쇼 셔 닐 으 샤 터 가라 흐 시 니 샤 괴 들 이 나 가 셔 도 야 저 게 로  
드 러 가 니 도 야 저 떼 가 비 탈 노 급 히 는 려 바 다로 드 러 가 물 에 셔  
몰 스 흐 거 늘 도 야 지 치 던 이 다 라 나 읍 니 에 드 러 가 이 일 파 샤 괴  
들 닌 이 의 당 혼 일 을 다 말 흐 니 일 읍 이 다 예 수 를 맛 나 러 나 가 보  
고 그 디 경 에 셔 짜 나 시 기 를 근 구 흐 더 라

데 구 장 예 수 1 빵 에 올 나 건 너 가 샤 고 향 에 니 르 시 니 사 름  
들 이 반 신 불 슈 병 으로 요 에 누 은 이 를 메 고 왓 거 늘 예 수 1 그 멋  
음 을 보 시 고 병 든 쟈 드 러 닐 으 샤 터 쇼 즈 야 안 심 흐 여 라 네 죄 를  
샤 흐 엿 는 니 라 셔 샤 관 멧 사 름 이 모 음 속 으로 닐 으 터 이 사 름 이  
참 람 흐 도 다 예 수 1 그 뜻 슬 알 으 시 고 골 으 샤 터 너 희 가 엊 지 악  
훈 성 각 을 품 느 나 네 죄 를 샤 흐 엿 다 흐 는 말 과 니 러 나 든 니 라 흐

는 말 이어 누 거 시 쉽겠느 놈 <sup>六</sup> 너희가 인자 | 세상에서 죄를 사호  
는 권세가 있는 줄을 알게 헤리라 헤시고 병든이 드려 말숨 헤샤  
되니 러나 네요 올 가지고 네 집으로 도라 가라 헤시니 그 사람 이  
니 러나 집으로 도라 가거 <sup>七</sup> 놀여 러사 둠이 보고 이 상 히 낙이 며하  
느 남세셔서 이 런 권능으로 사 둠의 게 주신 영광을 찬미 헤더라 ( ).  
예수 1 거 괴셔 떠나 가사 다 가마태 라 헤는 사 둠이 세판에 안진  
거술보시고 날으 샤터나를 쪘치라 헤시니 그사 둠이니 러나 쪽  
치니라 ( ) 예수 1 마태의 집에 서 음식을 잡수 실서 여러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 데즈들을 노홍세 안졌더니 법이 서사 둠  
들이 보고 그 데즈들을 드려 날으 터 엇지 헤야 너희 선성이 세리와  
죄인들 노더 브러 음식을 먹느니 헤 <sup>八</sup> 놀 예수 1 드르시고 날으  
샤터 건장호이 의 게는 의원이 쓸터 업고 병든이 의 게 쓰느니라 ( ).

나는 불상이 넉이는 거슬줄 겨하고 제스는 즐겨 헤지 안노라  
신뜻술가셔비호라 대개내가올흔사람을 불으러온거시아니  
오죄인들을 불으러 왔노라( )<sup>十四</sup>째에요 한의데즈들이 예수께나  
아와글으티우리와바리식사람들은자조금식을희되엇지그  
터의데즈들은금식을아니호느뇨호니<sup>十五</sup>예수丨글으샤티혼인  
치하간사람이신랑과홍색잇슬째엇지슘허호리오날이니르  
러신랑을리별흔후에금식흘지니라<sup>十六</sup>새가음으로헌옷슬깁지  
안는거슨기운거시도로혀그옷슬더햇드릴가홈이오<sup>十七</sup>새술을  
헌가족부덕에넛치안는거슨술이서교부덕가씨여절싸홈이  
니새술은새부덕에너허야풀이다보전호느니라( )<sup>十八</sup>예수丨이  
런말씀을호실째에호판원이와셔절호고글으티내뜰이지금  
죽엇소오니가셔셔그몸에손만덕히시면살겟느이다<sup>十九</sup>예수丨

니 러나 쪽 쪽 가실 시에 조들도 흠 셔 가니라 <sup>二十一</sup> 열 두 히를 혈 누 종으  
로 알는녀인이 예수 뒤를 쪽 쪽 와서 그 옷 그를 문지니 제 모 음에  
는 그 옷 만문져도 늦겠다 흠이라 <sup>二十二</sup> 예수 — 도라 보시며 굽으샤 터 썰  
아 안심히 여라 네 멋음이 너를 늦게 흠느니라 <sup>二十三</sup> 흠 시니 그 시로 늦  
더라 <sup>二十四</sup> 예수 — 그 판원의 집에 드러가 샤 피리 부는 자들 파뭇사 류  
이 헌화 흠을 보시고 굽으샤 터 물너 가라이 쳐녀가 죽은 거시아  
니 오잔다 <sup>二十五</sup> 흠 시니 뭇사 류이 비웃더라 <sup>二十六</sup> 뭇사 류을 내여 보낸 후에  
예수 — 드러가 샤 그 쳐녀의 손을 잡으시 매 쳐녀가 곳니 러나니  
그 소문이 온디 경에 펴지더라 <sup>二十七</sup> () 예수 — 거 괴서 뼈 나가 실서 두  
쇼경이 쓰라오며 소리 질너 굽으 터 대위의 조손은 우리를 불상  
히 넉이 쇼셔 흠더니 <sup>二十八</sup> 예수 — 집에 드러가시 매 쇼경들이 오거늘 예  
수 — 굽으 샤 터 내 능히 이 일 훌거 슬너 회가 멋느냐 터 답하되 쥬

여 그 러 흑 니 이 다 예 수 一 더 희 눈 을 문 지 시 며 굽 으 샤 터 너 희 및  
는 터 로 되 리 라 흑 시 니 그 눈 들 이 붉 은 지 라 예 수 一 엄 이 경 계 흑  
샤 터 삼 가 사 름 들 알 게 흑 지 말 나 흑 셋 더 니 그 들 이 나 아 가 셔 그  
소 문 을 온 디 방 에 전 파 흑 더 라 ( ) 나 같 째 에 샤 귀 들 념 병 어 리 된  
이 를 예 수 셔 드 려 오 매 샤 귀 가 췄 겨 나 니 병 어 리 가 말 흑 거 놀 허  
다 혼 사 른 들 이 괴 괴 히 넉 여 굽 으 터 이 석 렬 가 온 터 셔 눈 이 런 일  
을 처 음 본 다 흑 되 범 이 석 사 름 은 굽 으 터 더 가 귀 신 왕 을 빙 자 흑  
야 샤 귀 를 췄 는 다 흑 더 라 ( ) 예 수 一 모 든 성 파 촌 에 두 루 든 니 샤  
회 당 에 서 그 르 치 시 며 턴 국 복 음 을 전 흑 시 며 빅 성 의 모 든 질 병  
을 곳 치 시 니 라 허 다 혼 사 름 들 이 님 자 업 는 양 파 꼬 치 고 성 흑 (며  
류 리 흑 는 거 슬 보 시 고 민 망 히 넉 이 샤 데 드 려 널 으 샤 터 츄 슈  
흘 거 슨 만 흑 되 일 군 은 적 으 니 쥬 인 의 계 고 구 흑 여 일 군 을 보 내

여 츄 슈 헤 헤 야 주 쇼 셔 헤 라 헤 시 더 라

데 십 장

예 수 열 두 데 조를 부르샤 샤 귀를 쫓 치며 모든 질

병을 곳 치는 권 능을 주시니 ( ) 열 두 데 조의 일 흠이 첫 재 눈 피 드  
이 라 헤는 셔 문 파 그 동 성 안 드 열 과 셔 비 태 의 아 들 아 각 파 그 동  
성 요 한 과 비 력 과 파 다 라 미 와 다 마 와 셰 리 마 태 와 아 드 비 의 아  
돌 아 각 파 륵 비 라 헤 드 달 태 와 셔 문 이 라 는 예 와 예 수 를 판 가 략  
사 름 유 대 | 라 예 수 | 이 열 훌 을 보 내 시 며 명 흐 여 금 으 샤 터 ( )  
이 방 길 노 가 지 말 고 살 마 리 아 고 울 노 드 러 가 지 말 고 이 석 렬 집  
에 일 허 브 린 양 의 게로 가 라 가 셔 전 도 흐 여 말 흐 되 련 국 이 갓 가  
왓 다 흐 고 병을 곳 치며 죽 은 이 를 니 르 키 며 문 동 이 를 씨 췄 게 흐  
며 샤 셔 를 췄 차 내 되 너 희 가 그 저 뱂 앗 스 니 그 저 흐 여 주 어 라 ( )  
너 희 쥬 먼 이 에 금 파 은 파 동 이 나 전 터 나 드 벌 웃 시 나 신 이 나 지

꿩 이 도 예 비 치 말 나 일 군 이 음 식 엇 기 는 맛 당 흐 니 라 엇 던 성 이  
나 마 을 이 나 드 러 가 셔 맛 당 혼 사 름 을 쳐 자 너 희 죽 나 기 쇠 지 거  
거 서 머 물 고 늄 의 집 에 드 러 갈 째 에 편 안 흐 기 를 빌 나 그 집 이 복  
밧 을 만 흐 면 너 희 빙 터 로 주 실 터 이 오 못 밧 을 터 이 면 너 희 빙 거  
시 너 희 게 로 도 라 오 게 흐 시 리 라 누 구 던 지 너 희 를 영 접 도 아 니  
흐 고 너 희 말 도 듯 지 안 니 흐 거 든 그 집 이 나 성 이 나 죽 날 적 에 너  
희 발 에 몬 지 쇠 지 써 러 봉 리 라 내 실 노 너 희 게 널 으 노 니 심 판 흐  
는 날 에 소 다 마 와 아 마 람 형 벌 도 그 성 보 다 견 든 기 가 나 으 리 라  
( ) 내 너 희 를 보 냄 이 양 이 일 희 가 온 드 러 감 과 죽 흐 니 그 런 고  
로 지 혜 는 비 암 콧 고 슬 흄 은 비 둑 이 콧 치 흘 기 시 오 사 름 들 을 삼 가  
흐 여 라 더 들 이 너 희 를 공 회 에 잡 아 가 고 더 희 회 당 에 서 채 쪽 질  
흐 리 라 또 너 희 가 장 췄 내 연 표 로 방 농 파 왕 의 계 잡 혀 가 셔 더 희

들 파이방사 룸 들의 게 중 거 허 리 니 <sup>ナ</sup> 네 희를 잡을 때에 엊 지 흠 고  
허 며 엉 더 째 말 훌 거 슬 넘 려 치 마라 곳 그 시에 엉 더 채 말 헤 채 허  
여 주 시 리 니 <sup>ナ</sup> 네 희 가 말 헤 는 이 가 아 니 라 아 바 자 의 성 신 이 <sup>ナ</sup> 네 희  
속 에 셔 말 솜 헤 시 는 니 라 그 때에 형 데 가 형 데 를 죽 눈 터 잡 혀 가  
게 헤 며 아 비 가 조 식 을 또 그 러 채 헤 며 조 식 들이 부 모 를 쳐 셔 죽  
게 헤 리 라 <sup>ナ</sup> 네 희 가 내 일 흠 을 위 헤 예 모 든 사 룸 의 게 미 움 을 뱗 으  
되 나 종 서 지 견 터 는 자 는 구 원 흠 을 엇 울 거 시요 이 성 에 셔 네 희  
를 펫 박 헤 거 든 다 른 터로 다 러 나 라 내 실 노 <sup>ノ</sup> 네 희 캐 널 으 노 <sup>ノ</sup> 니 <sup>ノ</sup> 네  
희 가 이 석 렬 모 든 성 을 두 른 든 니 지 못 헤 예 셔 인 조 가 오 리 라 ○ <sup>ノ</sup> 데  
조 가 션 성 보 다 놓 지 못 헤 고 종 이 양 면 보 다 놓 지 못 헤 <sup>ノ</sup> 니 <sup>ノ</sup> 데 조  
가 션 성 고 종 이 양 면 <sup>ノ</sup> 흠 이 족 흔 지 라 집 쥬 인 드 려 도 벌 서 복  
이 라 널 <sup>ノ</sup> 른 거 던 그 집 사 룸 들을 날 콧 기 야 오 주 헤 리 오 그 런 죽

더 회를 두려워 하지 마라 감춘 거슬드려 내지 못하고 숨은 거슬  
알지 못함이 업느니라 내가 너희 채어 두온 터셔널은 거슬 광명  
흔터셔말호며 너희가 귀속으로 드론거슬집우해 퍼치리라 룸  
은 죽여도 령흔을 죽이지 못한 자를 두려워 하지 말고 몸과령  
흔올디옥에 멸호느이를 더욱 두려워 하라 쟁식 두마리 가훈푼  
에 풀니는 거시 아니냐 아바지 셋셔허락지 아니시면 흉나도 싸  
애 떠러지지 아니하고 너희 머리털 도다 해시느니 그련고로 두  
려 워호지마라 너희가 춤새여 러마리 보담 귀호니라 누구던지  
나를 늄의 채알게호면 내도 훈저를 하늘에 계신내아바지 셋알  
게 흘거시오나를 늄의 채모로 채호면 내도 훈저를 하늘에 계신  
내아바지 셋모로 채호리라 () 내가 셋상을 화평제호랴 왓다성  
각지마라 화평제호랴온거시 아니오 환도를 니르 키려 흄이니

아 돌이 아비와 불화 헤며 쫄이 어미와 불화 헤며 머느리가 식어  
미 와 불화 헤 야 四〇 제 집 안식 구 세 리 원 슈가 되리라 四一 아 바 지 와 어 마  
니 스 탐 헤 기를 날보 담더 헤 는 이 는 내 게 합당 치 안 코 아 돌과 쫄  
스 탐 헤 기를 날보 담더 헤 는 이 도 내 게 합당 치 안 코 四二 죽 십 조 가 를  
지 고 나 를 쪘지 안 는 이 도 내 게 합당 치 안 코 제 목 숨을 앗기 는 이  
는 장 초 일 헤 브 리고 나 를 위 헤 야 목 숨을 일 헤 브 리 는 이 는 장 초  
太 자 리 라 四三 () 너 회 를 영 접 헤 는 이 는 나 를 영 접 흠 이요 나 를 영  
접 헤 는 이 는 나 보 내 신 이 를 영 접 흠 이요 선지의 일 흠 으로 선지  
을 영 접 헤 는 이 는 선지의 상을 밧을 거 시요 의인의 일 흠 으로 의  
인을 영 접 헤 는 이 는 의인의 상을 밧을 거 시요 또 누구 던지 이 쇼  
즈 중에 호나 를 내 예조의 일 흠 으로 링 슈 혼 그릇 시라 도 주는 이  
는 내 실 노녀 회개 널 四四 노니 그 사 름 이 상을 일 헤 브 리 지 아니리

라 호 시 더 라

예 신 님 열 장

예수 1 열 두 예조의 계명 호심을 뜻 치시고 거

괴 셔 뼈 나샤 그 르 치 시 며 전 도 흐 시 랴 고 더 희 성에 가 시 더 라 ()  
그 때에 요한이 옥에 서 괴독에 힝 흐 심을 듯 고 그 예조를 보내여  
예 수 식 를 은 되 맛 당 이 올 이 가 그 터 낫 가 혹 우 리 가 다른 이 를 기  
드 리 잇 가 예 수 1 되 담 흐 샤 터 너희 가 가 셔 듯 고 본 거 스로 요 한  
의 채 고 흐 되 쇼 경 이 보 며 져 는 이 가 든 니 머 루 동 이 가 셔 췄 흐 며  
귀 먹 은 이 가 드 르 며 죽 은 이 가 다 시 살 며 가 난 혼 이 가 복 음 을 듯  
게 혼 다 흐 라 누 구 던 지 나 를 슬 혀 브 리 지 안 는 이 는 복 을 밟 으 리  
라 그 들 이 뼈 나 매 예 수 1 뭇 사 름 의 계 요 한 을 그 르 쳐 말 슴 흐 샤  
터 너희 가 무 엇 슬 보 랴 고 들에 나 갓 더 나 바 름에 웅 족 이 는 갈 뒤  
나 네 희 무 엇 슬 보 랴 고 나 갓 더 나 아 름 다 온 웃 님은 사 름 이 냐 아

름다온 웃슬님은 사룸은 대궐에 잇느니라.<sup>x</sup> 너희가 웨나갓더니  
션지를 보랴더니 내너희께 날으노니 이가 션지보 담나흐니라.<sup>y</sup>  
이사룸은 성경에 날넷시되 내가 내스쟈를 베암희보내노니 베  
길을 예비 훌쟈 1라 흐셨느니라.<sup>+1</sup> 실노내너희께 날으노니녀인  
의나운중에는 셰례주는요한보 담더큰이가 업스나련국에 셔지  
국 히적은이라도 더사룸보 담크니라.<sup>+2</sup> 셰례 주는요한의 날브터지  
금서지련국은 힘써셔 엇느니 힘쓰는이 는 엇느니라.<sup>+3</sup> 모든션지  
와 률법이요한서지미리말흐옛스니.<sup>+4</sup> 만일너희가 그거슬줄기  
밧을 진대 맛당이 오리라 혼이리아가 이사룸이니라.<sup>+5</sup> 귀잇는쟈  
여든드르라.<sup>+6</sup> 이 셰터를 무엇스로 비흘고 비유컨터아희가 져즈에  
안져더의동모를 불너굽으터.<sup>+7</sup> 우리가 피리를 부러도 너희가 춤  
츄지안코우리가 삶허 흐여도 너희가 우지아니 혼다홈파고흐

니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안 코 마시지도 아니 험매 더들이 말 험 되  
귀신들 넣다 험고 인 <sup>거</sup>는 와서 먹고 마시되 또 말 험 기를 먹 기를  
탐 험 고 술을 즐기는 사람 이 오세리와 죄인의 친구 <sup>1</sup>로 다 험 니  
다 만지 혜잇는 이 라야 올제 넉이 리라 () 예수 <sup>1</sup>여 러번 권능을  
베 프 신고 울이 회기 치아니 험 거늘 쑤지스 시되 가 랍범 아너희  
게 앙화잇고 비샤 대야 너희 게 앙화잇슬 진더 너희 게 험 혼권능  
을 췄라 와서 돈에 험 험 더면 더희 가 발셔 뵈 웃슬 님고 저에 안  
져 회기 험 옛시리라 내너희 게 널으 노니 심판 홀날에 췄라 와서  
돈의 형벌이 너희 보담 경홀거시오 가 빅 놓아 네가 련당에 올  
흘 듯 십 험 냐 디 옥에 뼈 러지리니 너희 게 셔 험 혼권능을 소다마  
에 서 험 험 옛더면 그 성이 이 날서 지잇슬지니라 내너희 게 널으  
노니 심판 홀날에 소다마의 형벌이 너희 보담 경홀리라 () 그 때

에 예수 1 골 5 샤 터 아바지여 하늘파짜에 쥬저시니 아바지 쪘  
서 모든일을 지혜있고 통달훈이의 계는 숨기시고 어린아회의  
계는 나 타 내심을 감사 흐웁느니 올 쇼이다 아바지 보시기에 이  
거 시합의 흐니 이다 모든 거슬 아바지 쪘 셔 내게 주셨시니 아바  
지 외에는 아돌을 아는 이가 업고 아돌파 아돌의 그 른 천이 외에  
는 아바지를 아는 아가업느니 라 괴롭고 무거온 짐 진사 룸들은  
내게로 오너 라 편안홈을 주리라. 나는 모움이 온유하고 겸손한  
나나의 명에 들메고 나를 비호면 너희령 혼이 편안홈을 맛나리  
니 대개 내명에는 쉽고 짐은 가비야 오니 라 흐 시더라

예 십이 장 사 밧날에 예수 1 곡식 밧흐로 지나 실식 예조들  
이 시장 흐여 이삭을 잘너 먹으니 법리서사 룸들이 보고 예수께  
굴 5 터 너희 예조가 사 밧날에 당치 못 혼일을 힝흐는 도다 흐거



눌 예 수 1 골 으 샤 터 대 위 와 흠 셔 가 던 사 름 들 이 시 장 홀 째 애 하  
느 님 의 덴 에 드 러 가 셔 쳐 려 논 떡 을 먹 엇 시 니 그 떡 은 대 위 도 먹  
지 못 ㅎ 고 흠 셔 간 사 름 들 도 먹 지 못 할 거 시 오 제 스 장 들 만 먹 는  
거 시 라 흠 을 낚 지 못 ㅎ 옛 시 며 룬 법 에 제 스 장 들 이 성 덴 안 희 셔  
안 식 일 을 범 ㅎ 여 도 무 죄 ㅎ 다 흠 을 낚 지 못 ㅎ 옛 느 나 내 너 희 계  
닐 으 노 니 성 덴 보 담 더 콘 이 가 여 괴 ㅎ 나 있느 니 라 나 는 불 상 이 넉  
이 는 거 슬 뜨 화 ㅎ 고 제 스 는 뜨 화 아 니 ㅎ 노 라 ㅎ 신 뜻 슬 너 희 가  
알 앗 더 면 죄 업 는 이 를 죄 잇 다 아 니 ㅎ 리 라 대 개 인 조 가 사 뱗 날  
예 쥬 1 니 라 ㅎ 시 더 라 () 거 괴 를 짜 나 회 당 에 드 러 가 시 니 ㅎ 편 손  
마 룬 이 가 잇 는 지 라 웃 사 름 이 예 수 떡 무 러 골 으 터 사 뱗 날 에 땅  
꼿 치 는 거 시 을 혼 잇 가 ㅎ 니 아 는 예 수 를 칙 잡 으 랴 흠 일 너 라 예  
수 1 골 으 샤 터 너 희 중 뉘 가 양 혼 마 리 가 안 식 일 에 구 덩 이 에 짜

지면 붓잡어 널으 키지 안켓느냐 사 름 아 양보 담얼마 가 더 귀 치  
아니 흐냐 그 럼 으로 사 뱗날에 션을 헌 흠이 합당 흐니 라 흐 시고  
그 사 름 드 려 널 너 골으 샤티 손을 펴라 흐 시니 그 손을 펴 매다른  
손과 고치나 으니 라 법리식사 름 이 나가 셔 엾더 케 예 수 죽이 기  
를 썬 흐더니 예 수 1 알으 시고 거괴를 써나 가시니 만흔사 름 이  
좆 거늘예수 1 병을 다 곳치고 경계 흐 샤티 내 소문을 내지 말나  
흐 시니 선지자 이서아의 말에 널 넛스 되내의 퇴훈종을 보라 배  
의 스랑 흐는 이오내무음에 민우깃버호노니 내 성신을 주어 심  
판 흥을 이방사 름의 게 알게 흠거시니 그 가다로 지도 아니 흐 며  
들 베지도 아니 흐야 아모사 름 도 길에 그 소리를 듯지못하고 상  
호 갈티도 썩지 안코 써지는 등 불도 쇠지 안코 심판 할제야니 괴게  
흘 거시오 또 이방사 름 이 그 일 흥을 브라리라 흠을 일우 엾더라

○ 그 때에 샤귀들 二三 눈멀고 병어리 된 자를 드리고 오거늘 예수  
1 곳 쳐 주시매 그 병어리가 말도 四하고 눈도 봄으니 허다 혼사 四로  
이 놀내여 글 五으 터이사 六로 이 대위의 七조손이 아니 八나 범리식사 九로  
들 이 듯고 굽으 터예 가귀왕별서복왕의 힘이 아니면 샤귀를 쫓  
차내지못 一호 二느 나라 三호 四거 五늘 六예 七수 八그 九듯술아시고 一굽으 二샤 三터 四나라  
마다더희세리 닷토면멸망흘거시오성이나집이나더희세리 닷  
토면서로셔지못 一호 二느 三나 四살 五단 六이 七살 八단 九을 쫓차내면이 一는 二더 三희 四세  
리 닷 一톰 二이 三니 四그 五러 六호 7야 8나 9라 10이 11엇 12더 13제 14셔 15겟 16느 17냐 18또 19내 20가 21별 22셔  
복 23으로 24샤 25귀 26를 27내 28여 29쫓 30치 31면 32너 33희 34조 35데 36들은 37누 38구 39로 40샤 41귀 42를 43쫓 44겟  
느 45냐 46그 47럼 48으로 49더 50희 51가 52너 53희 54를 55심 56판 57흘 58터 59이 60오 61내 62가 63하 64느 65님 66의 67성  
신 68으 69로 70샤 71귀 72를 73내 74여 75쫓 76치 77면 78하 79느 80님 81의 82성  
라 83가 84령 85힘 86센 87사 88름 89의 90집 91에 92드 93러 94가 95세 96간 97을 98록 99탈 100흐 101랴 102면 103몬 104져 105그 106힘

센사름을 결박지 안코야 엇더세 그 세간을 륙탈하겠느냐 나호고  
코치아니호는 이는나를 거역함이요나호고 거두지 안는이는  
흐름이니라 그려므로 내너희게닐으노니 모든죄와 쫌방호는  
사름은 샤호려니와 성신을 쫌방호는 사름은 샤호지못할거시  
요 또 누구던지 혼말노인조를 거역호면 용서호려니와 오직누구  
던지 말노성신을 거역호면이 세상파오는 세상에 도용셔 치못  
흐리라 나무가도 흐면 그 열미도도 코나무가도 치아니호면 그  
열미도도 치안느니 열미로 나무를 아느니라 〔四〕독사의 유여너희  
는 악호니 엇더제도 혼말을 호겟느냐 〔五〕온에 그득호거시나와  
입으로 말호는거시니 〔六〕선호이는 선호거슬싸흔데서 악호거슬내느니라 〔七〕내너희  
내고 악호이는 악호거슬싸흔데서 악호거슬내느니라 〔八〕내너희  
개념으 노니아모 망령된 말이던지 심판호는 날에 헐문호리니 〔九〕

너희 말 혼티로 올라 흐고 너희 말 혼티로 죄를 냉 흐리라 () 셔샤  
관파법리식사람들이 골으 터선성의 이상훈 표적을 보고 져 흐  
노라 흐거늘 예 수 1 터답 흐샤 터악 흐고 음란흔세상이 이상훈  
표적을 구 흐니 선지요 나의 표적 밧게는 뵈일거 시업시니요 나  
가사흘 낫과 사흘 밤을 고리비 속에 잇섯던 것코 치인 주도사흘  
낫과 사흘 밤을 땅 속에 잇스리라 심판흘제 니니 미사람들이 니  
러나 이세터사롭을 냉죄흘거 슨더들이 요 나의 전도 훔을 듯고  
회기 흠이 어니와요 나보 담더큰이 가여고 잇시며 심판흘제 남  
방녀왕이 니러나 이세상사롭을 냉죄흘거 슨져가 땅식혜셔와  
셔소라문의 지혜잇는 말을 드롭이 어니와 소라문보 담더큰이 가  
여고잇느니라 샤귀가사람의 채셔나가를 업는 땅으로 돔니다  
가쉬기를 구 흐되었지 못 흐매 이에 골으 터나가나온집으로 도

로 드러가리라 흐고 와서 집도 뷔고 쓸고 슈리 훔을 보고 도로 가  
서 더 보다 더 옥악 혼귀 신닐곱을 드리고 드러와 거기서 거하니  
그 사룸의 후환이 처음 보 담더 옥심 희리니 이 악 혼세상이 또 혼  
이러케 되리라 ○ 예수 1 여러사동의 게 말슴 희실째에 그 모친  
파동성들이 밧괴서서 예수 씨 말 희라고 쟈지니 혼사룸이 예수  
세고 흑터 그 터의 모친파동성들이 밧괴서서 그 터의 게 말 희 래  
고 찾는다 흐니 터 답 흐샤 터 뉘가내의 모친이며 동성이 나 흐시  
고 손을 펴샤 데즈들을 그르쳐 굽으샤 터 나의 모친파동성들을  
보라 누구던지 하늘에 계신 내의 아바니 뜻 터로 흐는 이 가내의  
동성이요 모친이니라 흐시더라

### 데십삼장

그 날에 예수 1 집에서 나가 샤바다가에 안지  
시매 허다 혼사룸들이 와서 모히 거늘 예수 1 빙에 드러가 안지

시니 모든사람이 언덕에 셋는지라 예수 1 여러가지비유로 말  
슴 흐여 굽으샤 터씨를 뿌리는 이가 뿌리려나 가셔 뿌릴서 길가  
에 떠러진 씨는식가와서 주어먹고 흙이 적은돌자 밟헤 떠러진  
씨는흙이 깁지아님으로 속히 움이나오나 히가 씩이면 썰회가  
박히지못하야 마르고 가식덤불속에 떠러진 씨는가식가자르  
매 숨이 막히고 허흔땅에 떠러진 씨는결실 흠이 혹 빅비도 되고  
죽십비도 되고 삼십비도 되느니 귀잇는이는드르라 허신태()  
예조들이나 아와 굽으 터웨 그사람들의게비유로 말슴 흙시느  
니잇가 예수 1 터답하샤 터하늘나라의오묘훈거슬너희드려  
알게 흠이오더희의게는주지안느니 누구던지잇는이의게는  
더주어넉넉하게하고업는이의게는잇는것서지라도제았느  
니라 그려므로내가비유로말하기는더들이보아도보지못하

며 드러도 듯지 못한 며 써 닷지 못 흠이니라.<sup>+</sup> 이 시아의 예언이 더희  
개 응호 옛 시니 날 넛스 되너희 가듯 기는 드러도 써 닷지 못한 며  
보기 눈보아도 아지 못한 눈거손<sup>+五</sup> 이 빅 성들의 모임이 완악해야  
귀를 막고 눈을 감아 혹 눈으로 보고 귀로 듯고 모임으로 써 닷고  
회지<sup>+</sup> 헤내가 곳쳐 줄 가득 려워 흠이라<sup>+</sup> 흔스 되너희 눈이 복  
잇슴은 봄이요 귀가복이 잇슴은 드름이라<sup>+</sup> 내실노너희<sup>+</sup> 개닐<sup>+</sup>  
노니여러 선지자와 올 흘사<sup>+</sup> 름들이 너희 보는 것들을 보고 져<sup>+</sup>  
여도보지 못한<sup>+</sup> 옛고 너희 듯 눈것들을 듯고 져<sup>+</sup> 여도 듯지 못한  
옛느니라<sup>+</sup> 그<sup>+</sup> 런즉씨<sup>+</sup> 뿌리는 비유를 드르라<sup>+</sup> 아모나<sup>+</sup> 련국<sup>+</sup> 말을 듯  
고 씨<sup>+</sup> 닷지 못한<sup>+</sup> 매악<sup>+</sup> 혼자와 서모<sup>+</sup> 암속에<sup>+</sup> 뿌린<sup>+</sup> 거슬<sup>+</sup> 쁨아<sup>+</sup> 가느니  
이거시길가에<sup>+</sup> 뿌린<sup>+</sup> 거시오<sup>+</sup> 돌자발<sup>+</sup> 헤뿌린<sup>+</sup> 혼거손<sup>+</sup> 사<sup>+</sup> 름이 듯  
를 듯고<sup>+</sup> 즉시<sup>+</sup> 깃거워<sup>+</sup> 나 속에<sup>+</sup> 썰<sup>+</sup> 회가 업서<sup>+</sup> 잠시<sup>+</sup> 견되다<sup>+</sup> 가도<sup>+</sup> 의

연 고로 환 난 이나 펫 박 을 당 훈 즉 곳 실 혀 브 린다 흄 이요 <sup>二三</sup> 가 식 가  
온 터 쭈 린다 훈 거 손 사 름 이 도 를 드 르 매 세 상 의 념 려 와 저 리 의  
욕 심 이 도 를 막 아 결 실 치 못 <sup>二四</sup> 헤 훈 다 흄 이요 <sup>二五</sup> 휴 쌍 에 쭈 린다  
훈 거 손 사 름 이 도 를 듯 고 셔 다 라 실 노 결 실 흄 이 <sup>二六</sup> 헤 빅 비 도 되 고  
륙 십 비 도 되 고 삼 십 비 도 된 다 흄 이 <sup>二七</sup> 니 라 헤 시 더 라 ○ 예 수 1 그  
들 암 희 쯧 비 유로 말 슴 헤 샤 터 련 국 은 사 름 이 <sup>二八</sup> 료 흄 쌔 를 제 밧 희  
썩 림 과 <sup>二九</sup> 헤 니 <sup>二九</sup> 사 름 들 이 잘 째 에 원 슈 가 와 셔 곡 식 가 온 터에 가  
라 지 를 쯧 쭈 리 표 갓 더 니 <sup>三〇</sup> 님 헤 나 오 고 열 미 가 열 널 때에 가라지  
도 뵈 이 거 <sup>三一</sup> 늘 종 들 이 와 셔 말 헤 터 쥬 인 님 턱 밧 희 <sup>三二</sup> 료 흄 쌔 를 심 으  
지 아 니 헤 옛 는 니 잊 가 어 터 셔 가라지 가 삼 겟 는 잊 가 <sup>三三</sup> 쥬 인 이 굽  
으 터 원 슈 가 그 리 훈 거 시로 다 종 들 이 말 헤 터 그 련 즉 우 리 가 가  
서 쁨 으 리 잊 가 <sup>三四</sup> 쥬 인 이 굽 오 터 그 만 두 어 라 가라지 를 쁨 을 래 면

곡식서지 쁨힐싸 호노니 <sup>타</sup><sub>타</sub> 츄슈호 기서지 흄세자르에 호 옛다  
가 그째에 내가 뷔는 이의 게 말호기를 가라지는 몬저거 두어 단  
으로 묵거 불살으고 곡식은 거두어 곡간에 너으라 호리라 () 그  
들 암희또비유로 말슴호샤티런국은사름이계조씨호알을제  
밧희심음과코호니 그거슨모든씨중에데일쟈은거시로되자  
룬후에는나를중에데일커셔나무가되매날나가는석들이와  
셔그가지에깃드리느니라 ○ 예수 | 또비유로말슴호샤티런  
국은녀인이누룩썩술을가루서말속에너허술이다번지게홍  
파코호니라 () 이거슨다예수색셔여러사름의게비유로말슴  
호심이요비유가아니면말슴을아니호셨스니 <sup>션</sup><sub>션</sub>지쟈가말슴  
호였스되내가입을열어비유호야제양창조홈으로브터감초  
인거슬드러내리라 흄을응홈일너라 () 째에예수 | 모든사름

을 떠나 사집에 드러가시니 데노들이 와서 글으덕 밧희가라지  
로 비유하심을 그르쳐 주옵쇼셔 예수 1글으샤되 묵흔씨를 뿐  
리는 이는 인조요 밧슨세계요 묵흔씨는 나라조식이요 가라지  
는 악혼자의 조식이요 가라지를 심은 원슈는 마귀요 츄슈홀째  
는 세양꽃치요 뷔는 자들은 련스들이니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살우드시 세양꽃에도 이려케 되리니 인조가 련스들을 보내여  
그 나라에 서늘을 범죄케 훈이 들파 악혼일훈이 들을 거두어 내  
여 불웅덩이에 던져 너희리니 거괴셔울며니를 갈거시오 그때  
에 올흔이 들은 아바니나라에 서히와 굽치빗치리니 괴잇거든  
드르라(四三) 하늘나라는 보화가 밧회뭇쳤스매사름이 맛나보면  
숨기고 깃버흐여도 라가셔제잇는거슬다 푸라그 밧슬삼파고  
흐니라(四五) 또 하늘나라는 장소는 사름이 묵흔진쥬를 구호다

가극히 갑진진 쥬호나를 맛나보면 가셔제 있는 거슬다 푸라 삼파  
코호니라 ○ 또 런국은 그물을 바다에 치고 모든 물고기를 잡을  
시 그물에 그득 호매언덕으로 쇠으러내고 안져셔도 혼거손 그  
듯 셰 담고 도치 아니 혼거손내여 브림코호니 셰상 췄해도 이와  
코치련스가 와서 올흔이 중에 서 악호아를 갈나내여 불웅덩이  
에 던져너흐리니 거괴서울며니를 갈나라 ○ 너희자이 모든 거  
슬서다렛느냐되답호되서다렛느이다 예수 1. 금 9. 샤티그런  
고로서샤판이 하늘나라의 데노된이마다집쥬인이 그 보화에  
서새것과 헌거슬내여 옴과코호니라 ○ 예수 1. 모든 비유를  
치시고 그곳슬펴나도 고향으로 드러가 사회당에 서그르치시  
니사람들이 이이상히 넉여금으니 이사람의 지혜와 능훈일을 어  
터셔었어느뇨이 눈목슈의 아돌이 아니며 그모친은 마리아라

흐는이가아니며그동성들은아각파<sup>五</sup>와서문파<sup>六</sup>유대가아  
니며<sup>五</sup>도그누의들은우리와니웃시아니냐그런즉이사<sup>七</sup>름의게  
이모든거시어되셔낫느뇨<sup>五</sup>고<sup>七</sup>슬혀브리거늘예수<sup>一</sup>글으샤  
티선지쟈가제곳과제집외에는존경함을밧지아님이업느니  
라<sup>五</sup>하시고<sup>七</sup>거괴셔여러가지능<sup>五</sup>흔일을<sup>七</sup>힝치아니심은그들이잇  
지아님일너라

**예심소장** 그째에분봉<sup>二</sup>훈님<sup>三</sup>금희<sup>四</sup>률이예수의소문을듯  
고그신하<sup>二</sup>드려널<sup>一</sup>이<sup>二</sup>는<sup>三</sup>례주<sup>四</sup>던<sup>五</sup>요<sup>六</sup>한<sup>七</sup>이죽<sup>八</sup>업<sup>九</sup>에<sup>十</sup>셔<sup>十一</sup>다<sup>十二</sup>시<sup>十三</sup>살  
어나이련권능을<sup>一</sup>횡<sup>二</sup>疚<sup>三</sup>이<sup>四</sup>로<sup>五</sup>다<sup>六</sup>하<sup>7</sup>니<sup>8</sup>대<sup>9</sup>개<sup>10</sup>희<sup>11</sup>률이<sup>12</sup>그<sup>13</sup>동<sup>14</sup>성<sup>15</sup>비<sup>16</sup>력<sup>17</sup>의<sup>18</sup>안  
희<sup>19</sup>희<sup>20</sup>라<sup>21</sup>지<sup>22</sup>일<sup>23</sup>노<sup>24</sup>요<sup>25</sup>한<sup>26</sup>을<sup>27</sup>잡<sup>28</sup>아<sup>29</sup>목<sup>30</sup>거<sup>31</sup>셔<sup>32</sup>옥<sup>33</sup>에<sup>34</sup>가<sup>35</sup>두<sup>36</sup>기<sup>37</sup>는<sup>38</sup>요<sup>39</sup>한<sup>40</sup>이<sup>41</sup>희<sup>42</sup>률이<sup>43</sup>죽  
의<sup>44</sup>게<sup>45</sup>말<sup>46</sup>흐<sup>47</sup>되<sup>48</sup>그<sup>49</sup>녀<sup>50</sup>인<sup>51</sup>을<sup>52</sup>취<sup>53</sup>흐<sup>54</sup>는<sup>55</sup>거<sup>56</sup>시<sup>57</sup>올<sup>58</sup>치<sup>59</sup>안<sup>60</sup>타<sup>61</sup>훔<sup>62</sup>이<sup>63</sup>라<sup>64</sup>희<sup>65</sup>률이<sup>66</sup>죽  
이라<sup>67</sup>흐<sup>68</sup>되<sup>69</sup>뭇<sup>70</sup>사<sup>71</sup>룸<sup>72</sup>을<sup>73</sup>무<sup>74</sup>서<sup>75</sup>워<sup>76</sup>흐<sup>77</sup>기<sup>78</sup>는<sup>79</sup>다<sup>80</sup>요<sup>81</sup>한<sup>82</sup>을<sup>83</sup>선<sup>84</sup>지<sup>85</sup>로<sup>86</sup>넉<sup>87</sup>임<sup>88</sup>일<sup>89</sup>너

니 못 촘 희률의 성일이 도<sup>6</sup>라 오 매 희라 자의 뜰이 암 희 셔 춤을 츄  
어 희률을 깃 부케 흥 는지라<sup>7</sup> 맹 셰로 허락 희 되네 가무<sup>8</sup> 엇 슬 달 나  
흐 던 지 주<sup>9</sup> 겟다 희 거 늘 그 계집 이 제 어 미 의 식 임을 듯고 곧으 터  
셰례 주는 요한 의 머리를 쇼반에 담아 주 쇼 희니 왕이 근심 희  
나제의 맹 셰와 여 러 사 름이 잔처에 흠 셰 안 젓던 연교를 인<sup>10</sup> 야  
주<sup>11</sup> 넷 노 라<sup>12</sup> 희고 사 름을 보내 여 요한 울 옥에 서 목 베 혀<sup>13</sup> 그 머리를  
쇼 반에 담에 다가 주니 그 계집 이 제 어 미<sup>14</sup> 게 가져 가니라 그 데<sup>15</sup> 저  
들 이 와 셔 시례를 거 두어 장스 희고 가 셔 예 수 셰 교<sup>16</sup> 희니 ○ 예 수  
1 드 르 시 교<sup>17</sup> 비를 드고 떠나 샤 홀 노<sup>18</sup> 들에 가시니 사 름 들이 듯고  
성에 셔 브 터 거 러 셔 콧 거 늘<sup>19</sup> 예 수 1 나 아 가 허 다 흐 사 름을 보시  
고 불<sup>20</sup> 상 히<sup>21</sup> 낙 이 샤 그 중에 병잇는 이를 곳 쳐 주시 더니 저녁이 되  
매 데<sup>22</sup> 저 들이 나 아 와 굽으 터 이 곳은 들이 요 배 도 저 물 엇 시니 모

든 사 름 을 보 내 여 마 을 애 드 러 가 음 식 을 사 먹 게 흐 쇼 셔 예 수 ।  
글 으 샤 터 갈 것 업 다 너 희 가 먹 을 거 슬 주 어 라 예 <sup>十七</sup> 토 들 이 터 답 흐  
터 여 괴 썩 다 숯 개 와 성 선 두 마 리 만 잇 는 이다 예 수 । 글 으 샤 터  
내 계 로 가 져 오 라 흐 시 고 허 <sup>十九</sup> 다 혼 사 름 들 을 명 흐 여 풀 에 안 치 시  
고 썩 다 숯 개 와 성 선 두 마 리 를 가지 고 하늘 을 우 러 러 축 슈 흐 고  
썩 을 떼 여 데 <sup>二十</sup> 즈 를 주 시 매 데 <sup>二十一</sup> 즈 들 이 허 <sup>二十二</sup> 다 혼 사 름 의 계 주 어 <sup>二十三</sup> 다 비 불  
니 먹 고 부 셔 진 가 루 를 주 은 거 시 열 두 광 주 리에 <sup>二十四</sup> 쫓 고 먹 은 사 름  
은 녀 인 과 어 린 으 희 외에 오 천 명 쫸 되 <sup>二十五</sup> 더 라 예 수 । 허 <sup>二十六</sup> 다 혼 사 름  
을 보 내 라 고 즉 시 데 <sup>二十七</sup> 즈 들 을 저 촉 흐 샤 비 <sup>二十八</sup> 듣 고 암 서 건 너 편 으로  
가 게 <sup>二十九</sup> 흐 시 고 허 <sup>三十</sup> 다 혼 사 름 을 보 낸 후에 예 수 । 홀 노 산에 올 나 가  
괴 도 <sup>三十一</sup> 흐 시 고 져 녀 이 되 매 거 괴 셔 혼 자 계 시 더니 <sup>三十二</sup> 비 가 바 다 가 온  
터 잇 세 물 결에 요 동 흉은 바 름 이 거 실 님 이 <sup>三十三</sup> 랍 스 경에 예 수 ।

물 우 흐로 거러서 데 조의 채오시니 예 조들이 예수가 물 우 흐로  
거러 오심을 보고 무서워 흐야 굽으 터요 물이라 흐며 놀나 소리  
지르 거늘 예수 1 즉시 날으 샤 터 내니 두려워 말고 안심 흐라 피득  
이 터 답 흐 터 주여 만일 주시여 든나도 물 우 흐로 주세가 캐 흐 쇼  
셔 굽으 샤 터 오라 흐 시니 피득이 비에서 느려 예수 째 가랴고 물  
우 흐로 거러가다가 바름이니 러남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 매불네  
굽으 터 주여 나를 구원 흐 쇼셔 흐니 예수 1 즉시 붓잡으시며 굽으  
샤 터 적게 맣는자 야웨의 심 흐 엿느나 흐 시고 비에 올으시매 바  
롭이 굿차는지 라비에 잊던 이들이 예수 써결 흐며 굽으 터 친실  
노하는 님의 아들이 니다 흐더라 () 바다를 건너 혁니 살록짜으  
로 가니 그 곳사람들이 예수 신줄을 알고 소방에 고별 흐여 병든  
이들을 예수 써드려와 셔더희가 다만 예수의 웃갓시라 도문지

기 를 고 구 흐 니 문 지 눈 이 눈 다 낫 더 라

데 십 오 장

째 에 법 리 시 사 름 과 셔 샤 판 들 이 야 로 살 링 으  
로 브 터 예 수 셰 나 아 와 굴 으 터 너 희 데 조 들 이 엇 지 먹 을 째 에 손  
을 셋 지 아 니 흐 야 장 로 의 유 전 흠 을 범 흐 는 냐 흐 거 늘 터 답 흐 여  
굴 으 샤 터 에 엇 지 너 의 유 전 으로 써 하 는 님 의 계 명 을 범 흐 는 냐 하  
느 님 셰 셔 굴 으 샤 터 네 아 바 니 와 네 어 마 니 를 존 경 흐 라 흐 시 고  
또 굴 으 샤 터 아 바 니 나 어 마 니 를 췌 방 흐 는 자 는 죽 인 다 흐 셋 거  
눌 오 직 너 희 눈 굴 으 터 누 구 던 지 저 의 아 바 니 나 저 의 어 마 니 의  
게 말 흐 되 부 모 님 셰 드 리 랗 던 거 슬 하 는 님 셰 드 렛 습 나 이 다 흐  
즉 고 에 아 바 니 를 존 경 치 아 니 흐 야 도 관 계 치 안 타 흐 니 이 는 너  
희 가 너 희 유 전 으로 하 는 님 의 계 명 을 폐 흠 이 니 라 거 쪽 착 흐 텤  
흐 는 자 들 아 이 서 아 가 너 희 를 미 리 말 흐 거 시 을 토 다 닐 으 터 이

빅성들이 데희입살노는나를 존경하되 오직 데희모임은 내께서  
멀다하고 <sup>九</sup>다만나를 헛되어 이승비 흄은사람의식인거스로도를  
삼아고르침이라 <sup>+</sup>예수—무리를 불네닐으샤티듯고써다르라  
임에드러가는거슨사람을더럽게호지못하되암에서나오는  
이거시사람을더럽게호느니라 <sup>+</sup>이예예조들이나아와굽으티  
법리식사람들이이이말숨울드를떼에슬희여홍을알으시는니  
잇가예수—터답하여굽으샤터나무마다내하늘아바지써서  
심으시지아닌거슨뽑힐거시니 <sup>十四</sup>그만두어라 데희들은 쇼경으  
로인도하는자—니만일쇼경이 쇼경을인도하 면들이다구덩  
이에짜져드러가리라 <sup>十五</sup>피득이터답하야굽으터이비유를우리  
개구르쳐주옵쇼서 <sup>十六</sup>예수—굽으샤터너희들이아직도써답지  
못하느냐 <sup>十七</sup>무여시던지임으로드러가는거시비로드러가셔뒤

로 내 여 브 리 는 줄 을 아 지 못 흐 느 나 입 에 서 나 오 는 거 손 모 움 에  
셔 나 아 와 사 름 을 더 럽 히 느 니 대 개 모 움 에 서 나 오 는 거 손 악 흐  
싱 각 파 살 인 흠 과 통 간 흠 과 음 란 흠 과 도 적 질 흠 과 거 죽 증 거 흠  
파 육 흠 이 니 이 런 것 들 이 다 사 름 을 더 럽 히 는 거 시 오 오 직 손 을  
씻 지 안 코 먹 는 거 손 사 름 을 더 럽 히 지 못 흐 느 니 바 ( ) 또 예 수 1 거  
괴 셔 나 가 샤 츄 라 와 셔 돈 디 경 에 드 러 가 시 니 혼 가 남녀 인 이 그 디  
경 으 로 나 와 셔 소 름 질 너 굴 으 터 쥬 대 위 의 후 예 역 나 를 불 상 이  
넉 이 쇼 셔 제 쫄 이 혼 마 귀 로 심 히 고 싱 흐느 이 다 예 수 1 혼 말 숨  
도 뒤 담 지 아 니 혼 시 니 데 조 들 이 와 셔 청 흐 야 말 흐 되 그녀 인 이  
우 리 뒤에 셔 소 름 를 지르 오니 보내 쇼 셔 예 수 1 터 담 흐 샤 터 나  
들 다 른 데 보내 신 거 시 아 니 라 이 석 렬 집 에 널 허 브 린 양 의 계 보  
내 심 이 니 라 혼 신 터 녀 인 이 와 셔 예 수 셔 절 흐 야 굴 으 터 쥬 여 저

를 도으 쇼서 허거 늘터 담호 약급으 샤터 익들의 떡을 쬐히야  
개들의 게 던짐이 올 치 안타 허시니 녀인이 굽으 터 쥬여 을 소이  
다마는 개들도 저의 쥬인의 상에서 뼈려 진부스럭이를 먹는니  
다 그 제야 예수 1 터 담호 여글으 샤터 녀인 아내 및 음이 크니 베  
원 터로 되리라 허시니 그 때 브터 그의 뜰이 나으니라 () 예수 1  
또 거고 셔찌나 샤가 리리 바다갓 가이니 르러 산에 올나가 안지 시  
니 허다 호무리들이 예수 셔찌나 아울서 저는 자와 쇼경과 벙어라  
와 양호자와 또 다른 병잇는이 들을 드리고 와서 예수의 발아리  
두매 예수 1 곳치시니 무리가 벙어리 말호 고양호자 1 늦고 져  
는 자 1 돈니 고 쇼경이 보는 거슬보매 거고 히녀이고 또 영화를  
이 석렬하느 님의 게 돌녀보니 더라 () 예수 1 대조를 불녀 굽으  
샤터 내 웃사롬을 민망이 낙이 노니 대회가 사흘을 날파 훔찌 허

되 먹은 거시 업시니 길에 서 큰비 훌가 흐야 굽거 보내지 못할겠

노 라 데 조들이 굴으 터 들에 서 우리 가 엊더 케썩을 만히 엊어여  
러 사 름을 넉넉이 먹이리 있가 예수 1 굴으 샤 터너 회 케썩이 멀

덩이나잇느냐 터남흐여 굴으 터 일곱파적온성선두 어시잇느  
이다예수 1 웃사통을 명흐 샤 땅우에 안개흐 시고 케썩일곱덩이

와 그 성선을 가지샤 죽슈흐 시고 떼여 데 조의 게주시니 예조들  
이 무리의 게주어 다비불니 먹고 늄은 부스력이 들주온 거시일  
곱광쥬리에 죠고 먹은 이가 너인파 0 히외에 스천사통일네라  
예수 1 무리를 흑흐 시고 빙에 올으 샤 말대 랍디 경에 나르시니

라

### 데십륙장

법리식와 사득기 사 름 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  
해 되하늘 노셔나 타나는 표적보이기 를 청하니 예수 1 터답하

샤티너희가 져녁때에 하늘이 빛으면 날이 지겠다 했고 아침때  
에 하늘이 끓고 흐리면 오늘 날이 궂겠다 했느니 너희가 런데는  
엇더 혼지분별 했으면 서예의 징조는 분별치 못하는 도다 악하고  
음란한 세상상이 징조를 보고 져 했나요 나의 징조 빛과는 뵈일거  
시업느니라 헌고 그들을 떠나가시다 () 예 조들이 건너편에 갈  
적에 썩 가져 가기를니 젆더니 <sup>六</sup>예 수 1 님 으 샤티 법리식와 살  
로 히의 누룩을 삼가라 했시니 예 조들이 스스로 이의론 했여. 굽  
으 터썩을 가져 오지 아님으로 다 했거늘 <sup>八</sup>예 수 1 알으시고 굽으  
샤티 적개잇는 자들아 엇지썩을 가져 오지 아님으로 의론 했느  
냐 너희가 아직도 셰 닷지 못하는 구나썩다 솟개로 오천사روم을  
주고 늄어지를 멋광쥬리나 주었시며 썩 날곱개로 소천인을 주  
고 늄어지를 멋바금이나 주은 거슬리 억지 못 했느냐 엇지내 말

흔 거시썩을 위 훔이 아닌 줄을 써 닷지 못 흐느냐 오직 법리식 와  
살 토 히의 누룩을 삼가 흐라 훔이니라 그 제야예조들이 누룩이  
아 나오 법리식 와 살 토 히의 교를 삼가 라고 말슴 흐신 줄을 써 닷  
더 라 ○ 예수 <sup>1</sup> 히 살리아 비립비디 경에 <sup>2</sup> 니르러 예조들의 게무  
르샤 터님들 이 인조를 누구라고 흐더나 <sup>3</sup> 터답 흐되 엇건이 는 세  
례 주던 요한 이라 흐고 엇던이 눈이 리아라 흐고 또 다른이 눈 야  
리 미나 션지 중에 흐나 이라 흐더이다 <sup>4</sup> 굽으 샤 터 너희 눈나를 누  
구 라 흐느냐 <sup>5</sup> 셔문피득이 터답 흐되 쥬는 괴독이요 영성 흐는 하  
느 님의 아돌이 시니다 <sup>6</sup> 골으 샤 터 셔문파요 나네가 복이 잊시리  
니 육신이 이거슬네게 알게 흐거시 아니오 <sup>7</sup> 하늘에 계신 내 아바  
지 쪘서 알게 흐심이니라 <sup>8</sup> 또 네게 널으 노니 너는 피득이 락내가  
이반석 <sup>9</sup> 우에 내 교회를 쟤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 괴지 못 흐리

라 내가 하늘 나라 열쇠를 주리니 네가 따어서 무엇 시던지 미면  
하늘에서 도미 힐거시오 네가 따어서 무엇 시던지 풀면 하늘에  
서도 풀닐지 나라 호시고 예조들 의계 경계호 샤내가 괴독이라  
고 사롭의 계닐으지 말나 호시더라.<sup>(二四)</sup> 그째로 브터 예수 1 예조들  
의 계야로 살팅에 가서 장로와 제스 장과 셔사판들의 계해를 만히  
밧고 죽었다가 삼일만에 다시 살으심을 비로소 말슴호시니 피득  
이 예수를 잡고 간호야 글으되 쥬여 이련일을 멀니 호쇼셔 이거시  
쥬의 계 및 치지 아니 홀지니 이다.<sup>(二五)</sup> 예수 1 몸을 도로 키시며 피  
득드려 날으샤 터살단아 물너가 라네가 날를 거치게 호니 대개  
네가 하느님의 뜻 슬성각지 아니 호교사롭의 뜻 만성각호 눈도  
다 호시고 그째에 예수 1 예조들의 계닐으샤 터아모던지 날를  
드라오랴면 정육을 이고 고십조가를 지고 나를 쪘치라.<sup>(二五)</sup> 누구던

지제의목숨을구원코져 헌일흘거시오나를위호야제목숨  
을일흐면초질거시니사람이만일온련하리를엇고도제목숨  
을일흐면무어시유익흐며무엇슬주고목숨을밧구겟느나인  
조가아바니의영광으로그런스들파흔가지로오겟시니그째  
에사릉마다저의횡훈터로갑흐리라내실노너희께닐으노니  
여괴셨는이중에인조가그나라에림하는거슬죽기전에불이  
가잇느니라

예 십 칠 장 옛 서 후에 예 수 1 피 득 과 아 각 과 아 각 의 동 성 요  
한 을 드 리 시 고 종 용 이 놈 혼 산 에 올 나 가 샤 더 들 암 희 셔 형 양 을 변  
화 해 샤 그 얼 골 이 히 죠 치 빗 나 며 웃 시 희 어 광 치 가 나 더 라 때 예 마  
서 와 이 리 아 1 더 무 리 들 의 계 나 타 나 예 수 로 더 브 러 말 슴 허 거  
늘 피 득 이 예 수 셔 고 허 여 금 으 터 주 여 우 리 가 여 거 잇 는 거 시 도

스 오니 쥬 । 만 일 원 흐 시 면 우 리 가 여 괴 셔 장 막 셋 슬 지 어 흐 나  
는 쥬 를 위 흐 고 흐 나 는 마 셔 를 위 흐 고 흐 나 는 이 리 아 를 위 흐 리  
다 말 흘 때 에 흘 연 이 빛 난 구 름 이 가 리 오 며 또 소 름 가 구 름 속에  
서 나 와 굴 으 되 이 는 내 의 스 랑 흐 는 아 들 이 오 나 를 깃 부 계 흐 는  
쟈 । 니 너 회 는 대 를 드 를 지 어 다 흐 거 늘 데 조 들 이 듯 고 심 히 두  
려 워 업 드 러 지 니 예 수 । 나 아 와 대 들 을 만 지 시 며 굴 으 샤 터 두  
려 워 말 고 니 러 나 라 흐 시 니 데 조 들 이 눈 을 들 고 보 니 혼 사 름 도  
보 지 못 흐 고 오 직 예 수 뿐 이 실 너 라 ① 산 에 셔 나 려 오 실 때에 예  
수 । 명 흐 야 굴 으 샤 터 인 조 가 죽 어 셔 다 시 살 기 전 에 는 본 처 슬  
사 름 의 게 널 으 지 마 라 흐 시 니 데 조 들 이 뭇 조 와 굴 으 터 스 조 가  
엇 지 이 리 아 । 몬 져 온 다 말 흐 엣 는 낫 가 예 수 । 터 답 흐 여 굴 으  
샤 터 이 리 아 । 파 연 몬 져 와 셔 모 든 일 을 회 복 흐 리 라 ② 오 직 내 배

개 말 흐 노니 이리 아 가임의 와스 되며 사 름 들이 아 지 못 흐 고 임  
의로 되 접 흐 옛 시 니 인 조도 뜨 흔 이 와 콧 치 해 를 밗으 리라 흐 시  
니 그 저 야 데 조들 이 예 수 1 말 슴 흐 신 거 시 세 례 준 요 한 인 줄 을  
써 닻 더 라 ○ 무 리 의 개 니 른 시 매 흔 사 름 이 예 수 씨 와 쑤 러 업 터  
여 굴 으 터 쥬 여 내 아 들을 불 양 이 넉 이 쇼 셔 대 개 그 간 질 노 심 히  
고 성 흐 여 여 러 번 불에 도 너 머 지며 물에 도 드 러 가 니 내 가 쥬 의  
데 조들 의 개 드 리고 왓 스 오 되 곳 치 지 못 흐 더 이 다 예 수 1 터 담  
흐 샤 터 멋 지 안 코 피 역 흔 세 양 이 여 내 가 얼 마 나 너 희 와 콧 치 잊  
스 머 얼 마 나 너 희 를 춤 으 리 오 내 개 드 려 오 라 흐 시 고 예 수 1 쑤  
지 지 시 니 귀 신 이 나 가고 으 희 가 그 째 브 터 나 흔 지 라 데 조들 이  
예 수 씨 종 용 이 나 아 와 굴 으 터 우 리 는 엊 지 이 귀 신 을 쫓 지 못 흐  
엿 는 니 잊 가 예 수 1 굴 으 샤 터 너 희 멋 음 이 적 은 연 고 니 라 내 실

노 너희게 널 으 노니 너희 가 만일 멎 음 이 혼 계 조 써 만 치 잊 스 면  
이 산 드 려 명 흐 되 여 괴 셔 더 괴 로 옴 기 라 흐 여 도 옴 길 거 시 오 또  
너 희 가 못 홀 거 시 업 스 리 라 그 러 나 괴 도 흐 며 저 계 흐 여 야 이 런  
거 시 나 가 는 내 라 흐 시 더 라 ( ) 가 리 리 에 머 물 때 에 예 수 । 데 조  
드 려 널 너 굴 으 샤 터 인 조 를 장 초 사 둠 의 손 에 내 여 주 어 더 들 이  
죽 이 매 삼 일 만 에 다 시 살 이 리 라 흐 시 니 데 조 들 이 심 히 근 심 흐  
더 라 가 빅 농 에 니 르 니 성 던 세 밧 눈 자 । 가 피 득 의 계 나 아 와 굴  
으 터 네 스 승 이 성 던 세 를 내 지 안 누 나 굴 으 터 내 신 다 흐 고 피 득  
이 집 에 드 러 가 니 예 수 । 몬 저 무 르 샤 터 셔 문 아 네 성 각 은 엇 더  
흐 뉤 세 상 님 금 들 이 뉤 계 관 세 와 명 세 를 밧 누 나 조 괴 아 둠 의 계  
나 흑 외 인 의 계 나 피 득 이 굴 으 터 외 인 의 계 니 다 예 수 । 굴 으 샤  
터 그 러 흑 면 아 둠 은 세 를 면 흑 리 라 다 만 우 리 를 스 려 홀 가 넘 려

흐 노 니 네 가 바다 에 가 셔 낙 시 를 던 져 몬 저 오 르 는 고 기 입 을 열  
면 돈 일 원 을 엊 을 거 시 니 가 져 다 나 와 너 희 를 위 흐 야 주 라 흐 시  
더 라

예 서 삽 팔 장 그 때에 예 조 들 이 예 수 셋 나 아 와 굴 으 터 하 늘 나  
라 에 서 는 뉘 가 예 일 놓 흐 니 잇 가 예 수 一 혼 어 린 으 희 를 불 너 가  
온 터 에 세 우 시 고 굴 으 샤 터 내 실 노 너 희 게 닐 으 노 니 너 희 가 변  
화 흐 여 어 린 으 희 들 파 꾃 지 아 니 흐 면 하 늘 나 라 에 드 러 가 지 못  
흐 느 니 라 그 런 고로 이 어 린 으 희 와 꾃 치 스 스로 겸 손 흐 눈 자 는  
하 늘 나 라 에 서 예 일 놓 흐 니 라 또 누 구 던 지 내 일 흠 으로 이 런 어  
린 으 희 흐 나 라 도 영 접 흐 면 곳 나 를 영 접 흠 이 니 나 및 는 쇼 조 들  
흐 나 라 도 범 죄 케 흐 는 자 는 찰 흐 리 쁘 미 돌 을 목 에 들 고 김 혼 바  
다 에 짜 지 는 거 시 나 흐 리 라 사 른 을 범 죄 케 흠 으로 이 제 상 이 앙

화를 밟으리니 사תום을 범죄제호는 거손업슬수업시나님을 범  
죄제호는 자는 양화를 밟으리라. 만일 너희손이나 발이나 너를  
범죄제호거든 적어 봉리고 찰호리손이나 발이나 호나이 업시  
영성호는데 드러가는 거시 두 손파두발노영영호불에 더지는  
것 보다요 흐니라.<sup>거</sup> 만일 네 눈이 너를 범죄제호거든 빼여 봉리고  
찰호리호눈으로 영성호는데 드러가는 거시 두 눈으로 디옥불  
에 더지는 것 보다요 흐니라 삼가호여 이 쇼조종호나도 업수이  
넉이지마라 내너희제말호노니더의련스들이 하늘에 서내의  
하늘아버지의 얼굴을 흥상비우느니라.<sup>대</sup> 개인조온거손일  
허브린사람들을 구원호려함이니<sup>거</sup> 엉던사람이 양일빅마리가  
잇는 터만일 그 중에 흐나이길을 일헛스면 너희성각애는 엉더  
켓느나 그사람이 아흔아홉마리를 봉려두고 산에 가서 길일흔

양을 찾지 안겠느냐 내 실 노 너희 제 님 으 노니 만 일 쫓지 면 일 치  
아니 혼아 혼아 흡마리 양 보 담더 깃거 워하 리니 이 와 굽치 이 쇼  
즈 중에 혼나라 도 일 허 브 리 는 거 시 너희 하늘에 계신 아바지의  
뜻 시 아 니 니 라 () 후 <sup>+5</sup> 너희 형 예 가 너희 제 죄를 짓 거 든 가셔 그 사  
물 이 홀노 잊슬 때에 죄를 그르쳐 만 일 드르면 네가 네 형 예를 구  
원 홀거 시 오 <sup>+6</sup> 만 일 듯지 안 쥐든 혼두사 룸을 드리고 가셔 두 셋 중  
인 의 입 으로 말마다 증거 혼여 만 일 그 말도 듯지 안 쥐든 교회에  
말하고 교회 말도 듯지 안 쥐든 이방사 룸파 세리 굿 치 너 이라 <sup>+7</sup> 내  
실 노 너희 제 님 으 노니 무어 시던지 너희 가짜에 서 미면 하늘에  
셔도 미일 거 시오 너희 가짜에 서 푼 거 손하늘에 서도 풀이리라 <sup>+8</sup>  
내 다시 너희 제 님 으 노니 너희 중 두사 룸이짜에 서 모움을 굽치  
흐 야무 숨 일 이던지 구호 면하늘에 계신 내 아바지 가더를 위호

야 일우 캐 허시리니 대개 어터 던지 두셋사람이 내일 흠으로 모  
히면 나도 그중에 잇스리라 ( ) 그때 애피득이나 아와 예수 셰굽  
으 터 쥬여 형매가 내게 죄를 지으면 몇번이나 용서해야 주리 잇  
가 날곱번 쇠지 허오릿가 예수 1글으샤 터내 베개 널으 노니 널  
곱번 쇠지 말 흠이 아니라 날흔식날곱번을 훌지니라 이련고로  
하늘나라 이 엇던 님군이 신하와 회계 흠파코 허니 회계를 시작  
호후에 온천만량 빚 진자 허나를 드려 왓스니 빚진 거술 갑흘거  
시 업스매님군이 분부 허 되그 몸과 쳐와 조식과 잇는 거술다풀  
어 갑흐라 허니 그 신하가 업티여 절하고 굽으 터 쥬여 내게 촘으  
뇨셔다 갑흐리이다 허니 그 님군이 불상히 낙여 노코보내며 그  
빚슬탕감흐여 주엇더니 그 신하가 나가다가 제게 빅량 빚진동  
판하나를 만나 매곳붓드러 목을 잡고 굽으 터네 빚슬갑흐라 허

니 그 동관이 업 터여 군 구호여 금 으 터 나를 촘어 주 쇼셔 다 갑 흐  
리 다 혼 터 허 락 흐 지 아 너 흐 고 빛 슬다 갑 도 록 옥 예 가 도 니 동 관  
들 이 보 고 심 히 민 망 흐 야 님 군 여 가 셔 그 혼 일 을 다 고 흐 니 님 군  
이 그 사 름 을 불 너 다 가 골 으 터 악 혼 신 하 야 네 가 빌 기 에 내 가 베  
빛 슬 탕 감 흐 여 주 엇 스 니 네 동 관 불 양 히 너 이 기 를 내 가 너 를 불  
상 히 너 임 파 콧 치 흠 이 맛 당 치 아 니 흐 나 흐 고 님 군 이 노 흐 야 빛  
슬 다 갑 도 록 옥 졸 의 게 봇 첫 스 니 너 희 각 사 름 이 촘 모 음 으로 형  
데 의 죄 를 용 셔 흐 지 아 니 흐 면 내 의 하 늘 아 바 지 도 이 와 콧 치 너  
희 흐 흐 시 리 라

예 집 구 장 예 수 1 이 말 숨 을 뜯 치 시 고 가 리 리 에 서 뼈 나  
요 단 강 건 너 유 태 디 경 에 니 르 시 니 허 다 혼 사 름 이 쪘 거 늘 예 수  
1 거 괴 셔 병 인 을 곳 치 시 더 니 ○ 법 리 시 사 름 이 예 수 셔 나 아 와

시험 <sup>호</sup>여 글 <sup>으</sup> 터사 <sup>름</sup>이 아모연고글년지 그안희를내여 <sup>브</sup>리  
는거시 <sup>을</sup>흐니잇가 <sup>예수</sup><sub>4</sub> | 터답 <sup>흐</sup>샤터사 <sup>름</sup>을내신이가처음  
브터남녀를문드르 <sup>시고</sup><sub>5</sub> 또닐 <sup>으</sup>샤터이런교로사 <sup>름</sup>이부모를  
떠나매안희의계합 <sup>흐</sup>야들이호몸이된다 <sup>흐</sup>션시니이글을늙  
지못 <sup>흐</sup>엿느냐 <sup>흐</sup>니 <sup>6</sup>이 <sup>곳</sup>흔즉부부가들이아니오호몸이니그  
러므로하는님썩셔싹지어주신거슬사 <sup>름</sup>이는호지못흘지니  
라 <sup>법</sup><sub>7</sub>리서사 <sup>름</sup>이글 <sup>으</sup>터그러 <sup>흐</sup>면엇지마 <sup>셔</sup>가내치눈글을주  
어 <sup>브</sup>리라 <sup>흐</sup>엿느 <sup>닛</sup>가 <sup>예수</sup><sub>8</sub> | 글 <sup>으</sup>샤터마 <sup>셔</sup>가너희 <sup>무</sup>옴이 <sup>녕</sup>악  
홈을인 <sup>흐</sup>야안희 <sup>브</sup>림을용납 <sup>흐</sup>엿거니와다만태초에눈그려  
치아니 <sup>흐</sup>니라 <sup>내</sup><sub>9</sub>너희제말 <sup>흐</sup>노니누구던지간음을호연고외  
에안희를 <sup>브</sup>리고다른터장가드 <sup>는</sup>쟈도음란을횡 <sup>흐</sup>이오 <sup>브</sup>린  
녀인의제장가드 <sup>는</sup>쟈도또호음란을횡 <sup>흐</sup>이니라 <sup>데</sup>조들이글

으니 만일사람이 안희의 제이곳치흘진니장가들지안눈거시  
을슴는이다예수<sup>1</sup>글으샤되사람마다이말되로힝흐지못흐  
되오직능훔을밧은쟈<sup>2</sup>라야흐느니라대개어미의제날제브  
터고쟈된이도잇고사람이문둔고쟈도잇고하늘나라를위흐  
야스스로고쟈된이도잇느니이거슨능히흘이라야흐리라<sup>(3)</sup>  
째에사람이어린<sup>4</sup>희들을드리고와서예수세셔손을그우에  
다하시고과도호여주시기를원흐매예조들이부짓거늘예수  
1글으샤되어린<sup>5</sup>희를내게오게흐고금치마라하늘나라에  
잇는쟈<sup>6</sup>1가이런어린<sup>7</sup>희코흐니라흐시며손을그우에다혀  
주시고거괴서져나가실식<sup>(8)</sup>호사람이와서글으되착흐신선  
성님이여내가무숨착훈일을흐여야영성을엇겟느닛가예수  
1글으샤되엇지나를착흐다흐느나하느님외에는흐나도착

훈이 가업 <sup>느</sup>니 네가 영성을 엊으랴 면 계명을 직히 여라 <sup>글</sup>으 <sup>터</sup>  
엇던 계명이 오닛 가예수 <sup>1</sup> 글 <sup>으</sup> 샤티 살인 <sup>하</sup>지 말며 음란 <sup>하</sup>지  
말며 도적질 말며 거짓증거 말며 <sup>네</sup>부모를 공경 <sup>하</sup>며 <sup>나</sup>웃스랑  
호기를 제 몸과 <sup>곳</sup> 치 <sup>하</sup>라 <sup>하</sup>셨느니라 <sup>절</sup>은자 <sup>1</sup> <sup>술</sup> <sup>으</sup> 터 이여 러 계  
명은 내가 어려서 브터 다직 헛스 <sup>오</sup>니 <sup>무</sup>어 시오 히려 부족 <sup>하</sup>오 릿  
가 예수 <sup>1</sup> <sup>술</sup> <sup>으</sup> 샤티 네가 온전 훈사 <sup>름</sup>이 되고 져 흘 진 터 가셔 있  
는 거슬풀아 가난 훈이를 주어라 그려 <sup>하</sup>면 저 물이 하늘에 잇슬  
거시오 <sup>도</sup> 와서 날를 쪽 치라 <sup>하</sup>시 <sup>니</sup> <sup>절</sup>은자 <sup>1</sup> 저 물이 만 혼고로  
맡 <sup>맡</sup> 숨을 듯교 근심 <sup>하</sup>며 가니라 <sup>( )</sup> 예수 <sup>1</sup> 예 <sup>조</sup> 드 려 <sup>날</sup> <sup>으</sup> 샤티 내  
실 노 너희 계 <sup>닐</sup> <sup>으</sup> 노니 부자는 하늘 나라에 드러가 기어려우리  
라 <sup>다</sup> 다시 너희 계 <sup>말</sup> <sup>하</sup> 노니 약 <sup>터</sup> 가 바늘 구멍을 웨여 나가는 거시  
부자는 하느님 나라에 드러가는 것 보 담 쉬으리라 <sup>하</sup>신 터 <sup>예</sup> <sup>조</sup>



들이듯 고심히 놀내여 굳으니 그린즉 뉘가 구원함을 엊으리잇  
가예수 1 보시고 굴으샤되 사롭으로는 능히 못호 되하느 님은  
능히 모든 일을 다호시느니라 피득이니 답호야 굳으니 우리가  
일체 거슬다 봄리고 쥬를 콧초 오니 무엇슬엇으릿가예수 1 굴  
으샤되 내실노너희게닐으노니 너희나를 콧눈이 들은다시 흥  
흘째에 인조 1 영화잇는위에 안고 너희들도 열두위에 안져이  
식렬열두지파를 심판호리라 또 내일홈을 위호여집이나 형데  
나누의나부모나안히나조식이나던토를 봄리는 자마다 반두  
시빅비나상을 밟고 죽영성을 엊으리라 그러나 양초암선이 가  
뒤에 잇고 뒤선이 가압혜잇슬자 1 만호리니라

### 데 이십장

대개 태국은 집쥬인이 아첨에 나가 품군을 엊  
어포도동산에 드려보냄파릇호니 품군파호로은 혼돈식주마

자 뎅 헤 야 포 도 동 산 에 드 려 보 내 고 소 시 에 또 나 가 장 려 에 한 가  
이 섯 는 사 름 들 을 보 고 굽 으 터 너 희 도 포 도 동 산 에 드 려 가 면 내  
가 삭 을 잘 주 리 라 헤 니 그 사 름 들 이 가 고 오 시 와 신 시 초 에 또 나  
가 그 와 치 헤 고 거 의 유 시 초 에 나 가 또 한 가 히 섯 는 사 름 들 을  
보 고 굽 으 터 너 희 는 엇 지 좋 일 토 록 한 가 이 여 괴 섯 는 뉴 터 답 헤  
되 우 리 를 품 군 으로 쓰 는 이 가 업 는 이 다 헤 니 집 쥬 인 이 굽 으 터  
너 희 도 포 도 동 산 에 드 려 가 라 삭 을 잘 밧 으 리 라 헤 고 임 의 져 물 매  
동 산 쥬 인 이 세 간 맛 혼 사 름 드 려 날 너 굽 으 터 품 군 들 을 불 너 나  
종 온 자 로 브 터 시 자 헤 여 몬 져 온 이 서 지 삭 을 주 라 유 시 초 에 온  
자 들 도 각 각 은 혼 돈 식 밧 거 늘 몬 져 온 자 1 들 이 와 셔 저 희 는 더  
밧 을 줄 알 어 더 니 더 들 도 죠 혼 혼 돈 식 밧 으 매 밧 어 가 지 고 집 쥬  
인 을 원 망 헤 야 굽 으 터 우 리 는 좋 일 더 위 에 슈 고 를 헤 옛 는 터 엊



지나 종에 와서 반시일 훈이 와고 치주느뇨 호니<sup>+3</sup> 쥬인 이 그 중에  
흔사룸 드려닐 은 터 친구여나 | 네 개 그루 개 훈거시업느니 우<sup>+4</sup>  
리가은 훈돈식 작명 아니 호 옛느 나<sup>+4</sup> 네 삭 이나 가지고 가거라나  
종에온이를 너희와 곳 치주 겟 노라 내 물건을 내 무 움터로 쓰는  
거시울치아니 호 나내가 착 훈고로 네 가악 호 게 보느 나<sup>+6</sup> 이 와 곳  
치뒤에잇는이가 암서고 암혜잇는이가뒤서리니 대개불여가  
는이 는만 호 되 턱 훈이 는적 음이 니 라 )<sup>+7</sup> 예수 | 야로살링에 올  
나 가시 다 가길에 서 종 용이 열 두 메 조를 드 리 고 널 너 길 으 샤 터  
우리가야로살팅에 올 나 가 서 인 조 가 제 소 제 장 파 셔 샤 관 의 제  
잡혀가죽이기로 작명 호 고 이 방 사 룸 의 제 내 여 주 어 릉 육 호 며  
첫 직 질 호 며 십 조 가 에 못 박 힐 거 시 오 삼 일 만 에 다 시 살 이 라

○ 그

째에 서 비 태 의 아 들 의 어 머 니 가 그 아 들 을 드 리 고 예 수 의

와 서 절호며 혼일을 구하니 예수 이 걸으 샤티 무어 슬원 하 는 뉴  
걸으 뒤 내아 들둘을 쥬의 나라에 서하나는 쥬의 올 혼편에 안치  
고 하 나는 쥬의 원편에 안제 하 여 주 업 쇼서 예수 이 터답 하 샤티  
너희구 하 는 거슬너희가 아지못 하 는 도다나 마실잔을 너희가  
마시겟스 여 나 밧 을 세례를 너희가 밧 겟느 나 터답 하 터능히 하  
겟느 이 다 예 수 이 걸 이 샤티 너희가 과연나의 잔을 마시 여 나 밧  
을 세례를 밧 으면 내을 혼편과 원편에 안치 기 는 내가 줄거사아  
나라내아 바지 썩 서 위 하 야 예 비 하 여 주 시 리 게 주 시 리 라 열  
데 조 1 둑고 형데 두사롬을 혼 하 거 눌 예 수 이 데 조 들을 불녀다  
가 걸 으 샤티 이방님금이 정 조 를 드 소 리 매 대신들이 권세를 잡  
는 줄은 너희가 알거니와 너 희 중에는 그려 치못 홀 지라 너 희 중  
에 누구던지 눕 흐 랴 하 는 자는 너희하인이 될거시오 웃 듬이 되

☰

라 흐 는 자 는 너 희 종 이 되 리 나 인 노 온 거 시 사 름 을 부 리 려 흠  
이 아 니 라 사 름 을 섬 기 려 흠 이 오 쪽 무 리 를 위 흠 야 목 숨 을 브 려  
속 죄 흠 여 좀 이 니 라 ○ 야 리 가 에 셔 떠 나 갈 시 큰 무 리 가 쪘 더니  
쇼 경 들 이 길 그 에 안 젓 다 가 예 수 지 나 가 심 을 듯 고 소 리 질 너 골  
으 터 쥬 대 위 의 노 손 이 여 우 리 를 불 양 히 넉 이 쇼 셔 흠 나 무 리 가  
섞 지 져 좀 좀 흠 라 흠 되 쇼 경 이 더 욱 소 릭 질 너 골 으 터 쥬 대 위 의  
조 손 이 여 우 리 를 불 양 히 넉 이 쇼 셔 흠 거 늘 예 수 머 물 너 서 셔  
그 들 을 불 너 골 으 샤 터 너 희 가 날 드 려 무 엇 슬 흠 나 쇼 경  
들 이 골 으 터 쥬 여 우 리 눈 을 붉 게 흠 여 주 읍 쇼 셔 예 수 1 민 망 이  
넉 이 샤 더 희 눈 을 만 지 시 너 눈 이 곳 붉 그 매 두 사 름 이 예 수 를 쪽  
더 라

예 이 십 일 장

야로 살 텁에 갓 가 이 가 셔 감 남 산 빅 법 기 에

니 르 러 예 수 । 두 데 즈 를 보 내 시 며 날 니 굽 으 샤 터 암 희 뵈 눈 마  
을 에 가 셔 미 힌 라 귀 ㅎ 나 와 라 귀 삭 기 ㅎ 나 를 맛 날 거 시 니 풀 어  
내 게 로 가 져 오 너 라 만 일 누 가 말 ㅎ 거 든 쥬 셰 셔 쓰 시 겟 다 ㅎ 면  
죽 시 보 내 리 라 이 일 이 다 되 옛 스 매 선 지 의 말 숨 혼 거 슬 일 우 려  
흐 옛 시 니 널 너 스 되 시 온 의 너 즈 의 계 널 ㅇ 노 니 내 희 왕 이 너 희  
게 림 ㅎ 되 공 슛 ㅎ 고 라 귀 를 ㅌ 매 라 귀 삭 기 가 ㄷ 로 리 라 ㅎ 옛 는  
니 라 데 <sup>六</sup> 즈 들 이 가 셔 예 수 의 명 ㅎ 신 터 로 헹 ㅎ 야 <sup>七</sup> 라 귀 와 라 귀 삭  
기 를 쇠 을 고 와 셔 저 의 옷 슬 그 우 에 펴 고 예 수 를 터 우 니 <sup>八</sup> 여 러 무  
리 가 길 에 옷 슬 펴 며 혹 나 무 가 지 를 섹 어 펴 는 이 도 잊 고 암 셔 며  
뒤 ㄷ 라 오 는 무 리 들 이 소 리 절 너 굽 으 터 대 위 의 즈 손 의 계 일 만  
복 이 여 죄 의 일 홍 으로 오 시 는 이 가 복 이 잊 슬 지 어 다 지 극 히 드  
흔 터 에 일 만 복 이 로 다 ㅎ 더 라 예 수 । 야 로 살 텁 에 드 러 가 시 니

온 성이 소동 허여 글으 터 이는 누구 뇨 헤 늘 무리 들이 글으 터  
가 리리 나 살록 에서 오는 선지 예 수라 헤 더라 ( ) 예 수 1 하느 님  
의 던에 드러가 샤 던 안에서 풀고 사는 자들을 내여 쫓치시 고 돈  
밧고는 자의 상과 비둘기 표는 자의 교의를 둘내 업 헤 시 고 더 들  
드려 골으 샤 터 성경에 고록 헤 옛스 되내 집은 거도 헤 는 집이라  
흐거늘 오직 너희는 강도의 굴혈을 모둔다 헤 셋느니라 예 수 1  
성 던에 계실때에 죠 경파져는 자가 나아오거늘 꽃쳐 주시니 제  
스장과 셔샤 판들이 예수 헤 사는 이 상호 일과 으 희들이 성 던에  
서 소리질너 골으 터 대위 의 조손의 계일만복이 잇슬지어다 흠  
울 보고 크게 흔 헤 야 예 수 셔 말 헤 되이 사람들의 말 헤 는 거술 드  
렷느냐 예 수 1 골으 샤 터 그 러 타어 린 으 히 와 젓 먹는 자들의 입  
으로 찬미를 온전히 흔다 흠을 너희가 넉지 못 헤 엇느냐 헤 시 고

(+) 아 촘에 성으로 도라 오실 시 예수 1 시장 호시 거 놀 길 가 회무  
화파 나무 호나 잇 숨을 보시고 나아 가시니 열미는 업고 님 사귀  
뿐이 어 놀 예수 1 나무 드려 널으샤 되 이 제 후로는 네 가 열미를  
영 영 멋지 못 할리라 할시니 나무 가 곳마르 눈지라 예조들이 보  
고 이 양 히 넉여 굽으 터 무 화파 나무 가 엇지 곳마르 느 낫 가 예수  
1 터 답 헥사 터 내 실 노 너 회게 널으 노니 만일 너 회가 멋음이 있  
고 의심치 아니 할면 이 무 화파 나무에 힝 혼 일만 홀뿐이 아니라  
이 산 드려 옴겨 바다에 더지 라 할여도 반드시 될거 시오 너 회가  
밋고 괴도 할여 구 할면 무어 시던지 다 엇으리 라 할시 더라 () 예수  
1 성년에 드러 가 그 치 실 시제 소장과 빅 성의 장로 들이 나아  
와 굽으 터 네 가 무 슴 권세로 이 일을 힝 할며 또 누 가 이 권세를 주

더 나 예

二四

수 । 터 답 헤 샤 터 나 도 뜨 훈 훈 말 을 너 희 계 무 를 거 시 니

너 희 가 터 답 헤 면 나 도 무 슴 권 세 로 어 일 을 횡 훔 을 널 으 리 라

二五

한 의 세례 가 어 터 로 왓 는 나 하 늘 노 왓 는 나 사 름 으로 왓 는 나 그

들 이 서 로 의 론 헤 여 곁 으 터 하 늘 노 왓 다 헤 면 엇 지 멋 지 안 는

나 훌 거 시 오 사 름 으로 왓 다 헤 면 사 름 이 다 요 한 을 션 지 자 라 헤

二六

나 빅 성 들 이 무 섭 도 다 헤 고 터 답 헤 되 우 리 가 알 지 못 헤 노 라 예

수 굴 으 샤 터 나 도 무 슴 권 세 로 이 얼 을 횡 훔 을 너 희 계 널 으 지 아

나 훌 리 라 그 러 나 너 희 성 각 에 눈 엉 터 헤 뇨 훈 사 름 이 두 아 들 이

잇 는 터 맛 아 들 의 제 널 으 터 아 들 아 오 날 포 도 동 산 에 가 셔 일 헤

라 헤 나 터 답 헤 터 슬 소 이 다 헤 더 니 그 후 에 뉘 웃 쳐 가 고 그 들 저

아 들 의 배 뜰 이 콧 치 말 헤 나 터 답 헤 되 가 겟 는 이 다 헤 고 가지 아

나 헤 옛 시 니 그 들 중에 뉘 가 아 비 뜻 슬 줄 험 헤 옛 는 뇨 그 들 이

골

으 터 맛 아 들이 니다 예 수 一 골 으 샤 터 내 실 노 너 회 계 널 으 노니  
세 리 들 파 창 기 들 도 너 회 보 다 몬 져 련 국 에 드 러 가 리 라 요 한 이  
올 흔 도로 너 회 계 나 아 와 거 늘 너 회 는 멋 지 아 니 흐 되 세 리 와 창  
기 는 멋 고 또 너 회 가 이 거 슬 보 고 멋 을 거 시 어 늘 종 시 뉘 웃 쳐 멋 지  
도 아 니 흐 는 도 다 ○<sup>三三</sup> 다른 비 유 를 드 르 라 흔 집 쥬 인 이 동 산 에 포  
도 를 심 으고 산 울 노 드 르 고 그 속에 술 짜 는 틀 을 두 고 막 을 짓 고  
농 부 의 개 세로 주 고 다른 골에 갖다 가 실 과 닉 는 쌔 가 갖 가 오 매  
종 들 을 농 부 의 개 보내 여 제 실 과 를 밟 으 랴 흐 니<sup>三五</sup> 농 부 들 이 종 들 을  
잡 아 흐 나 는 쓰 리 고 흐 나 는 죽 이 고 흐 나 는 돌 노 치 거 늘 다 시 다  
른 종 들 을 처 음 보 담 만 이 보 내니<sup>三六</sup> 농 부 가 또 그 러 케 흐 는 지 라 후에  
제 아 들 을 보 내 며 모 음에 혜 아 리 되 더 희 가 내 아 들 은 공 경 흐 리  
라 흐 엿 더니<sup>三七</sup> 농 부 들 이 그 아 들 을 보 고 서로 말 흐 되 이 는 산 업 을

니 읊 자 । 니 죽 이 고 그 의 산업 을 탓 지 흐 자 흐 고 잡 아 포 도 동 산  
 밧 고 내 여 쫓 차 죽 옛 시 니 포 도 동 산 쥬 인 이 와 서 농 부 들 을 엇 더  
 케 쳐 단 헛 겟 는 뉴 여 려 사 름 이 곧 으 터 이 악 혼 사 름 들 을 전 멸 흐  
 고 포 도 동 산 을 다 른 농 부 의 계 계 로 주 어 제 째 마 다 실 파 를 드 리  
 케 흘 지 니 다 예 수 । 골 으 샤 터 성 경 에 널 너 스 되 양 인 의 브 린 돌  
 이 집 모 통 이에 요 긴 혼 돌 이 되 는 니 이 거 손 쥬 씨 셔 일 우 신 거 시  
 오 우 리 눈 에 괴 이 흄 이 라 흄 을 너 희 가 혼 번 도 낙 지 아 니 흐 옛 는  
 냐 그 런 고로 내 너 희 케 말 흐 노 니 하 는 님 나 라 를 너 희 케 쪘 앗 셔  
 능 히 열 미 빛 는 빅 성 의 계 주 리 라 이 돌 으에 쌔 러 지 는 자 는 쌔 여  
 지 고 이 돌 이 그 우에 쌔 러 지 는 자 는 몬 지 가 되 리 라 흐 시 니 제 스  
 장 과 법 리 식 사 름 들 이 이 비 유 를 드 르 매 더 희 를 그 르 쳐 말 슴 흐  
 신 줄 을 알 고 잡 고 져 흐 나 여 려 사 름 이 예 수 를 선 지 라 흐 는 고로

무서워 허더라

데 이십이 장

예수 1 터 담 허샤 다시 비 유로 말 숨 허샤 터

하늘나라 이 엇던 님 군파고 허니 그 아돌을 위 허야 혼인 잔치를  
베풀서 그 종을 보내여 청혼사 를 윤 혼인 잔치에 오라 허되 오  
지 아니 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며 굽으 터 네 가 가서 청혼사  
룸 들의 게닐으 되내임의 음식을 양만 허여 놋코 소와 살진 즘성  
을 잡고 또 모든 거슬갓초 앗시니 오쇼서 허라 헌터 더들이 도라  
보지도 안 코가 되 허나는 제밧해가고 허나는 저곳에 가고 그 늄  
은 이들은 종을 잡아 륭육 허고 죽이니 <sup>6</sup>님 군이 듯고 노 허야 군수  
를 보내여 그 살인 혼쟈들을 멀 허며 성을 불살으고 종드려 날으  
터 혼인잔치는 예비 허 옛스나 청혼사 를 윤 합당치 아니 허니  
큰 길거리에 가서 아모사 를 이던지 맛나는 터로 청호여 오너라

훈 터 종<sup>+</sup>이 길에 나아가 선호이나 악호이나 맛나는 터로 모도다  
려 오니 혼인 자리가 그득 혼지라.<sup>+</sup> 남군이 드러와서 손을 볼식 혼  
사 룸이 혼복을 납지 아니<sup>+</sup> 하 옛 거눌<sup>+</sup> 말<sup>+</sup> 하여 굳으되 친구여 엊지  
례복을 납지 안코 여괴드러 왓느냐<sup>+</sup> 하니 손이 점점<sup>+</sup> 허고 터답지  
안<sup>+</sup> 거눌<sup>+</sup> 남군이 종의<sup>+</sup> 게 말<sup>+</sup> 터 그 슈족을 결박<sup>+</sup> 하여 밋<sup>+</sup> 것 어둔 터  
더<sup>+</sup> 지라 거괴 쳐슘<sup>+</sup> 히울고<sup>+</sup> 니를 갈이라<sup>+</sup> 하니<sup>+</sup> 대<sup>+</sup> 개<sup>+</sup> 불은<sup>+</sup> 이<sup>+</sup> 는<sup>+</sup> 만<sup>+</sup> 허  
되 헉<sup>+</sup> 흔이<sup>+</sup> 는<sup>+</sup> 쪽<sup>+</sup> 으<sup>+</sup> 니<sup>+</sup> 라<sup>+</sup> ()<sup>+</sup> 법<sup>+</sup> 리<sup>+</sup> 서<sup>+</sup> 사<sup>+</sup> 룸<sup>+</sup> 들<sup>+</sup> 이<sup>+</sup> 가<sup>+</sup> 셔<sup>+</sup> 서<sup>+</sup> 로<sup>+</sup> 의<sup>+</sup> 론<sup>+</sup> 헉<sup>+</sup>  
엇더<sup>+</sup> 채<sup>+</sup> 그<sup>+</sup> 의<sup>+</sup> 말<sup>+</sup> 을<sup>+</sup> 칙<sup>+</sup> 잡<sup>+</sup> 율<sup>+</sup> 고<sup>+</sup> 헉<sup>+</sup> 고<sup>+</sup> 더<sup>+</sup> 회<sup>+</sup> 데<sup>+</sup> 조<sup>+</sup> 들<sup>+</sup> 파<sup>+</sup> 회<sup>+</sup> 률<sup>+</sup> 의<sup>+</sup> 무<sup>+</sup> 리<sup>+</sup> 를  
예<sup>+</sup> 수<sup>+</sup> 쌔<sup>+</sup> 보<sup>+</sup> 내<sup>+</sup> 여<sup>+</sup> 굴<sup>+</sup> 으<sup>+</sup> 터<sup>+</sup> 선<sup>+</sup> 성<sup>+</sup> 님<sup>+</sup> 은<sup>+</sup> 춤<sup>+</sup> 되<sup>+</sup> 시<sup>+</sup> 고<sup>+</sup> 하<sup>+</sup> 느<sup>+</sup> 님<sup>+</sup> 의<sup>+</sup> 춤<sup>+</sup> 도<sup>+</sup> 를<sup>+</sup>  
크<sup>+</sup> 치<sup>+</sup> 시<sup>+</sup> 며<sup>+</sup> 험<sup>+</sup> 을<sup>+</sup> 편<sup>+</sup> 벽<sup>+</sup> 되<sup>+</sup> 이<sup>+</sup> 보<sup>+</sup> 지<sup>+</sup> 아니<sup>+</sup> 하<sup>+</sup> 여<sup>+</sup> 사<sup>+</sup> 룸<sup>+</sup> 을<sup>+</sup> 모<sup>+</sup> 양<sup>+</sup> 으<sup>+</sup> 로<sup>+</sup> 취<sup>+</sup> 헉<sup>+</sup>  
지<sup>+</sup> 안<sup>+</sup> 는<sup>+</sup> 줄<sup>+</sup> 을<sup>+</sup> 우<sup>+</sup> 리<sup>+</sup> 가<sup>+</sup> 아<sup>+</sup> 느<sup>+</sup> 니<sup>+</sup> 우<sup>+</sup> 리<sup>+</sup> 배<sup>+</sup> 님<sup>+</sup> 으<sup>+</sup> 쇼<sup>+</sup> 셔<sup>+</sup> 선<sup>+</sup> 성<sup>+</sup> 님<sup>+</sup> 성<sup>+</sup> 각<sup>+</sup> 에<sup>+</sup> 눈<sup>+</sup>  
엇더<sup>+</sup> 헉<sup>+</sup> 오<sup>+</sup> 낫<sup>+</sup> 가<sup>+</sup> 헉<sup>+</sup> 살<sup>+</sup> 의<sup>+</sup> 계<sup>+</sup> 쟤<sup>+</sup> 를<sup>+</sup> 밟<sup>+</sup> 치<sup>+</sup> 눈<sup>+</sup> 거<sup>+</sup> 시<sup>+</sup> 을<sup>+</sup> 흐<sup>+</sup> 낫<sup>+</sup> 가<sup>+</sup> 그<sup>+</sup> 르<sup>+</sup> 낫<sup>+</sup> 가

예<sup>ナラ</sup>

수 1 그들의 악홈을 아시고 굴으샤 터거 죽착 혼례<sup>ホンレ</sup> 흔 눈자들  
아 엇지나를 시험<sup>ホス</sup>하느냐 세돈을 내게 뵈이라 허시니 돈호 푸을  
가져오거늘<sup>ホシテ</sup> 예수 1 무러 굴으샤 터이거 시뉘화상<sup>ヌイハサウ</sup>과 일홈이<sup>ホシテ</sup>냐  
터답<sup>ヒタク</sup>히 되 히살<sup>ヒサク</sup>이 니 이다 예수 1 굴으샤 터그런즉 히살<sup>ヒサク</sup>의 물건  
은 히살<sup>ヒサク</sup>의 게들녀 보내고 하느님의 물건은 하느님세돌녀 보낼  
지니라<sup>ミ</sup> 그사<sup>ミ</sup>름들이 이 말<sup>モル</sup>음을 듯<sup>モロコシ</sup>고 괴이히<sup>モロコシ</sup>여 떠나가니라<sup>ミ</sup>  
다시 사<sup>ミ</sup>눈 거시업다<sup>ミ</sup>는 살<sup>ミ</sup>로 히<sup>ミ</sup>두<sup>ミ</sup>에 사람<sup>ミ</sup>이 그날에 예수<sup>ミ</sup>세와서  
무<sup>ミ</sup>러 굴<sup>ミ</sup>으<sup>ミ</sup>터<sup>ミ</sup> 선<sup>ミ</sup>성<sup>ミ</sup>님이 여마<sup>ミ</sup>서 1 닐<sup>ミ</sup>으<sup>ミ</sup>터<sup>ミ</sup> 사람<sup>ミ</sup>이 만일<sup>ミ</sup> 조식<sup>ミ</sup>이 업<sup>ミ</sup>시  
죽<sup>ミ</sup>으면<sup>ミ</sup> 동<sup>ミ</sup>성이 그 안<sup>ミ</sup>히를<sup>ミ</sup> 취<sup>ミ</sup>하야 형<sup>ミ</sup>의 터<sup>ミ</sup>를<sup>ミ</sup>니<sup>ミ</sup>으<sup>ミ</sup>라<sup>ミ</sup> 헛<sup>ミ</sup>시<sup>ミ</sup>니<sup>ミ</sup> 우  
리<sup>ミ</sup> 중<sup>ミ</sup>에<sup>ミ</sup> 칠<sup>ミ</sup>형<sup>ミ</sup>데<sup>ミ</sup> 가잇<sup>ミ</sup>는 터<sup>ミ</sup> 맛<sup>ミ</sup>시<sup>ミ</sup>장<sup>ミ</sup> 가들<sup>ミ</sup>고<sup>ミ</sup> 죽<sup>ミ</sup>으<sup>ミ</sup>매<sup>ミ</sup>조식<sup>ミ</sup>이<sup>ミ</sup> 업<sup>ミ</sup>거<sup>ミ</sup>늘  
그<sup>미</sup>의<sup>ミ</sup> 안<sup>미</sup>히<sup>미</sup>가<sup>미</sup> 그<sup>미</sup>아<sup>미</sup>오<sup>미</sup>의<sup>미</sup> 안<sup>미</sup>히<sup>미</sup>가<sup>미</sup>되<sup>미</sup>여<sup>미</sup> 그<sup>미</sup>둘<sup>미</sup>재<sup>미</sup>와<sup>미</sup>셋<sup>미</sup>재<sup>미</sup>로<sup>미</sup> 닐<sup>미</sup>곱<sup>미</sup>재<sup>미</sup>서  
지<sup>미</sup>다<sup>미</sup> 그<sup>미</sup>러<sup>미</sup>제<sup>미</sup> 헛<sup>미</sup>다<sup>미</sup>가<sup>미</sup> 후<sup>미</sup>에<sup>미</sup> 그<sup>미</sup>녀<sup>미</sup>인<sup>미</sup>도<sup>미</sup> 또<sup>미</sup> 흔<sup>미</sup>죽<sup>미</sup>엇<sup>미</sup>는<sup>미</sup>지<sup>미</sup>라<sup>미</sup> 그<sup>미</sup>런<sup>미</sup>즉<sup>미</sup>다

장가들엇스니 다시 살때에 날곱사람중에 뉘안희가 되리잇가  
예수이터답하샤되너희가성경파하는님의권능을아지못하  
는고로그릇홈이니라다시살때에는장가도아니가고식집도  
아니감이하늘에잇는런스와굿호니라죽은이가다시살물의  
론홀진티하느님께서너희께닐으샤되나는아랫립한의하느  
님이오이살의하느님이오아각의하느님이라호심을넓지못  
흐엿느냐하느님은죽은쟈의하느님이아니오산쟈의하느님  
이라흐시니여러사람이듯교구르치심을괴괴히넉이더라○  
법리서사람들이예수께서살토록사람들을터답할수업제호  
심을듯교모힐서그중에법마루치는이가예수를시험하여무  
려굽으되선성님이여률법중에어느계명이크니잇가예수이  
굽으샤되네모움을다하고성품을다하고뜻슬다하야쥬너의

하느님를 소탕호라 헛스니 이거시 첫재 큰계명이 오둘재는  
그와고호니니 웃소탕호 기름제 몸파고 치호라 헛스니 이  
득가지계명이 둘법파션자이의 강령이 니라 법리식사람모힐  
세에예수—무리굽으샤티너희성각에 눈고독이 엊더 혼이며  
뉘조손이냐터답호되 대위의 조손이 니다예수—굽으샤티 그  
러면 대위가 성신을 감동호야 괴독닐코기를 쥬라호며 굽으티  
쥬색서내쥬색닐으샤티내가네원슈를 네발아래 두기서자내울  
흔편에 안지라호셨다호나임의 대위가 괴독을 쥬라호엇스면  
엇지괴독이 대위의 조손이 되느냐 호말도티답호는이가업고  
그날브터아모말을더못지못호더라

데이십삼장 때에예수—무리들과 데조들의게 말숨호  
여굽으샤티셔샤관파법리식사람들이 마서의 자라에 안졌시니

그런고로 무엇시던지 너희에게 명호여직히라호거손직히되다  
회호는거손본밧지마라더희가말만호고횡치안느니<sup>四</sup>도무겁  
고지기어려온짐을묵거님의역과에지우되더희는흔손가락  
도움작이지아니호랴호며아모일이던지님을뵈이고져호여  
그차는경문을크게호며웃단을넓게호<sup>五</sup>고잔치에상좌와회당  
에눕흔자리와<sup>七</sup>져조에서문안파사룸들이부조라닐코는것슬  
깃거호느니그러나너희는부조라닐코는것슬밧지마라네션<sup>八</sup>  
성온호나뿐이니곳과독이오너희는다형데가되느니<sup>九</sup>짜에있  
는이를아비라호지마라너희아바니는호나이니하늘에계신이  
오또호선성이라호는것슬밧지마라네션성온호나이니곳과  
독이니라<sup>十</sup>너희중에큰이논너희하인이될거시니<sup>十一</sup>또누구던지  
스스로눕흔이는느져지고또누구던지스스로느즌이는눕하

지리라 ○ 거<sup>거</sup>조<sup>조</sup>착<sup>착</sup>흔<sup>흔</sup>례<sup>례</sup>호<sup>호</sup>는<sup>는</sup>서<sup>서</sup>샤<sup>샤</sup>관<sup>관</sup>파<sup>파</sup>법<sup>법</sup>리<sup>리</sup>식<sup>식</sup>사<sup>사</sup>룸<sup>룸</sup>이<sup>이</sup>양<sup>양</sup>화<sup>화</sup>잇<sup>잇</sup>시<sup>시</sup>  
리<sup>리</sup>라<sup>라</sup>하<sup>하</sup>늘<sup>늘</sup>나<sup>나</sup>라<sup>라</sup>문<sup>문</sup>을<sup>을</sup>다<sup>다</sup>른<sup>른</sup>사<sup>사</sup>룸<sup>룸</sup>들<sup>들</sup>암<sup>암</sup>희<sup>희</sup>셔<sup>셔</sup>닷<sup>닷</sup>고<sup>고</sup>너<sup>너</sup>희<sup>희</sup>도<sup>도</sup>드<sup>드</sup>러<sup>러</sup>가<sup>가</sup>지<sup>지</sup>  
안<sup>안</sup>코<sup>코</sup>드<sup>드</sup>러<sup>러</sup>가<sup>가</sup>랴<sup>랴</sup>호<sup>호</sup>는<sup>는</sup>이<sup>이</sup>도<sup>도</sup>드<sup>드</sup>러<sup>러</sup>가<sup>가</sup>지<sup>지</sup>못<sup>못</sup>호<sup>호</sup>배<sup>배</sup>호<sup>호</sup>는<sup>는</sup>도<sup>도</sup>다<sup>다</sup>거<sup>거</sup>조<sup>조</sup>착<sup>착</sup>흔<sup>흔</sup>  
례<sup>례</sup>호<sup>호</sup>는<sup>는</sup>서<sup>서</sup>샤<sup>샤</sup>관<sup>관</sup>파<sup>파</sup>법<sup>법</sup>리<sup>리</sup>식<sup>식</sup>사<sup>사</sup>룸<sup>룸</sup>이<sup>이</sup>양<sup>양</sup>화<sup>화</sup>잇<sup>잇</sup>시<sup>시</sup>리<sup>리</sup>라<sup>라</sup>너<sup>너</sup>희<sup>희</sup>가<sup>가</sup>파<sup>파</sup>부<sup>부</sup>의<sup>의</sup>  
저<sup>저</sup>률<sup>률</sup>을<sup>을</sup>썩<sup>썩</sup>아<sup>아</sup>서<sup>서</sup>먹<sup>먹</sup>고<sup>고</sup>길<sup>길</sup>게<sup>게</sup>괴<sup>괴</sup>도<sup>도</sup>홍<sup>홍</sup>을<sup>을</sup>평<sup>평</sup>계<sup>계</sup>호<sup>호</sup>는<sup>는</sup>고<sup>고</sup>로<sup>로</sup>너<sup>너</sup>희<sup>희</sup>가<sup>가</sup>장<sup>장</sup>리<sup>리</sup>  
큰<sup>큰</sup>형<sup>형</sup>벌<sup>벌</sup>을<sup>을</sup>밧<sup>밧</sup>으<sup>으</sup>리<sup>리</sup>라 ○ 거<sup>거</sup>조<sup>조</sup>착<sup>착</sup>흔<sup>흔</sup>례<sup>례</sup>호<sup>호</sup>는<sup>는</sup>서<sup>서</sup>샤<sup>샤</sup>관<sup>관</sup>파<sup>파</sup>법<sup>법</sup>리<sup>리</sup>식<sup>식</sup>사<sup>사</sup>룸<sup>룸</sup>  
이<sup>이</sup>양<sup>양</sup>화<sup>화</sup>잇<sup>잇</sup>시<sup>시</sup>리<sup>리</sup>라<sup>라</sup>너<sup>너</sup>희<sup>희</sup>가<sup>가</sup>바<sup>바</sup>다<sup>다</sup>와<sup>와</sup>륙<sup>륙</sup>디<sup>디</sup>로<sup>로</sup>둔<sup>둔</sup>니<sup>니</sup>며<sup>며</sup>교<sup>교</sup>우<sup>우</sup>호<sup>호</sup>나<sup>나</sup>를<sup>를</sup>잇<sup>잇</sup>  
어<sup>어</sup>서<sup>서</sup>그<sup>그</sup>가<sup>가</sup>교<sup>교</sup>에<sup>에</sup>드<sup>드</sup>러<sup>러</sup>오<sup>오</sup>면<sup>면</sup>너<sup>너</sup>희<sup>희</sup>보<sup>보</sup>다<sup>다</sup>비<sup>비</sup>나<sup>나</sup>더<sup>더</sup>디<sup>디</sup>우<sup>우</sup>사<sup>사</sup>룸<sup>룸</sup>이<sup>이</sup>되<sup>되</sup>게<sup>게</sup>호<sup>호</sup>  
느<sup>느</sup>니<sup>니</sup>라 ○ 쇼<sup>쇼</sup>경<sup>경</sup>이<sup>이</sup>되<sup>되</sup>고<sup>고</sup>늠<sup>늠</sup>을<sup>을</sup>인<sup>인</sup>도<sup>도</sup>호<sup>호</sup>는<sup>는</sup>쟈<sup>쟈</sup>여<sup>여</sup>양<sup>양</sup>화<sup>화</sup>잇<sup>잇</sup>시<sup>시</sup>리<sup>리</sup>라<sup>라</sup>너<sup>너</sup>희<sup>희</sup>  
가<sup>가</sup>말<sup>말</sup>호<sup>호</sup>되<sup>되</sup>누<sup>누</sup>구<sup>구</sup>던<sup>던</sup>지<sup>지</sup>성<sup>성</sup>던<sup>던</sup>으<sup>으</sup>로<sup>로</sup>밍<sup>밍</sup>세<sup>세</sup>호<sup>호</sup>는<sup>는</sup>이<sup>이</sup>는<sup>는</sup>일<sup>일</sup>이<sup>이</sup>업<sup>업</sup>스<sup>스</sup>나<sup>나</sup>성<sup>성</sup>던<sup>던</sup>  
에<sup>에</sup>금<sup>금</sup>으<sup>으</sup>로<sup>로</sup>밍<sup>밍</sup>세<sup>세</sup>호<sup>호</sup>즉<sup>즉</sup>갑<sup>갑</sup>흘<sup>흘</sup>지<sup>지</sup>니<sup>니</sup>라<sup>라</sup>호<sup>호</sup>너<sup>너</sup>희<sup>희</sup>는<sup>는</sup>우<sup>우</sup>밍<sup>밍</sup>이<sup>이</sup>오<sup>오</sup>쇼<sup>쇼</sup>경<sup>경</sup>이<sup>이</sup>  
라<sup>라</sup>었<sup>었</sup>던<sup>던</sup>거<sup>거</sup>시<sup>시</sup>크<sup>크</sup>뇨<sup>뇨</sup>그<sup>그</sup>금<sup>금</sup>이<sup>이</sup>나<sup>나</sup>금<sup>금</sup>으<sup>으</sup>로<sup>로</sup>거<sup>거</sup>록<sup>록</sup>호<sup>호</sup>제<sup>제</sup>호<sup>호</sup>는<sup>는</sup>성<sup>성</sup>던<sup>던</sup>이<sup>이</sup>나<sup>나</sup>또<sup>또</sup>

누구던지 제단으로 밍셰호는 이는 일이 업거나와 그 우에 있는  
례물 노 밍셰호 즉 갑흘지니라 호니 너희는 우 밍이 오 쇼경이라  
었던거 시크뇨 그례물이냐례물 노 기록호게호는 제단이니 그  
런 고로 제단으로 밍셰호는 이는 제단파 그 우에 있는 모든 거스  
로 밍셰호이 오도 성단으로 밍셰호는 이는 성단파 그 안에 계신  
이로 밍셰호이 오도 하늘노 밍셰호는 이는 하느님의 보비자리  
와 그 우에 안지신이로 밍셰호이니라 () 거조착호데호는 서샤  
관파법리서사람이 앙화잇시리라 너희가 박하와 회향파 근처  
는 십분에 일분을 드리되 률법에 중훈의와 인파신은 힝치아니  
흐니이거슬횡흘거시오 더것도 보리지 못흘거시니라 쇼경  
이되고 늄을인도호는이여갈드귀는걸너먹고약되는삼키는  
도다거조착호데호는서샤관파법리서사람이 앙화가잇시리

라 잔파쇼 반거죽은 썩 뜻시호 되안에는 토석 흄파불의 흄으로  
그득하게 호는 도다 쇼경된 법리식 사룸아 몬져 잔파쇼 반의 안  
흘 썩 뜻시호 여야 거죽이 또 혼 썩 뜻호 리라 ○ 거조착 혼테호는  
셔샤관과 법리식 사룸이 앙화잇 시리라 분으로 쏨인무 덤코호  
니밧그로보기는 아름다오나 그안에는 죽온사룸의 뼈와 모든  
더러온거시 그득호 옛느 나라 이와고치너희도 또 혼 밧그로는  
사룸의 게을흔거슬비이 되안으로는 거조착 혼것파악 혼제시  
그득호도다 ○ 거조착 혼테호는 셔샤관과 법리식 사룸이 앙화  
잇시리라 너희가 선지의 무덤을 짓고 울흔사룸의 무덤을 쏨이  
며 굴으 티 만일우리가 우리조상째에 잊섯더면우리는 선지의  
피흘니기를 흠색 썩호지아니호 옛스리라 호니 그럼으로너희  
가선지죽인자 의조손됨을 스스로 증거함이니 너희가 너희조

상의 악한 량을 치워라 너비 암아 독샤의 씨여 엇더께 더 옥심판을  
피호랴 는냐 그럼으로 내가 너희께 선지와 지혜 있는 이와 셔샤  
관들을 보내 매너희가 죽일이도 잇슬거시 오십조가에 못박을  
이도 잇슬거시 오회당에 셔친직질홀이도 잇슬거시 오이성에  
셔더성으로 펁박홀이도 잇슬거시니 짜우에 올흔사롬의 피홀  
니께 혼죄가 다너희께도 라가 되올흔사롬아 빅의 피로 브터성  
던파제단수이에서 죽인파람가의 아들살가리아의 피서지니  
라나 | 실노너희께닐으노니이거시다이터에도 라오리라야  
로 살팅이여야로 살팅이여네가 선지를 죽이며 네게 보낸이들  
을 돌노치는도다내가너의조녀모히기를암탉이별아리를나  
리아래모힘코치여러번호랴호되네가원치아니호니너의집  
이터만네게늠으라 너의제말호노니이제브터너희가닐으

쥬의 일홈으로 오시는 이 가복이 잇슬지 어다 헤기서 지나를 보지 못하리라

### 예 이십스장

예수 1 성년에 서나가 실시 데 저들이 나아  
와 성년집 들을 가르쳐 보 쇼서 헤 눌터 답 헤 샤 터 이모든 거슬  
보지 못하는 나내 실 노너 회계 날으 노니 돌 헤 나도 여고 협 노이  
지 안 코다 문 허지 리라 ( ) 예수 1 감남산에 안저 계실 때에 데 저  
들이 종용이 와셔 골으 터 두리 베 날으 쇼서 어느 떼에 이련 일이  
잇스며 또 죠 썬 셔림 헤 심과 계 양 뜻 헤 무 슴 표적 이 잇스 오리 잇  
가 예 수 1 터 답 헤 여 골으 샤 터 조심 헤 야 님의 계 미혹 헤 지 마라  
대 개여 러 사람 이 내 일홈으로 와셔 날으 터 나는 괴독이라 헤 야  
여러 사람을 미혹 채 헤 리라 또 싸 흠파 싸 흠 소문을 드 러 도 두  
려 위마 라이 런 일 이 반드시 잇스 되 뜻 촌 아 적 못 되 옛느 나라 빅



성 이 빅 성을 치며 나라 히나라를 칠 거시오 흥년파 병파 디동이  
각 쳐에 잇스리니 이 모든 거시다 저란의 시작이니라<sup>九</sup> 그 때에 사  
롬이 너희를 환난에 써 지게 할 거시 오 너희를 죽이며 너희가 내  
일 홀을 위 헤야 온 빅 성의 베위워 훔을 밟으리니 그 때에 사룸이  
만 히나를 슬혀 헤야 서로 잡혀 보내고 서로 위워 할 거시 오 거<sup>十</sup> 쪽  
션지가 만이니러나 여러사람을 미혹 할 게 할 거시 오 악 혼거시  
성 혼즉만 혼사룸의 스랑<sup>十一</sup> 흔정이 점점 업서지리니 뜻<sup>十二</sup> 쇠지 견티  
눈이 눈구원을 엊으리라<sup>十三</sup> 나라의 봉음을 온세상에 전<sup>十四</sup> 하여 모든  
빅 성의 세종 거<sup>十五</sup> 혼 후에 췄 치니르 리라<sup>十六</sup> 그 러므로 너희가 션지  
쟈 단이 리의 말 혼터로 적적 할 여위운 물건이 거록 혼곳에 셋심  
을 보거든 이 글<sup>十七</sup> 눕는 이 눈<sup>十八</sup> 셰히 알지어다 그 때에 유래에 있는  
이 는 산으로 도망하고<sup>十九</sup> 집<sup>二十</sup> 웅우에 있는 이 눈<sup>二十一</sup> 집안에 있는 물건을

가 절녀<sup>느</sup>려 오찌 말고<sup>았</sup><sub>거</sub> 밧 헤<sup>잇</sup> 눈이<sup>는</sup> 옷 술<sup>가</sup> 절녀<sup>도</sup> 라<sup>오</sup> 지<sup>지</sup> 말<sup>지</sup>  
어다<sup>그</sup><sub>거</sub> 날<sup>에</sup> 으<sup>히</sup> 빙이<sup>와</sup> 젓<sup>먹</sup> 이<sup>는</sup> 녀<sup>인</sup> 들<sup>의</sup> 계<sup>화</sup> 가<sup>잇</sup> 시<sup>리</sup> 니<sup>너</sup>  
희<sup>가</sup> 계<sup>을</sup> 파<sup>사</sup> 밧<sup>일</sup>에<sup>도</sup> 망<sup>홀</sup>을<sup>면</sup> 흐<sup>게</sup> 괴<sup>도</sup> 훌<sup>지</sup> 어다<sup>그</sup><sub>때</sub> 애<sup>콤</sup>  
환<sup>난</sup>이<sup>잇</sup> 슬<sup>지</sup> 니<sup>이</sup> 련<sup>거</sup> 시<sup>세</sup> 상<sup>시</sup> 작<sup>홀</sup>으<sup>로</sup> 보<sup>터</sup> 지<sup>금</sup> 쇠<sup>지</sup> 업<sup>수</sup>  
섯<sup>고</sup> 또<sup>후</sup> 에<sup>도</sup> 업<sup>시</sup> 리<sup>라</sup> 그<sup>날</sup> 을<sup>감</sup> 흐<sup>지</sup> 아니<sup>흐</sup> 옛<sup>더</sup> 면<sup>죽</sup> 신<sup>을</sup>  
구<sup>원</sup> 흠<sup>이</sup> 가<sup>업</sup> 슬<sup>거</sup> 시<sup>로</sup> 되<sup>오</sup> 직<sup>퇴</sup> 혼<sup>이</sup> 를<sup>위</sup> 흐<sup>야</sup> 그<sup>날</sup> 을<sup>감</sup> 흐<sup>리</sup>  
리<sup>라</sup> 그<sup>째</sup> 에<sup>아</sup> 모<sup>사</sup> 름<sup>이</sup> 너<sup>희</sup> 계<sup>말</sup> 흐<sup>되</sup> 괴<sup>독</sup> 이<sup>여</sup> 괴<sup>잇</sup> 다<sup>더</sup> 괴<sup>잇</sup>  
다<sup>하</sup> 여<sup>도</sup> 멋<sup>지</sup> 마<sup>라</sup> 대<sup>개</sup> 거<sup>조</sup> 괴<sup>독</sup> 들<sup>과</sup> 거<sup>조</sup> 선<sup>지</sup> 자<sup>들</sup> 이<sup>니</sup>  
러<sup>나</sup> 콘<sup>징</sup> 죠<sup>와</sup> 이<sup>상</sup> 혼<sup>일</sup> 을<sup>뵈</sup> 여<sup>턱</sup> 혼<sup>이</sup> 라<sup>도</sup> 미<sup>혹</sup> 혼<sup>수</sup> 만<sup>잇</sup> 스  
면<sup>흐</sup> 리<sup>니</sup> 불<sup>지</sup> 어<sup>다</sup> 내<sup>너</sup> 학<sup>계</sup> 미<sup>리</sup> 널<sup>으</sup> 노<sup>니</sup> 사<sup>사</sup> 름<sup>들</sup> 이<sup>너</sup> 희<sup>계</sup>  
말<sup>흐</sup> 되<sup>괴</sup> 독<sup>이</sup> 들<sup>에</sup> 잇<sup>다</sup> 하<sup>여</sup> 도<sup>나</sup> 아<sup>가</sup> 지<sup>말</sup> 고<sup>은</sup> 밀<sup>훈</sup> 방<sup>에</sup> 잇<sup>다</sup>  
하<sup>여</sup> 도<sup>밋</sup> 지<sup>마</sup> 라<sup>번</sup> 기<sup>가</sup> 동<sup>에</sup> 셔<sup>나</sup> 와<sup>서</sup> 편<sup>신</sup> 지<sup>뵈</sup> 이<sup>느</sup> 니<sup>인</sup>

조의 림 흄 이 이 와 츠 헤 리 라 어 터 던 지 죽 염 이 잇 스 면 소 리 개 들  
이 모 헐 지 니 라 ○ 그 날 환 난 후 예 즉 시 히 가 어 둠 고 돌 이 빛 술 내  
자 안 코 별 이 하 놀 노 서 떠 러 지 고 하 놀 권 세 들이 혼 들 니 리 니 그 때  
에 인 조 의 표 적 이 하 놀 에 서 뵈 이 고 짜 에 있 는 빅 성 들이 다 이 통  
흐 고 또 인 조 । 권 세 와 콘 영 광 으로 구 름 을 드 고 림 흄 을 보 리 니  
련 스 를 보내 여 라 발 을 크 게 불 어 소 방 에 서 턱 혼 이 를 모 히 되 하  
눌 이 편 으로 브 터 더 편 췄 쇠 지 헤 리 라 ○ 무 화 과 나 무 의 비 유 를 비  
흘 지 니 그 가지 가 련 흄 표 님 사 귀 가 나 면 여 름 이 갖 가 온 줄 을 알  
지 라 이 와 콧 치 이 모든 일 을 보 거 든 인 조 । 갖 가 히 문 에 니 른 줄  
알 나 내 실 노 너 희 계 말 흄 노 니 이 거 시 다 일 을 때 쇠 지 이 터 가지  
나 가지 아 니 헤 리 라 하 놀 파 땅 은 업 서 질 지 언 냉 내 말 은 업 서 지  
지 아 니 헤 리 라 그 러 나 그 날 파 그 시 는 아 는 사 름 이 업 고 련 스 도

아지못해 되아바니 만알으시느니라 노아의 날파고치인조의  
림홍도도 혼그려 흐리니 홍슈전에 사룸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식집가기를 노아가 비에 드러갓던 날식지 흐였스되 홍슈 1 니르  
러 그 무리를 다 멀홀줄을 섞 닷지 못해 옛스니언조 1 림홍도이  
와흐흐리라 그째에 두사룸이 밟해잇스매 흐나는 드려가고  
나는 브려두며 두녀인이 미를 갈매 흐나는 드려가고 흐나는 브  
려두리니 1 그린고로 맛당이 셀지어다어느 날에 너희쥬가림  
홀줄을 너희가 아지못해 느니라 만일 집쥬인이 도적이 어느 경  
점에 오는 줄을 알았더면 셔여제집을 뚫치못해 흐였시리니  
이거슨 너희도 알지니라 이리므로 너희도 또 혼예비 흐여라 대  
개성각지아니 흘째에 인조 1 오리락 누가 신실하고 지혜잇는  
종이되어여 대의쥬인이 집사람들을 맛기고 째로 량식을 는화주

라 헛 겟느 놈<sup>五六</sup> 쥬인을 때에 그 종이 이 러 채<sup>七</sup> 옛 숨을 보면 종이 복  
잇스리라<sup>五七</sup> 실노 내너희께 님<sup>八</sup> 노니 쥬인이 더의 있는거 슬다 그  
종의 게 맛길 거시 오<sup>五八</sup> 만일 그 악 혼종의 모<sup>九</sup> 움에 쥬인이 더티 오리  
라 헛 야<sup>五九</sup> 제 동모 들을 짜리 기를 시작<sup>一</sup> 허고 쥬<sup>二</sup> 각으로 더 브<sup>三</sup> 러 먹고  
마시다 가<sup>五十</sup> 쫓<sup>一</sup> 허지 아니 혼 날과<sup>二</sup> 아지 못 혼 때에 그 종의 쥬인이니  
르 러<sup>五一</sup> 중 혼 형벌 노짜리 고 외식<sup>一</sup> 허는 이 와<sup>二</sup> 혼 죄에 두리니 거 괴  
서 숨히 울며니를 갈이 라

데 이 십 오 장<sup>五二</sup> 현국은 쳐녀 열이 등을 들고 신랑 마조라나  
감파<sup>五三</sup> 콧<sup>一</sup> 그 중에 다 솟<sup>二</sup> 손 미련<sup>三</sup> 허고 다 솟<sup>四</sup> 손 슬<sup>五</sup> 거잇<sup>六</sup> 눈<sup>七</sup> 지라<sup>八</sup>  
련 혼이 눈 등을 가지 터 기름을 가지 지 아니 허고<sup>五四</sup> 슬<sup>一</sup> 거잇<sup>二</sup> 눈<sup>三</sup> 이 눈  
그 룹<sup>五五</sup> 석기<sup>一</sup> 름을 예비<sup>二</sup> 허고 등을 가지<sup>三</sup> 고 갖더니<sup>四</sup> 신랑이 더 터 오거  
놀다<sup>五六</sup> 즐다가 자더니<sup>五七</sup> 밤<sup>一</sup> 중에 소리<sup>二</sup> 질<sup>三</sup> 으 되신랑이 오니 나와<sup>四</sup> 마지

라 호 매 그 처녀 들이 다니 러나 등 을 준비 훌서 미련 혼 이 가슬고  
잇는 이 게 골 으 터 우 리 등 이 써 지겟스 니 너 회 기 름 을 좀 는 화 달  
나 호 거 늘<sup>거</sup> 술 과 잇는 이 가 터 답 호 여 골 으 터 우 리 와 너 회 가 쓰기  
에 다 부 족 훌 가 호 노 니 출 하 리 푼 는 이 게 가 셔 너 회 쓸 거 술 사 라  
호 니 사 러 간 스 이 에 신 랑 이 왯 거 늘 예 비 호 옛 던 이 들 은 흠 쐐 혼  
인 잔 치 에 드 러 가 고 문 을 닻 었는 지 라<sup>거</sup> 그 후 에 다른 처녀 들이 또  
혼 와 서 굴 으 터 쥬 여 쥬 여 열 어 주 쇼 셔 호 니 터<sup>거</sup> 답 호 여 골 으 터 실  
노 너 회 계 날 으 노 니 내 너 회 를 아 지 못 혼 다 호 는 니<sup>거</sup> 그 런 교로 셀  
지 어 다 너 회 는 그 날 파 그 시 를 아 지 못 호 는 니 라 ○<sup>거</sup> 하 늘 나 라 이  
또 혼 혼 사 름 이 다른 디 방 에 갈 제 그 족 들 을 불 너 잇는 거 슬 맛 김  
파 콧 호 니<sup>거</sup> 각 각 그 저 간 터로<sup>거</sup> 호 나는 금 오 천 을 주고<sup>거</sup> 호 나는 이 천  
을 주고<sup>거</sup> 호 나는 일 천 을 주고<sup>거</sup> 떠 낫 더니<sup>거</sup> 금 오 천 밗 은 이 는 바 로 가 셔

장 소 험 야 또 오 천 을 봄 기 고 이 천 밧 은 이 도 그 모 양 으로 험 야 또  
이 천 을 봄 것 스 되 일 천 밧 은 이 는 가 셔 쌍 을 파 고 그 쥬 인 의 돈 을  
감 초 앗 더 니 나 오 탠 후에 그 종 들 외 쥬 인 이 도 라 와 그 종 들 노 흠 셋 회  
계 훌 시 오 천 밧 앗 던 이 는 오 천 을 더 가 지 고 와 셔 길 으 터 쥬 여 내  
개 금 오 천 을 주 셋 는 터 내 가 또 오 천 을 봄 것 스 옵 느 이 다 험 거 나  
그 쥬 인 이 일 너 길 으 터 잘 험 옛 도 다 착 험 고 신 실 흔 종 이 여 네 가  
적 은 일 예 신 실 이 험 옛 시 니 내 가 만 흔 거 스로 네 계 맛 기 리 니 드  
러 와 네 쥬 인 의 즐 거 움 을 누 릴 지 어 다 험 고 이 천 밧 앗 던 이 도 와  
셔 길 으 터 쥬 여 내 개 금 이 천 을 주 셋 는 터 내 가 또 이 천 을 봄 것 스  
옵 느 이 다 험 거 나 그 쥬 인 이 일 너 길 으 터 잘 험 옛 도 다 착 험 고 산  
실 흔 종 이 여 네 가 적 은 일 예 신 실 이 험 옛 시 니 내 가 만 흔 것 스로  
네 계 맛 기 리 니 드 러 와 네 쥬 인 의 즐 거 움 을 누 릴 지 어 다 험 고 나

천 밟 앗던 이 가도 와서 굴으 터 쥬여 너는 궂은사 룸이라 심으지  
아닌 터 거두고 헷치지 아닌 터 모호는 줄을 나는 아노니 내 가두  
려 워 흐야 네 금울 땅에 감초 앗시니 그 본전은 잇노라 흐거 눌 그  
쥬인 이 터 담흐여 굴으 터 악흐고 게으론 종아나는 심으지 안닌  
터 거두고 헷치지 안닌 터 모호는 줄노네가 알앗신즉 네 맛당이  
내 돈을 쥐리 흐는 이의 게 두엇다가 나도 라울때 예내의 본전파  
변리를 밟게 흐 옛실거시니라 흐고 그 종애께서 금일 천을 빼앗  
셔 십천가진이 의제주라 흐리니 아모사 룸이 던지잇는 이의 게  
는 더 주어 풍족흐게 흐고 업는 이의 게는 잇는 것션자 죄 앗느니  
라 쓸 터 업는 종을 밟고 어두온 터로 내여 쫓치라 거고 서슴히 울  
고 니를 갈니라 () 인조 1조 괴영광으로 모든 련스와 궂치을 제  
영화로 온 자리에 안지매 모든 빅성을 그 암희 모호고 각각 분별

호 기를 양치는 사룸이 양파 염绍를 눈화 놓는 것 조치 <sup>호야</sup> 양온  
제 올 흔편에 두고 염绍는 왼편에 두니 그 때에 님금이 올 흔편  
에 있는 이 드려 날으샤 터너희내아바니 써복을 밟은 이는 나아  
와 이 세양창조홀제 브터너희를 위 <sup>호여</sup> 예비 <sup>호여</sup> 셨던 나라를 밟  
으라 <sup>내</sup> <sub>포</sub> 가 주릴제 네가 먹을거슬주고 목마를 제마실거슬주고  
나그내되 엿실제 터접 <sup>호고</sup> 버섯실제 웃슬 <sup>님히</sup> 고병드 <sup>렀</sup> 실제  
도라 보고 옥에 갓첫실제 와보았느니라 그 올 흔사룸들이 터답  
호여 <sup>걸</sup> <sub>으</sub> 터쥬여우리가 어느 때에 쥬썩셔 주리매 공궤 <sup>호</sup> 엿스  
며 목마르매 마실거슬드 <sup>렸</sup> 스 <sup>며</sup> 어느 때에 나그내되 매터접 <sup>호</sup>  
엿스며 버섯스매 웃님히 엿스며 <sup>병</sup> 든 때와 옥에 갓첫실때에 가  
뵈 엿느잇가 <sup>호</sup> 리니 <sup>도</sup> 님금이 터답 <sup>호</sup> 여 <sup>걸</sup> <sub>으</sub> 샤 터실노너희 드  
려 날으노니 너희가 내 동성중지극히 적은 이 <sup>호</sup> 나의 <sup>게</sup> 힝 <sup>흔</sup> 거

시 곳내게 힝 흥이라 하시고 또 원편에 있는 이의 제 널 너 굽으샤  
터 너희는 화를 밟은 자니 나를 뼈나마 귀와 그 손자를 위하야  
예비 흑 옛 던 영영 혼불에 드려 가라 내가 주릴 제 너희가 먹을 거  
술 주지 아니하 옛 고목 마를 제마실 거술 주지 아니하 옛 고나 그  
내 되 옛 실제 터 접지 아니하 옛 고 버 셋 실제 웃님 히지 아니하 옛  
고 병드 렘 실제 와 옥에 갓 첫 실제 보지 아니하 옛 는 나라 하시니  
그 들도 터 담하 여 굽으 터 쥬여 우리가 어느 때에 쥬여서 주리 셋  
거나 목마 르 셋 거나 나그 내 되 셋 거나 웃버스 셋 거나 병드 셋 거  
나 옥에 갓 치 셋 스매 공양 치 아니하 더 잇 가 님 금 이 터 담하 여 굽  
으 샤 터 내 실 노 너희 드려 널 으 노니 이지 극히 져은이 하 나와 게 힝  
치 아니 흔거 시 곳내게 힝 치 아니 흠이라 하 시리니 이 들은 영영  
훈 형벌을 밟고 더 올 흔이 들은 영성을 엊으리라

## 데 이십륙장

예수 1 이 말씀을 다 못 치시고 데 7 들의 계

닐 너 굴으 샤텁 잇틀을 지나면 유월절인 줄은 너희가 아느니인  
7 1 잡혀 가십 7 가에 못 박히리라 2 시 더라 그째에 제스 제 7  
파 빅성의 장로들이 대제스 히아법이라 3 는 이의 아문에 모히  
여 예수를 궤계로 잡아 죽이 라고 의론 4 되 5 절 6 그에는 올치 안타 7  
온 민요가 날싸 두려 흠 일니라 ○ 예수 1 빅대니 8 에 사는 문등  
이 서문의 집에 계시다가 9 잔치자리에 앉지 신덕 10 혼녀인 이옥합  
에 미우 귀호 기름을 담어 가지고 와서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11 데  
7 1 보고 혼 12 여 굴으 터 무숨의 소로 이거 슬허 비 13 흐느뇨 14 이 기  
름을 갑만이 뱗고 풀아 가난 혼이를 구제 15 홀거 16 시라 17 흐느뇨 18 예수  
1 알으시고 더 드려 19 널 너 굴으 샤텁 너희가 엊지 이녀인을 향 20 난  
21 흐느뇨 22 제가 내게 착흔일을 향 23 흐느뇨 24 니라 25 가난 혼이 눈 흥 26 양 27 너

회 와 흠 셋 잇 스 려 니 와 나 는 흥 양 흠 셋 잇 지 못 흄 리 라 그 녀 인 이  
내 몸 에 기 름 을 붓 드 거 손 내 장 수 를 위 흄 야 예 비 흄 이 니 라 내 실  
노 너 회 계 닐 으 노 니 온 련 하에 어 터 던 지 이 복 음 을 전 흄 고 도 이  
녀 인 의 흁 흁 얼 도 말 흄 야 괴 억 제 흄 여 라 ( ) 그 째 얼 두 문 도 중에  
가 략 사 룸 유 대 라 흄 는 이 가 제 소 제 장 의 배 가 셔 굽 으 터 내 가 예  
수 를 너 회 계 잡 혀 보 내 리 니 얼 마 나 주 래 누 나 흄 니 그 들 이 은 삼  
십 을 돌아 주 거 늘 그 째 브 터 예 수 잡 혀 보 낼 괴 회 를 찾 더 라 ( ) 누  
룩 업 는 떡 먹 는 첫 날 에 예 조 들 이 예 수 셋 나 아 와 셔 굽 으 터 어 터  
셔 우 리 가 유 월 절 잔 치 를 예 비 흄 야 잡 수 시 채 흄 오 리 잇 가 굽 으  
샤 터 성 안 아 모 의 게 가 셔 닐 너 굽 으 터 션 성 님 말 솜 이 내 떼 가 갖  
가 왓 시 니 예 조 들 노 흠 셋 유 월 절 을 네 집 에 셔 직 희 겟 다 흄 라 흄  
신 터 <sup>十九</sup> 예 조 들 이 예 수 의 식 이 신 터 로 흄 야 유 월 절 을 예 비 흄 옛 누

니라 저 물 매 예 수 | 열 두 예 조 와 흠 셰 자 리에 안 져 음 식 먹 을 뼈  
에 굽 으 샤 터 내 실 노 너 희 계 널 으 노 니 너 희 중에 혼 사 름 이 나 를  
풀 니 라 호 시 니 더 희 들이 심 히 근 심 호 야 호 나 식 웃 기 를 시 작 하  
여 굽 으 터 쥬 여 내 니 잇 가 터 담 호 여 굽 으 샤 터 나 와 죠 치 그 른 쇠  
손 을 너 런 쟈 | 곳 나 를 풀 니 라 인 조 는 성 경에 괴 록 혼 터 로 가 려  
니 와 인 조 를 꾼 는 쟈 는 양 화 잇 스리 니 그 사 름 이 나 지 아 니 호 옛  
더 면 도 흘 번 호 옛 니 라 예 수 를 푼 유 대 터 담 호 여 굽 으 터 션 쟁  
님 내 니 잇 가 굽 으 샤 터 네 가 말 호 옛 도 다 호 시 고 음 식 먹 을 째 애  
예 수 | 떡 을 가지 샤 축 샤 호 시 고 뼈 예 조 들 을 주 시며 굽 으 샤  
터 밟 아 먹 으 라 이 거 시 내 몸 이 라 호 시 고 또 잔 을 가지 샤 축 샤 호  
시 고 그 들 을 주 시며 굽 으 샤 터 다 마 시 라 이 거 슨 내 의 새 로 언 약  
호 는 피 니 여 러 사 름 의 죄 샤 흠 을 위 호 야 흘 님 이 니 라 그 러 나 대

너희게닐으 노니이포도즙을내아바니나라에셔새로너희와  
홈썩마시는날서지다시마시지아니흐리라호시더라○도찬  
미노래를호시고감남산에나아가시니라○<sup>제</sup>에예수1데조  
들드려닐으샤되오날밤에너희가다나를슬혀보리리니성경  
에괴록호였스되내가양치는이를치매양의폐가훗터지리라  
호엿느니라<sup>제</sup>그러나내다시나러난후에너희보다몬저가리리  
에가리라<sup>제</sup>피득이되답히되모든사람은쥬를슬혀보릴지라도  
나는종리슬혀보리지안켓느이다<sup>제</sup>예수1뇨곧으샤되내실노  
네게닐으노니오날밤<sup>을</sup>기전에는내가세번나름모론다<sup>하</sup>  
리라<sup>제</sup>피득이곧으터내가쥬와홈썩죽을지언령모로노라는안  
켓습느이다<sup>제</sup>하나모든예조들이또Hon이와코치말<sup>하</sup>더라○<sup>제</sup>  
에예수1예조들과홈썩직서마니라<sup>하</sup>는곳에나르러데조들을

의 채 널 너 굴 으 샤 터 너 희 는 여 괴 안 졌 스 라 내 데 괴 가 셔 괴 도 ㅎ  
리 라 ㅎ 시 고 피 득 과 셔 비 태 의 두 아 들 을 드 리 고 가 실 시 민 망 ㅎ  
교 슘 허 ㅎ 샤 말 슘 ㅎ 샤 터 내 모 움 이 심 히 민 망 ㅎ 야 죽 께 되 옛 시  
니 너 희 는 여 괴 잇 서 나 와 ㅈ 치 써 여 라 ㅎ 시 고 조 곰 압 ㅎ 로 나 아  
가 샤 얼 골 을 짜 에 터 고 업 득 려 괴 도 ㅎ 시 며 굴 으 샤 터 내 아 바 님  
이 여 만 일 ㅎ 훌 만 ㅎ 시 거 든 이 잔 으로 내 채 오 지 안 채 ㅎ 쇼 셔 그  
러 나 내 가 ㅎ 고 져 ㅎ 는 터 로 마 옵 시 고 아 바 님 의 뜻 터 로 ㅎ 옵 쇼  
셔 ㅈ 또 들 의 채 오 샤 자 는 거 슬 보 시 고 피 득 득 려 말 슘 ㅎ 샤 터  
너 희 가 날 ㅍ 쿠 처 혼 시 동 암 을 써 여 잇 지 못 ㅎ 누 ㄴ 써 여 괴 도 ㅎ  
야 시 험 애 들 지 안 채 ㅎ 여 라 모 움 에 는 원 이 로 되 육 신 이 피 곤 흠  
이 니 라 ㄷ 다시 두 번 재 ㅈ 나 아 가 괴 도 ㅎ 시 며 굴 으 샤 터 내 아 바 님  
이 여 만 일 이 잔 이 내 채 써 나 지 못 ㅎ 거 시 어 든 내 가 마 셔 아 바 님

의 뜻대로 일우여 지이다 호시고 다시 오사 데즈들의 자는 거슬  
보시니 눈이 피 곤 흠일너라 그들을 브리시고 다시 나아 가세번  
재괴도 호시며 말숨호시기를 전파고 치호시고 데즈들의 깨오  
샤널네글으샤티 이제는 자고 쉴지어다 때가 갖가 왓시니 인조  
— 죄인의 손에 풀녀가리라니 러나 흠색 갈지어다 나를 풀자 가  
갓가이 왓느니라 말숨호실째에 열두 데즈 중 호나 유대가 환도와  
몽치가 진해다 혼사름을 드리고 제소제장파 빅성장로의 깨서  
왓는지라 예수를 푸는쟈 — 군호를 짜글으더 누구던지 내가 입  
마초는 이가 곳그사람이니 잡으라 호고 곳예수 씨나아 와글으  
터선성님안녕호옵시오 낫가호고 입율맛조니 예수 — 글으샤  
터친구여 네가 무엇술호라고 왓는지호여라 호시니 나아 와예  
수색손을 터여 잡거늘 예수와 콧치잇던이 중에 호나히 손을 펴환

도를 빼여 대제 손의 종의 귀를 짹 그 니 예 수 — 님으 샤 터 비 환도  
를 도로 집에 쇠지라 환도 쓰는 이들은 환도로 망호는 니라 네 모  
음에 는 내가 내 아바니 썩 구호 면자 금이 라도 열두 영더 되는 텁  
스를 보내지 아니 시리라 호는 나 만일 그려 캐 호 면성 경에 이런  
일이 있 소리라 흄을 엊더 채일 우리 오호 시더 라 그 때에 예 수 —  
여러 사람에게 말숨 허샤 더너 회가 강도 잡는 것 치 환도 와 몽  
처를 가지 고나를 잡으러 왔는 냐 내가 날마다 성면에 안져 그 른  
처 되너 회가 잡지 아니 훈지라 그려 나 이 일이다 일움은 선지자  
의 괴록 흄을 일움이라 하시니 데조 들이다 뼈나다 르나 더 라 [ ]  
예수를 잡은 자들이 쇠을 고 대제 손 히아 법의 집에 서 샤관파장로  
들 모힌 곳으로 가니 오적 피득이 멀니 쫓차 대제 손 아문 애드러  
가하 안파고 치안쳐서 뜻나는 거슬 보고 져 후더 라 제 손 제 장파

온 공회가 거조 중 거로 예수를 무함<sup>하</sup>야 죽이고 져<sup>하</sup> 나 거조 중  
거 잘<sup>하</sup>는 이가 만히<sup>있</sup>셔도 엇지 못<sup>하</sup>더니 후에 두 사<sup>룸</sup>이 와서  
골<sup>으</sup> 터<sup>六一</sup> 이사<sup>룸</sup>이 전에 말<sup>하</sup> 되내가 하느 님의 성<sup>면</sup>을 헐<sup>교</sup> 사<sup>흘</sup>  
만 애<sup>짓</sup> 젖다<sup>하</sup> 더라<sup>하</sup> 니<sup>六二</sup> 대제<sup>스</sup> | 니 러나<sup>서</sup> 예수 드려<sup>무</sup>르 터  
아 모<sup>터</sup> 답<sup>도</sup> 업<sup>는</sup> 냐 이사<sup>룸</sup>의 증거<sup>하</sup> 눈<sup>거</sup> 시무<sup>엇</sup> 시뇨<sup>하</sup> 되<sup>에</sup>  
수 | 즘<sup>즈</sup> 즘<sup>즈</sup> 하<sup>시</sup> 거<sup>늘</sup> 대제<sup>스</sup> | 다시 말<sup>하</sup> 예<sup>골</sup> 으<sup>터</sup> 내<sup>가</sup> 너<sup>를</sup> 하<sup>느</sup>  
님<sup>암</sup> 희<sup>밍</sup> 세<sup>호</sup> 개<sup>하</sup> 노<sup>니</sup> 과<sup>연</sup> 하<sup>느</sup> 님<sup>의</sup> 아<sup>들</sup> 고<sup>독</sup> 이<sup>어</sup> 든<sup>우</sup> 리  
새<sup>말</sup> 호<sup>라</sup> <sup>六三</sup> 골<sup>으</sup> 샤<sup>더</sup> 네<sup>가</sup> 말<sup>하</sup> 옛<sup>느</sup> 니<sup>라</sup> 그<sup>러</sup> 나<sup>내</sup> 날<sup>으</sup> 노<sup>나</sup> 이  
후<sup>에</sup> 인<sup>조</sup> | 친<sup>능</sup> 잊<sup>눈</sup> 이<sup>외</sup> 우<sup>편</sup>에<sup>인</sup> 젖<sup>다</sup> 가<sup>하</sup> 늘<sup>구</sup> 룸<sup>을</sup> 쓰<sup>고</sup>  
옴<sup>을</sup> 보<sup>리</sup> 라<sup>하</sup> 시<sup>니</sup> <sup>五</sup> 대제<sup>스</sup> 제<sup>스</sup> 제<sup>스</sup> 웃<sup>슬</sup> 써<sup>지</sup>며<sup>골</sup> 으<sup>터</sup> 이<sup>사</sup> 룸<sup>이</sup> 촘<sup>남</sup>  
남<sup>흔</sup> 말<sup>을</sup> 흐<sup>엿</sup> 시<sup>니</sup> 엇<sup>지</sup> 다<sup>른</sup> 증거<sup>를</sup> 흐<sup>리</sup> 오<sup>너</sup> 희<sup>도</sup> 이<sup>촘</sup> 남<sup>흐</sup>  
말<sup>을</sup> 드<sup>르</sup> 럽<sup>시</sup> 니<sup>四</sup> 성<sup>각</sup> 이<sup>업</sup> 더<sup>하</sup> 냐<sup>터</sup> 답<sup>하</sup> 예<sup>골</sup> 으<sup>터</sup> 죽<sup>임</sup> 이<sup>당</sup> 연

호 니 다 허 고 예 수 의 얼 골 애 춤 밟 흐 며 또 주 먹 으로 치 고 혹 은 손  
바 닥 으로 쌈 을 썸 리 며 굴 으 터 고 독 아 네 가 선 지 라 흠 니 너 를 천  
이 가 누 구 냐 말 흠 여 라 ○ 때에 페 득 이 밋 것 집 애 안 젖 더 니 흔 비 득  
가 나 아 와 굴 으 터 너 도 가 리 리 예 수 와 흠 셔 드 니 던 이로 다 흠 거  
눌 피 득 이 여 러 사 름 암 회 셔 모 론 다 흠 여 굴 으 터 너 말 흠 눈 거 시  
무 엇 신 지 나 는 아 지 못 흠 갯 다 흠 고 나 아 와 암 문 애 니 른 니 다 른  
비 득 가 보 고 또 거 괴 잇 는 이 득 려 걸 흠 되 이 사 름 도 나 살 른 예 수  
와 콧 치 드 니 던 이로 다 흠 니 피 득 이 득 모 론 다 고 밍 셰 흠 여 굴 으  
여 그 사 름 을 내 가 아 지 못 흠 노 라 흠 더 니 조 홍 후 애 경 회 셔 던 사  
통 들 이 나 아 와 굴 으 터 너 도 진 실 노 그 당 이 니 네 말 소 릭 가 너 를  
瞽 히 표 혼 다 흠 거 눌 輒 방 흠 며 밍 셰 흠 여 굴 으 터 나 논 그 사 름 을  
아 지 못 혼 다 흠 니 둑 이 곳 은 지 라 그 제 야 예 수 셔 셔 날 으 시 희

두 물기전에는 네가 세번나를 모른다 허리라 허심을 써 닷고 나  
아 와 통곡 허더라

### 데 이 십 칠 장

새벽 되여 서제스 제장파 빅성의 장로들이  
홍색예수를 해쳐 죽이기로 의론하고 결박하고 앉을어 감스피  
람다의 채보내더라 () 때에 예수를 푼유대 그명죄 흠을 보고 스  
스로 뉘웃쳐 뜻았던 온삼십을 제스 제장파 장로의 채도로 갔다  
주며 굴으 터내가 무죄 훈피를 푼거시 죄잇도 다 허거늘다만 더  
들이 굴으 터그거시 우리 채무슴상관이잇느뇨 베가 당호라 허  
거 늘 유대 가온을 성면에 내여더지 고물너나 가목미여 죽으니  
제스 제장이 그은을 거두며 굴으 터이거 슨피갑시라고 에너허  
둠이 합당치안타하고 의론호여 절그릇굽는사Rom의 밧출사서  
나그내장스지내는 땅을 삼으니 그려므로 지금서지그밧출피

맛치라닐코느니션지야리미의말씀을일우옛시니닐으티더  
희들이온삼십을취하매이식렬조손의제풀난이의갑시라그  
거슬주고질그릇굽는사롬의밧출사는거시쥬색셔내게명호  
신덕로되리라흐엿더라()예수|감수|암수|암수|암수|암수|  
러골으티네가유태사롬의왕이냐예수|티답호샤티네가말  
흐엿도다흐시고○제소제장파장로들이송수호되티답자아니  
흐시는지라피랍다|닐으티더들이여러사닭으로너를증거홉  
울듯지못하느냐흐되또훈마티도티답자아니시니그러므로  
감소|심히괴이하넉이더라절괴마다감소가여러사롬의소  
원터로죄인흐나식노아주는전례가잇더니그때에파랍파라  
흐는유명호죄인이갓친지라여러사롬모햇실째에피랍다|  
무러골으티너희가누구를노아달나흐느뇨파랍파|나괴독

이 라 흐 는 예 수 । 나 험 은 그 사 름 들 이 예 수 를 쇠 고 흐 여 잡 아 온  
줄 을 알 밀 너 라 ○ 감 스 । 송 스 밧 는 자 리 에 안 젖 더 니 그 안 히 사  
롭 을 보 내 여 골 으 터 더 올 흔 사 름 의 게 아 모 양 관 도 흐 지 마 읍 쇼  
서 오 날 냴 에 내 가 그 사 름 을 위 흐 야 이 를 만 히 쇠 는 이 다 흐 더 라  
제 스 제 장 파 장 로 들 이 빅 성 을 충 통 흐 야 파 랍 파 는 노 아 주 고 예  
수 를 멸 흐 자 흐 니 감 스 । 터 답 흐 여 골 으 터 두 사 름 중 에 누 구 를  
노 아 달 나 흐 느 냐 골 으 터 파 랍 파 로 소 이 다 피 랍 다 골 으 터 그 러  
면 괴 독 이 라 흐 는 예 수 를 엊 더 켜 흐 래 흐 니 더 들 이 다 골 으 터 십  
조 가 에 못 박 게 흐 쇼 셔 감 스 । 골 으 터 엊 짐 이 뉴 무 슴 악 혼 일 을  
흐 옛 느 냐 여 러 히 더 옥 소 림 질 너 골 으 터 십 조 가 에 못 박 히 게 흐  
쇼 셔 흐 거 눌 피 랍 다 । 말 흐 나 무 익 험 을 보 고 도로 혀 민 란 이 니 러  
날 가 흐 야 물 을 가 져 다 가 여 러 사 름 압 희 셔 손 을 써 셔 골 으 터 이

을 혼사 룸의 피를 흘 님 이 내 죄는 아 니니 너희 가 당 호 라 二五 빅  
성 이 다 터 답 허 터 그 피를 우 리 와 우 리 조 손 의 게 돌 녀 보 낼 지 어  
다 헤 거 늘 二六 파 랍 파 는 노 아 주 고 예 수 를 친 직 질 헤 여 십 조 가 에 못  
박 헤 계 二七 헤 니 라 ○ 감 二七 스 의 군 二七 스 들 이 예 수 를 잇 쓸 고 공 회 에 니 르  
러 온 영 문 을 모 호 고 二八 예 수 의 웃 슬 벗 기 고 홍 포 를 님 히 고 二九 가 식 면  
류 관 을 역 거 그 머 리 에 썩 우 고 갈 터 를 그 올 혼 손 예 들 니 고 그 암  
회 썰 어 안 져 회 롱 헤 여 골 으 터 유 래 님 금 은 평 안 헤 三十 냐 헤 여 춤 밟  
고 갈 터 를 가 져 그 머 리 를 치 고 三一 회 롱 헤 기 를 다 헤 매 홍 포 를 벗 기  
고 그 전 웃 슬 님 히 고 십 조 가 에 못 박 으 랴 고 쇠 으 러 가 니 라 ○ 여  
러 헤 나 아 가 다 가 고 리 내 사 룸 을 맛 나 니 일 홍 은 서 문 이 라 억 지  
로 그 십 조 가 를 지 우 고 각 각 타 라 三二 헤 는 곳 에 니 르 니 번 역 헤 면 회  
골 잇 는 곳 이 라 三三 초 에 쓸 기 를 타 셔 예 수 를 마 시 우 니 맛 보 시 매 마

시지아니호시니라십<sup>三五</sup>조가에못박은후예제비<sup>四四</sup>뽑아그웃술가  
지니션자의말숨을일우<sup>四五</sup>엿시니닐<sup>四六</sup>이<sup>四七</sup>희들이내것웃술는  
호고속웃손제비<sup>四八</sup>뽑아가저리라<sup>四九</sup>호<sup>四九</sup>엿더라<sup>五〇</sup>군수들이거괴안져  
직회고<sup>五〇</sup>명패를그머리<sup>五一</sup>우희<sup>五二</sup>두엇시니<sup>五三</sup>쓰기를이는유태사<sup>五四</sup>룸의  
님금예수라<sup>五五</sup>호<sup>五五</sup>엿고<sup>五六</sup>또<sup>五七</sup>강도<sup>五八</sup>둘을<sup>五九</sup>훔세<sup>五九</sup>십<sup>五九</sup>조가에못박을식<sup>五九</sup>호나  
는우편에잇고<sup>五九</sup>호나는좌편에잇더라○<sup>五九</sup>지나가는이들도<sup>五九</sup>식<sup>五九</sup>짓고  
머리를흔들며<sup>五九</sup>꼴<sup>五九</sup>으<sup>五九</sup>터<sup>五九</sup>성면을<sup>五九</sup>헬고<sup>五九</sup>사흘만에<sup>五九</sup>짓겟다<sup>五九</sup>호<sup>五九</sup>던이여  
이제네가너를구원<sup>五九</sup>홀거시오<sup>五九</sup>하느님의아들이<sup>五九</sup>면심<sup>五九</sup>조가에서  
느려오라<sup>五九</sup>호<sup>五九</sup>교<sup>五九</sup>그와<sup>五九</sup>곳<sup>五九</sup>치제<sup>五九</sup>스제<sup>五九</sup>장<sup>五九</sup>과<sup>五九</sup>서<sup>五九</sup>샤<sup>五九</sup>관<sup>五九</sup>파<sup>五九</sup>장<sup>五九</sup>로<sup>五九</sup>들<sup>五九</sup>도<sup>五九</sup>희<sup>五九</sup>  
호<sup>五九</sup>여<sup>五九</sup>걸<sup>五九</sup>으<sup>五九</sup>터<sup>五九</sup>제<sup>五九</sup>가<sup>五九</sup>다<sup>五九</sup>른<sup>五九</sup>사<sup>五九</sup>룸<sup>五九</sup>은<sup>五九</sup>구<sup>五九</sup>원<sup>五九</sup>호<sup>五九</sup>엿<sup>五九</sup>  
호<sup>五九</sup>는<sup>五九</sup>도<sup>五九</sup>다<sup>五九</sup>그<sup>五九</sup>가<sup>五九</sup>이<sup>五九</sup>석<sup>五九</sup>렬<sup>五九</sup>의<sup>五九</sup>님<sup>五九</sup>금<sup>五九</sup>아<sup>五九</sup>니<sup>五九</sup>죽<sup>五九</sup>금<sup>五九</sup>십<sup>五九</sup>조<sup>五九</sup>가<sup>五九</sup>에<sup>五九</sup>서<sup>五九</sup>느<sup>五九</sup>려<sup>五九</sup>올<sup>五九</sup>지  
어다<sup>五九</sup>우<sup>五九</sup>리<sup>五九</sup>가<sup>五九</sup>밋<sup>五九</sup>겟<sup>五九</sup>고<sup>五九</sup>제<sup>五九</sup>가<sup>五九</sup>하<sup>五九</sup>느<sup>五九</sup>님<sup>五九</sup>의<sup>五九</sup>아<sup>五九</sup>돌<sup>五九</sup>이<sup>五九</sup>라<sup>五九</sup>호<sup>五九</sup>야<sup>五九</sup>하<sup>五九</sup>느<sup>五九</sup>님<sup>五九</sup>을<sup>五九</sup>밋<sup>五九</sup>

으니 만일 하느님 씨 서 것 거 흐시 면 구원 흐시 리 라 흐 고 십 조 가  
에 흠 씨 못 박 한 강도 들도 이와 죽 치 육 흐 더 라 (오 시 중 으로 브 터 미  
시 말 쇠 지 온 짜 히 어 둠 더 니 거 익 미 시 말 이 되 여 예 수 | 크 게 소 릭  
질 너 굽 으 샤 터 엘 니 엘 니 나 마 사 짹 대 니 아 흐 니 번 역 흐 면 곳 내  
의 하느님 내 익 하느님 이 여 엇 지 나 를 브 리 시 는 니 잇 가 흠 이  
라 것 희 셋 던 짜 들은 듯 고 굽 으 터 이 사 름 이 이 리 아 를 부른 다 흐  
니 그 중에 혼 사 름 이 셀 니 가 셔 희 웅 을 초 에 적 셔 갈 터 에 췄 여 마  
시 우 랙 흐 거 늘 그 늘 은 이 들이 굽 으 터 아 직 그 만 두 어 라 이 리 아  
가 와 셔 구 원 흐 나 아 니 흐 나 보 자 흐 더 라 (예 수 | 다시 크 게 소  
리 치 른 시 고령 혼 이 떠나 가니 성 던 희 장 이 우 흐 로 브 터 아 래 쇠  
지 씨 어 져 들이 되 며 짜 이 진 동 흐 며 바 외 가 터 지 며 무 담 이 열 니  
며 자 던 성 안 의 몸 이 만 히 니 러 나 무 담 에 서 나 왔 다 가 예 수 씨 쇠

다시니 러나 신후에 거룩 혼성에 드러가여 러사람의 개보이니라 빅  
부장파 흠색 예수를 직희던 자들이 따히 진동 흠파지낸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굽으 터이 가진 실노하는 님의 아들이로다  
호더라 가리리로 브터예수를 쫓치며 섬기던 너인들이 거괴와  
서 멀니보니 그 중에 말대 랍의 마리아와 아각파요서의 어마니  
마리아와 셔비래의 아들 의어마닐너라 ○ 져물매아리마래에  
서부자요슬이라 호는이가오니 그도 예수의 예조이라 이사람  
이 피랍다의게나아가 예수의 시례를 달나호니피랍다 | 분부  
호여주거늘 요슬이시례를가져다가 정호비로싸셔 반석가온  
터 푼조괴새무덤에너허두고 무덤문에 큰돌을굴녀 놋코갓시  
매도 말대 랍에 마리아와 다른마리아가 무덤을터여 안정더라  
○ 그잇른날은 절일을예비 혼후날이라 제스제장파벌리시사

룸들이 흠썩 피랍다 의캐 모혀 콸으 터 쥬여 더유혹 헌던자 | 살  
앗실제 말 터사 홀후에 다시 살어나리라 흠을우리가 괴역 흐  
노니 분부<sup>六四</sup> 흐야 그 무덤을 사흘 신지<sup>六五</sup> 굿게 직희라 흐 쇼셔 그의 대  
즈들이 밤에 와서 시례를 도적 흐여 가고 빅성의 캐 말 흐 터 그가  
죽염으로 다시 살었다 흐면 후에 유혹이 전보다 더 될가 흐 노이  
다피 립다<sup>六五</sup> | 글으 터 너희께 슈직 흐 눈군스 | 잇스니가셔 힘터로  
굿게 직희라 흐 거늘 군스<sup>六六</sup> 들이 가셔 무덤에 돌을 쌓코 흠썩 슈직  
흐더라

데 이십팔장 사밧날 잊든 날 석벽에 말대 람<sup>六五</sup>에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랴고 왔더니 크게 디동 흐며 하느님의  
스자! 하늘에서 누려와 무덤문에 돌을 굽니고 그 우희 안정 눈  
터 얼골이 번지고 옷시희기가 눈파웃거늘 스<sup>六六</sup> 슈직 헌던자인 흐

야 무서워 죄니 죽은 사물파로 되는지라 <sup>五</sup>던스 | 여인들 드려  
닐 네 골 <sup>으</sup> 터 무서워 말나 너희 가십 조가 채 못 박힌 예수를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sup>六</sup> 그 가여 괴계 시지 안코 전에 말슴 <sup>호</sup>시던 터로  
다시 날어 나셨시니 와서 쥬의 누었던 곳을 보고 <sup>七</sup> 또 썰니 가셔 그의  
예조들 게널 <sup>으</sup> 터 그가 죽었다가 다시 살어 나셔 너희 보다 몬  
져 가리리로 가셨시니 거찌셔 너희 가그를 뵈오리라 내가 임의  
너희 드려 날넷느니라 <sup>하</sup>라 <sup>하</sup>거늘 그녀인들이 무서운 중크게  
깃거움으로 무덤에서 썰니 죄나 데조들의 채그말슴을 전하려  
갈석 <sup>九</sup> 길에서 예수를 맛나니 골 <sup>으</sup> 샤 터 평안 <sup>하</sup> 뇨 <sup>하</sup> 신덕녀인들  
이나 아가 그발을 안고 절 <sup>하</sup>니 예수 | 골 <sup>으</sup> 샤 터 무서워 말고 가  
셔 내 동성들 의게널 <sup>으</sup> 터 가리리로 가면 거찌셔 나를 보리라 <sup>하</sup>  
라 ○ <sup>+</sup>녀인들이 갈제 슈직 <sup>하</sup>던 군수 중 멋치성에 드러가 모든 지

낸 일들을 제스제장의 제교 <sup>하니</sup><sub>그</sub>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혀의  
론 <sup>하고</sup><sub>군</sub>수들의 재돈을 만히 주며 <sup>글</sup><sub>으</sub> 터 너희는 말 <sup>하</sup><sub>기</sub>를 우  
리가 잘 때에 그의 데 <sup>조</sup>들이 밤에 와서 그 사례를 도적 <sup>하</sup><sub>여</sub> 갔다  
<sup>하</sup><sub>라</sub> 만일 이 말이 감 <sup>스</sup>의 귀에 들 <sup>닐</sup><sub>지</sub> 라도 우리 가권 <sup>하</sup><sub>야</sub> 너희  
를 무 <sup>소</sup><sub>스</sub> <sup>하</sup><sub>께</sub> <sup>하</sup><sub>리</sub> 라 <sup>하</sup><sub>니</sub><sup>군</sup> <sup>스</sup>들이 돈을 빚고 <sup>마</sup><sub>르</sub> 치는 뒤로 <sup>하</sup><sub>니</sub>  
이 말이 이 날 <sup>서</sup><sub>지</sub> 유태사 <sup>를</sup> 가온 <sup>되</sup><sub>두</sub> 루펴 <sup>지</sup><sub>니</sub> 라 <sup>( )</sup><sub>열</sub> <sup>흔</sup> <sup>데</sup>  
조 <sup>1</sup> 가리리에 가서 예수 써서 명 <sup>하</sup><sub>시</sub> 던산에 <sup>나</sup><sub>르</sub> 러 <sup>예</sup><sub>수</sub> 를 써  
옵고 <sup>례</sup> 빙 <sup>는</sup> <sup>하</sup><sub>나</sub> <sup>후</sup>의 심 <sup>하</sup><sub>는</sub> 이 가잇거 <sup>늘</sup> 예수 <sup>1</sup> 나아와 <sup>닐</sup> 너  
곧 <sup>으</sup> 샤 <sup>터</sup>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내게 주셨시니 그 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백성으로 데 <sup>조</sup>를 삼고 아바니와 아들과 성신  
의 열 <sup>홍</sup>으로 세례를 주고 무 <sup>엇</sup> 시던지 내가 너희께 <sup>분</sup>부 <sup>호</sup> 거술  
다직희 <sup>게</sup> 그 <sup>근</sup>처라 또 나는 세상 뜻 날 <sup>서</sup><sub>지</sub> 너희와 <sup>홍</sup>양 <sup>곳</sup> 치잇

스리라 아멘

마태복음  
제 13장

죽심죽

마태복음종

경성정동 예수교회당인발

